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은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은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은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4월 29일) 2021년 6월 9일 수요일



한 권의 불교성전, 불교 중흥 밑거름

불교성전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신심의 요체이기도 하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진행하는 〈불교성전〉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한 불자들의 웃는 모습이 불교의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있다. 인증샷 이벤트에는 6월 3일 현재 100명이 넘는 불자들이 참여했다.

〈불교성전〉 보급 · 활용 제도화에 박차

조계종 포교원 · 디지털대 교육 일정 구성

사찰선 성전 읽기 모임 출범
개인 릴레이 구매 지속 증가
법회·불교대학 활용도 시작
"교재용 불교성전 개발 필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5월 15일 종단차원에서 법보시 불사를 선포한 조계종 사상 첫 종단본인 〈불교성전〉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 사찰에서의 법회 활용과 수지독송 모임 등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SNS를 통한 인증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자들의 수지독송 움직임에 발맞춰 체계적인 〈불교성전〉 활용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연화사(주지 장명)는 6월 15일 오후 2시 연화사 극락전에서 '불교성전 읽기모임'을 발족한다. 연화사 '불교성전 읽기모임'은 사찰에서 진행되는 첫 〈불교성전〉 수지독송 모임으로 동국대 교법사 출신의 박영동 법사가 주재한다. 읽기모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불교성전〉이 무료 제공된다. 연화사 읽기모임은 〈불교성전〉은 종단본 불교성전 출간에서 기획됐다.

이 같은 〈불교성전〉 활용 움직임은 최근 전국 사찰에서 확산되고 있다. 가장 많은 활용 사례는 법회서 법문 기본교재로의 사용이다.

칠곡 정암사(주지 대현)는 6월 10일 오전 10시 초하루법회서 불교성전으로 법회를 진행한다. 주지 대현 스님이 직접 불교성전에 실린 내용을 갖고 법문할 예정이다.

일산 원각사(주지 정각) 또한 일요법회마다 법문 주제를 〈불교성전〉에서 발췌해 법회를 진행한다. 원각사 측은 "〈불교성전〉을 바탕으로 법회를 진행하면 사전에 내용공지도 되고, 또 이른바 복습도 가능하다"며 불교성전 법회 개최 장점을 설명했다.

일부 사찰들은 교양대학 교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6월 2일 개강한 선재불교대학 입학생들에게 수업용 불교성전을 배포했다. **고양 노적사(주지 종후)**도 6월 6일 개강한 교양대학서 수강생들의 기본 교재로 채택했다.

개인들의 〈불교성전〉 소장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불교성전〉 보급을 위해 진행하는 릴레이 법보시 챌린지는 4차까지 진행돼 300여 명이 넘게 동참한 상태로 5월 27일에는 도반HC와 챌린지를 진행해 33명이 불교성전을 구입하기도 했다.

온라인 프로그램인 인스타그램 인증샷 이벤트에는 100여 명이 넘는 불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증샷에는 다양한 이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불교성전과 아이를 함께 올린 불자부터, 아이돌인 BTS사진을 함께 올린 청년불자들까지 다양했다.

이 같은 불자들의 성원에 조계종은 향후 신도교육 등에 활용되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중이다. 조계종 디지털대학은 8월 중으로 온라인을 통해 일반인 대상 〈불교성전〉 교육 강좌와 10월 중 전문교육자 양성과정 등을 개설한다.

먼저 '스토리로 만나는 〈불교성전〉' 강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불교성전에서 스토리를 발췌해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동영상인 관계로 10분 내외로 편성되며 총 54강이 진행된다. '〈불교성전〉 강의교습법'은 스님과 포교사, 불교교육 현장에서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불교성전〉을 활용한 교육과 법문 방향을 제시하는 강의다. 역시 개별 영상이 10분 내외로 편성되며 총 48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도 최근 교무회의에서 신도기본교육 개편에 관한 내용을 논의, 전국 불교대학 학장 간담회 등 〈불교성전〉 활용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유튜브채널을 통해 불교성전 애니메이션을 선보이기도 한 포교원은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불교성전과 디지털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교부장 정인 스님은 "〈불교성전〉이 사장되지 않고 불자들의 요구에 맞게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60여 불교대학에서의 활용 등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종단본 〈불교성전〉을 모본으로 수지독송이 편한 핸드북 형식의 〈불교성전〉과 전문 교육용 〈불교성전〉 및 교재를 개발하면 〈불교성전〉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독송대회부터 〈불교성전〉 전국사찰 동시법회 등 종단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이어졌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조계종, 기후위기 극복 위한 대국민 의제 추진한다

원행 스님, 환경의날 맞아
기후위기 담화문 첫 발표
'생명전환 불교행동' 수립



조계종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의제를 제시한다. 특히 생명전환을 위한 불교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방안들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은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원행 스님은 '탄소중립과 생명전환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담화문'에서 "기후 위기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개인이 지향해 온 삶의 방향과 방식에 대하여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전환'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며 "수직적인 성장사회가 아니라 윤회하고 공존하는 '순환' 사회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에 조계종 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생명전환 불교행동' 계획을 수립했다"며 "향후 10년간 종교계와 국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전환, 순환, 지족, 참여'라는 4대 전략기조와 방향을 정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불교의 세계관은 인간과 사회, 우주 만물이 하나의 세계로 상호의존적이고 함께 공존하기 위한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라는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현재의 삶의 양식을 성찰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조계종과 불교계가 함께 하겠다"고 천명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해인사 장경판전, 대중에 첫 공개

6월 19일부터 장경판전 내부 순례 프로그램 운영

해인사, "문화재 가치 향유"
매주 토일요일 사전예약제
1회당 입장인원 최대 20명

팔만대장경을 품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 내부가 사전예약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 제52호인 장경판전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큰 법회나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기간 중에만 한시적으로 개방돼 왔다.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6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인사 팔만대장경 사전예약 탐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보이자 세계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팔만대장경을 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결단이다.

해인사 장경판전 순례 첫 일정은 6월 19일 오전 10시다. 이를 시작으로 매주 토 ·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2차례 탐방이 진행되며 사전예약자에 한해 출입이 허용된다. 문화재 보존 및 훼손 예방을 위해 회당 입장 인원은 10명~20명으로 제한된다.

사전예약은 해인사 홈페이지에 설치된 '팔만대장경 탐방 예약'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 낮12시 신청마감되며 기준 참가대상자들에게는 월요일 오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총무국장 진각 스님은 "순례 프로그램을 통해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을 공개키로 한 것은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팔만대장경은 국난극복을 위해 조성된 문화재인 만큼, 이시대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6월 19일 첫 프로그램의 사전예약은 6월 5일부터 해인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송지희 기자



‘선교난동’ 개신교인들 고소

조계종 종무원 560명, 6월 2일 고소장 접수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종무원 연명한 피해고소는 첫 사례
목사 등 상대로 ‘예불방해죄’ 혐의


유남욱 총무원 기획실 감사팀장이 대표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계종 종무원들이 올해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봉행 당시 조계사 인근에서 ‘선교’를 빙자한 난동을 부린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간 ‘사찰 땅 밟기’ 등 불교계를 향한 개신교인들의 난동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조계종 종무원들이 개별연명을 통한 직접 당사자로 나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종무원 56명은 6월 2일 서울종로경찰서에서 ‘봉축법요식을 방해한 개신교인들에 대한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대상은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를 비롯해 현장에서 난동을 부렸던 개신교인 수명, 박준 유튜브 FINER 커뮤니티글 게시자다. 종무원들은 이들의 행위에 대한 직접 피해당사자로서 ‘예불방해죄’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위반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등에 따른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대표로 나선 유남욱 총무원 기획실 감사팀장은 종무원들의 이번 고소가 종교적 대립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진정한 종교화합을 위한 토대임을 분명히 했다.

유남욱 팀장은 “부처님오신날 조계사 앞마당에서 소란을 피운 개신교인들이 이미 개신교단체인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조치됐음을 알기에, 이후 당사자들의 반성과 자성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려 왔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는 없고 되레 평화나무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종무원들은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유 팀장은 “불교계를 향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일부 개신교인들의 행태와 이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종무원들이 자발적 연명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며 “내부 통신망에 고소취지를 올린지 3일만에 55인이 동참했다. 이번 고소가 진정한 종교화합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김봉석 법률사무소 금상 대표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5월 19일 오전 10시~11시 피켓팅과 확성기를 통한 고성방가로 형법 158조에 정한 예불 및 설교를 방해하고 위력으로 종교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특히 우정국로 일대가 집회금지구역임에도 집회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집회신고 후 경찰의 집회해산 명령 및 집회금지 통보에도 불응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착용한 모습들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기록돼 감염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종무원들과 시민들이 제공한 각종 사진과 영상자료들을 경찰 측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과거 봉은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에서 비슷한 사례가 지속돼 왔다”며 “조계종은 오랜 세월 동안 일부 개신교인들의 배타적인 신앙심에 따른 행위들을 관용과 자비로 지켜봐왔지만, 인내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고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고소에 나선 조계종 종무원들은 이날 문서로 배포한 고소취지에서 “일부 개신교인들의 타종교 모독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어긋난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한 일부 개신교인들의 오만함이 공동체 사회의 갈등과 종교간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알려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종교간 화합과 평화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조계종 싱크탱크 ‘화합과혁신위’ 공식 출범

6월 2일 1기 위원장 정념 스님
출재가 위원 25명 위촉장 수여
한국불교 미래 위한 의제 추진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6월 2일 ‘화합과혁신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한국불교의 새 미래를 열기 위한 의제들을 다룰 ‘화합과혁신위원회’가 1기 공식출범했다. 화합과혁식위원회는 불교발전을 이끌 ‘조계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아 지난 2019년부터 기획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전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의 여러 여건으로 공식출범이 미뤄졌다. 출범 준비 단계서부터 한국불교 현실을 진단하고 종단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제를 논의해 온 만큼, 공식 출범 이후 역할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6월 2일 ‘화합과혁신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장이자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 중진스님과 재가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위촉식에서 “4차 산업혁명 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19는 물질문명 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종교의 기능과 역할도 크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동체의 화합을 바탕으로 불교를 일신하는 데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념 스님은 이미 지난 2019년 화합과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당시 정념 스님은 사전준비위원회의 형태로 기획위원회를 구성, 2년간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위원회 차원에서 다룰 주요 의제와 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화엄과 이타행의 생명불교’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5대 목표 40대 과제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도출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한국불교, 새로운 100년 설계를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이며, 외부공개 없이 내부용으로 제작됐다.

위원장 정념 스님은 “한국불교는 문명전환을 맞이하여 패러다임 전환과 혁신을 위한 그랜드디자인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인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획위원회의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불교가 처한 현실과 사회문화 흐름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위원회가 최선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화합과혁신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전체회의를 소집해 조직 구성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종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 · 사회부장 원경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6월 1일 임명


성공 스님


원경 스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에 前 사회부장 성공 스님이, 사회부장에 사회복지법인 원각 대표 원경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36대 집행부에서 부장인사가 이뤄진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6월 1일 총무원 교역직 종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이날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임 문화부장 성공 스님과 신임 사회부장 원경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불교신문사 사장에 前 주간 현법 스님을, 주간에는 前 문화부장 오심 스님을 임명했으며, 호법부 호법과장에 석화 스님, 조사과장에 정혜 스님을 임명했다. 법오 스님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에는 덕엄 스님을 임명했다.

원행 스님은 새롭게 소임을 맡게 된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모두가 협력하는 가운데 역할을 잘 분담해서 종무행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인사이니 부실장 스님과 소임자 스님들은 잘 화합하고 협력해서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백신 접종하고 ‘템플스테이’ 할인받으세요

백신 1차 · 접종 완료자 대상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들은 템플스테이 비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참가 비용을 할인한다”고 5월 26일 밝혔다.

문화사업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적극 협력, 오는 6월부터 백신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백신 1차 접종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템플스테이 비용을 2만 원 할인한다. 인센티브는 선착순 총 1만 명에게 제공한다.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전국 135개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가능하며, 참가 시 해당 사찰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에 앞장서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1차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까지 마친 후 14일이 지난 사람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외국인스님에 활동비 지원

조계종 사회부, 6월 30일까지
한국 · 해외 불교간 교류 목적

한국 사찰에 거주하는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에서의 활동이나 한국불교문화를 자국에 소개할 경우 활동비가 지원된다. 외국인 스님들을 통해 한국 · 해외 불교간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최근 처음으로 ‘외국인 스님 자국홍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6월 3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한국 사찰에 거주하면서 불교와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이 대상이다. 스님들이 한국에서의 활동을 온라인 매체에 게재하고 이를 인증하는 캡쳐와 사진 등을 보내면, 성과를 포인트로 책정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제는 한국불교 문화와 자국불교 문화의 차이점을 소개하거나 한국에서의 활동이며, 자국언어로 본국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유튜브 매체 활동은 50포인트. 자국 신문 및 방송은 100포인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은 각 5포인트가 적립된다. 1포인트당 현금 1000원이 책정되며, 1인 최대 300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국제팀은 “6월까지 1차 지원사업을 진행한 후 하반기 2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2011-1830

송지희 기자



통도사, 사찰 최초 '개방형 수장고' 건립한다

불화전문 및 성보박물관 활용
문화재 보존과 관람 동시가능

2022년 12월 중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월부터 연구 설계 시작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1140평
자연친화적 복합 문화 공간으로



통도사가 추진 중인 개방형 수장고와 복합문화공간 조감도. 과거와 현재 · 미래를 잇는 살아있는 불교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주지 현문)에 '개방형 수장고'가 새롭게 조성된다. 이를 통해 통도사는 보유문화재의 안정적인 보존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전통문화 접근성을 높여, 명실상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살아 있는 불교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통도사가 추진 중인 개방형 수장고는 성보문화재 보존 및 관람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시 시스템이다. 위치는 통도사 내 지산리 609-11번지 서운암 인근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 2022년 12월, 총 3년간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110억이며 지하 1층, 지상 1층과 녹지 지붕 형태 현대식 건축물로 건립된다. 대지면적 6212(1880평), 연면적 1140평 규모다. 수장고는 통도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와 유물을 보관하는 동시에 불화전문박물관이자 살아있는 불교문화공간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현재 통도사는 보물20건 36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가 30건 850점, 경남문화재자료 12건 16점 등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4만 5000점에 이르는 유물도 보관 중이다. 하지만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은 일부에 불과하고 수장고 또한 노후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도사는 효율적인 유물관리 및 시민들의 관람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수장고를 고안, 건립 계획에 돌입했다. 특히 통도사가 보관 중인 유물의 특색과 박물관의 특징에 맞춰 설계에 만전을 기했다.

새롭게 건립될 개방형 수장고 지하 1층에는 개방형 체험 다목적실과 학예실, 유물 정리실, 전기실 등이 위치하며 지상 1층은 로비와 관람객의 쉼터인 편의 시설, 문화재 이동 관리 공간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특히 수장고는 대형 괘불을 보여 줄 수 있는 불화전문 박물관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불화와 괘불을 장엄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정했으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최첨단 시스템이 설치된다.

실내에는 자연 채광 및 바람으로 충분한 밝기를 제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자연 친화적 건물로서 주변 환경과도 어울릴 수 있도록 녹지형 지붕으로 특별 설계돼 시민들에게 통도사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현대식 건물을 선사할 전망이다.

통도사 재무국장 현담 스님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 까다로운 절차와 심의를 통과하고 현재 설계 승인이 되었다"며 "건축 허가 중이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통도사는 수장고를 중심으로 복합문화공간도 함께 조성해 문화유산 보존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도 앞장선다.

복합문화공간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완충구역에 건립된다. 완충구역은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유네스코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공간이다. 통도사는 지난 1년간 세계문화유산 관리 계획을 시행해 왔으며 역사성과 문화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수행 및 신앙 공간과 일반 문화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복합문화공간은 성보박물관 앞에 위치한 주자창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건물로 공사될 예정이다. 예산은 280억이며 현재 설계 신청을 해둔 상황이다. 복합문화공간은 시민 및 관람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전통찻집과 카페 및 체험공간이 들어선다. 아울러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전시 및 체험장도 있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담 스님은 "개방형 수장고와 복합문화공간 건립불사가 마무리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널리 세계인과 불교문화를 향유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스님은 "개방형 수장고는 현대문명 속에 과거 전통을 더해 풍요로움을 선사할 것이며 복합문화공간은 불자와 국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동시에, 기존 전통 수행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장소를 정리해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율사 자운 스님 생가 복원 본격화

지난 4월 스님 생가터서
탄신 110주년 다례 봉행
본격적인 선양사업 '첫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율사인 자운 스님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필사하며 방대한 율장을 정리한 중흥율조로 평가받고 있지만, 스님의 사상과 유훈을 기리는 선양사업이 활발하지 못했다. 대율사 자운 스님의 생가 터가 복원된다. 또한 생가 터 복원을 시작으로 자운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 확대도 기대를 모은다.

자운 스님 탄신 110주년을 맞아 스님 생가 터인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50번지에서 기념 다례재가 지난 4월 14일 봉행됐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봉행된 다례재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 심원사 회주 종성 스님 등이 참석했다.

자운 스님의 출생지는 오대산 인근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문도인 홍천 불광사 주지 본홍 스님이 수년간 오대산과 계방산 등을 살피고, 자운 스님 속가 친척들의 증언을 들어 생가터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50번지 일원임을 확인했다.

본홍 스님은 확인된 자운 스님의 생가 터 주변 토지를 매입해 유적지 조성 불사에 들어갔으며, 움막을 짓고 2년간 동안거 100일 기도를 진행하기도 했다.

자운 스님 문도 스님들은 생가 복원 불사를 시작으로 자운 스님 선양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자운 스님의 생가 복원 불사는 지관 스님께서 완수하려고 했던 불사이다. 문도인 본홍 스님이 직접 수소문해 생가 터를 확인하고 복원 불사에 들어갔다"면서 "생가 복원 불사를 시작으로 자운 스님 선양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 문도들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운 스님은 1927년 해인사에서 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남전 스님에게 사미계를, 일붕 스님에게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선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하고 1935년 울진 불영사에서 3년 결사를 회향했다. 해인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1980년부터 조계종 전계대화상으로 10만여 명의 수계제자를 배출했다. 스님은 1992년 1월 4일 해인사 홍제암에서 세수 82세, 법랍 66세로 원적에 들었다. 신성민 기자

"살처분동물 넋 위로"…방역정책 개선 촉구

사노위 등 불교계 93개 단체
6월2일 동물추모기도회 봉행


불교계 단체 93곳이 6월 2일 봉행한 '예방적 살처분 희생 동물 추모기도회'.

불교계 93개 단체들이 반생명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이뤄지는 '동물 살처분' 정책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선제적 방역이란 명분하에 진행돼 온 무차별적 살처분으로 생명을 잃어간 수많은 가축들을 위로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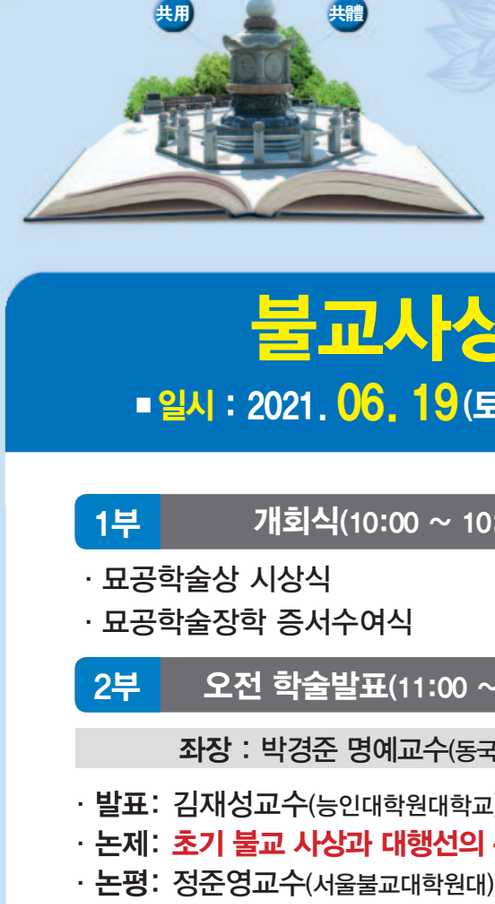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와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신대승네트워크(소장 박재현) 등 불교계 단체 93곳이 6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예방적 살처분 희생 동물 추모기도회'를 봉행했다. 그간 불교계에서 살처분으로 생명을 잃은 동물들의 천도재나 살처분 법개정 촉구 활동 등은 개별적으로 진행돼 왔지만, 불교계 100개 가까운 사찰과 단체들이 뜻을 함께하며 조직적인 행보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류독감 발생 당시, 화성 신안농장의 닭 7000여 마리가 거리를 기준으로 한 방역정책에 의해 살처분 당한 사례가 기폭제가 됐다. 주최측에 따르면 당시 화성 신안마을은 공장형 축산시설이 아닌 동물복지 기법으로 운영되는 축산농가들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단지 거리상 방역구역이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살처분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기도회는 그동안 조류독감 · 구제역 · 돼지열병 등 동물감염병과 관련한 일방적인 방역정책으로 살처분돼 죽어간 동물들의 넋을 애도하는 동시에 인간의 이기심을 참회하고 농림축산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참여 단체들은 더 이상 인간의 이기심으로 동물의 목숨을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송지희 기자

대행선연구원 개원 5주년
제5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깨달음의 삶을 가르치는 붓다의 가르침은 진정한 인간의 삶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중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계도하기 위하여 정토·화엄·법화·유식·선 등의 다양한 사상으로서 나타났고,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들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존의 여러 불교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법을 비교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대행선 수행법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이 시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교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론

■ 일시 : 2021. 06. 19(토) 10:00 - 17:0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3층

1부 개회식(10:00 ~ 10:45)
· 묘공학술상 시상식
· 묘공학술장학 증서수여식

2부 오전 학술발표(11:00 ~ 12:20)
좌장 : 박경준 명예교수(동국대)
· 발표: 김재성교수(능인대학원대학교)
· 논제: 초기 불교 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론
· 논평: 정준영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
· 발표: 이기운교수(동국대)
· 논제: 천태학에서 바라본 대행선
· 논평: 최동순교수(동국대)

2021년 6월 19일(토)
(10:00 ~ 17:00)
YouTube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https://www.youtube.com/user/HanmaumTemple
※자료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3부 오후 학술발표(13:30 ~ 15:40)
좌장 : 김용표 명예교수(동국대)
· 발표: 박보람교수(충북대)
· 논제: 여래장과 여래출현을 통해 본 대행선의 수행관
· 논평: 김천학교수(동국대)
· 발표: 차상엽교수(경북대)
· 논제: 공과 여래장, 그리고 주인공
· 논평: 남수영교수(능인대학원대)
좌장 : 서윤길 명예교수(동국대)
· 발표: 김호귀교수(동국대)
· 논제: 대행선 & 묵조선 수행의 심리적 성격 고찰
· 논평: 이상호박사(서강대)

토론광장 15:50 ~ 16:50
좌장 : 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

폐회식 16:50 ~ 17:00
총평 / 마무리인사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031)470-3276/3277 E-Mail : ds7788@hanmaum.org

도심 명상포교 대가 '禪벤져스' 총출동

참선지도자協, '5기 참선아카데미 명상대강좌' 개강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월호 · 각산 · 마가 · 금강 스님 등 숲 속과 도심서 오랫동안 명상 포교를 해온 선승들이 함께 손잡고 뭉쳤다. 목적은 오직 하나. 참선과 명상 수행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곧 침체에 빠진 한국불교 간화선 중흥을 위한 지름길이란 판단에서다.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하기 위한 어벤져스처럼, 이들은 스스로를 佛벤져스, 禪벤져스로 자처하고 팔을 걷어 부쳤다.

월호 · 각산 · 마가 스님과 이용태 한국명상총협회 운영위원장 등 4명은 5월 31일 오후 2시 서울 홍은동 현성정사 5층 대법당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한국참선지도자협회(이사장 의정)가 6월2일부터 9월1일까지 13주 과정으로 '제5기 참선아카데미 명상대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 공동회장 각산 스님은 "참선아카데미는 참선지도자협회의 강좌로 조계종 내에서는 아마도 최초로 참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참선을 위주로 하돼 명상을 포괄한다는 취지로 강좌들이 구성돼 있으며, 지도자 육성을 위해 수강료를 받고 있지만,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청강은 할 수 있도록 저비용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산 스님은 "풍부한 수행과 참선 실참 경험을 갖춘 선승을 비롯해 명상심리, 명상의학 등 융복합 분야서 활동하는 최고의 명상가들로 교수진을 구성했다"면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포교를 제시할 이번 대강좌는 선(禪) 명상법의 프로페셔널 세계로 안내할 것"이라고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이어 공동회장 마가 스님도 "참선아카데미를 통해서 불교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참선을 위한 예비단계가 필요하다 싶어 자비명상을 만들어 지도하고 있다"며 "먼저 내 마음의 모난 부분을 깎아 가면서 둥글둥글하게 굴러가기 위한 준비 작업 등을 한 뒤 본격 수행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강좌는 각자 자기 분야의 최고봉인 12명의 명상 대가들이 실생활서 적용하는 마음공부와 명상법을 시대와 공감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 그릇은 어떤지, 내 심리상태는 어떤지,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더 채워야 될 것인지를 경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월호 · 각산 · 마가 스님과 이용태 한국명상총협회 운영위원장 등 4명은 5월 31일 서울 홍은동 현성정사 5층 대법당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한국참선지도자협회가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13주 과정으로 '제5기 참선아카데미 명상대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1일까지 온오프 강좌 진행
월호 · 각산 · 마가 스님 등 강사
"즉석 · 부분 해탈의 참 맛 선사"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도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즉석식품이 유행이고 넘쳐난다. 그런데 왜 즉석 해탈은 없을까 평소 생각했다. 한국불교가 활성화되려면 해탈이라는 게 대중화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탈이라는 게 대중들에게 너무 멀어졌다. 해탈이 산속과 선방에서만 30년 이상을 장좌불와한 사람도 할까말까 한 어려운것으로 인식이 돼버렸는데, 이런 현실에서는 불교가 대중화 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불교의 핵심이 해탈에 있기 때문"이라며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여기서 누구나 해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원래 선의 정신은 단박에 깨치는 즉석 해탈에 있다. 이런 선의 본래 정신이 살아나야 한국불교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이번 강좌 때만이라도 참가자들에게 부분 해탈의 참맛을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이번 강좌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용태 한국명상총협회 운영위원장은 "너무 어렵고 멀리 있는 불교로는 미래가 없다. 역수입돼서 들어오는 서양의 마인드풀리스도 초기불교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서양인들이 알기 쉽게 바꾸어 놓은 것 뿐"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서 참선을 기반으로 명상을 대중화시키는 사람은 극소수지만, 일본 선센터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의 중심에도 진출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영세한 한국인 위주의 사찰들만 미국이나 유럽 속 사회에 들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듯 참선은 어렵고 힘들 것으로만 인식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진력해온 도심 속 포교 대표 수도승 네 분의 전달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번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남 참불선원서 열린다. 수강생은 오프라인 70명, 온라인 200명을 모집하며, 전체 수업 일수의 70% 이상 출석해야 졸업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수업은 실시간과 녹화 영상 모두 청강 가능해 직장인들도 참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참선지도사 2급 자격증과 명상지도사 2급 자격증 과정을 겸해 진행되는 이번 강좌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첫날 한국참선지도자협회 공동회장 각산 스님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강의를 시작으로 △마가스님의 잠깐 멈춤(마가 스님, 한국참선지도자협회 공동회장) △참사람수행법(금강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행복에 이르는 참선명상(월호 스님, 행불선원장) △현대사회의 참선과 명상(이용태 한국명상총협회 운영위원장) △선승으로 체험한 참선법(혜우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부의장) △세계명상센터 현황(각산 스님) △선방 수좌의 실제 참선(정과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선승) △수행법의 두 흐름(김열권 위빠사나 붓다 선원장) △참선이란 무엇인가(월암 스님, 한산사 회주) △불교명상심리치료(전현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질의응답(각산 스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특강 일환으로 충주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과 봉화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을 직접 찾아가 법문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한편 한국참선지도자협회는 실참 수행을 기본으로 '참선지도사(명상마스터)'를 양성하기 위해 제방 선원서 정진한 선승들과 정신의학, 명상심리학 등 전문가와 교수들이 참여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명상대강좌를 개최하고 충주 석종사, 인제 백담사, 봉화 축서사, 양평 상원사 등 사찰에서 '참선 템플스테이'를 실시하며 '참선지도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현장 대면 강의는 30만원, 비대면 온라인 강의는 20만원, 청강은 9만원이다. (02)566-0804, 1577-3696

정치 · 경제 · 연예계…강남서 불교 스터디

수미산 원정대 1기 입학식
자승 스님 비롯 활동 격려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불교중흥의 씨앗이 될 수미산원정대가 3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5월 27일 보우당에서 제1기 수미산원정대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입학한 74명의 1기 수미산원정대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새 불교로의 발전을 서원했다.

이들의 첫걸음에는 교계 주요인사들도 참여해 격려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수미산원정대 단장 원명 스님 등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오리엔테이션 전 수미산원정대 대중은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도 합장으로 인사했다.

이번 제1기 수미산원정대에는 총 74명의 사회저명인사들이 참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원욱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정치계 인사부터 육현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김완표 삼성SDS부사장, 안창섭 여은 대표 등 경제계 인사, 김동건 변호사를 비롯한 강동근 김&장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윤성이 동국대 총장, 민세진 박찬규 신영섭 교수 등 교육계 인사 등 면면은 다양했다.



수미산원정대 1기로 참여한 입학생들이 불법 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부부간에 참석한 이들부터, 종교가 없지만 주변의 권유로 오게 된 이들까지 참여자들의 사연은 가지각색이었다. 〈울지마 톤즈〉를 제작한 김형진 KBS PD와 명상을 즐겨하던 이상묵 삼성생명 고문 등은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색과 성찰의 방법을 익히기 위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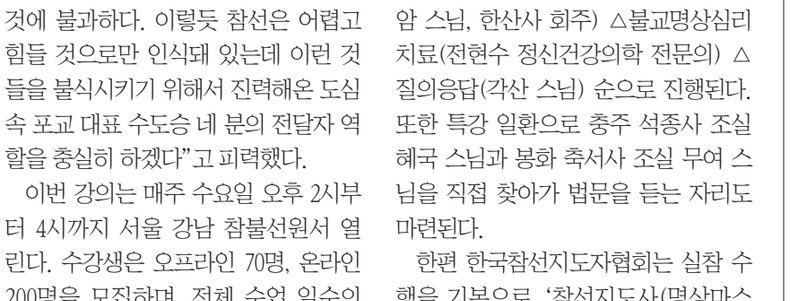
불교계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던 배우 김태겸 씨,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한중문화센터 원장 등은 초심불자로 그동안 깊게 알지 못했던 불교를 보다 잘 알기 위해 수미산원정대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불자로 트로트 열풍을 이끌고 있는 가수 송가인 씨도 특별입학생으로 함께했다.

제1기 수미산원정대 교육일정은 불교기초교육부터 사찰문화체험, 불교문학과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다.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에서 불교의례와 사찰예절을 배우며, 2강과 3강에서는 불교 기본교리 교육이 진행된다. 4강에서는 간화선과 위빠사나 등 불교수행이, 5강인 6월 25~26일 혹은 7월 2~3일에는 삼보사찰 성지순례가 이어진다.

6강과 7강에서는 봉은사 사찰탐방을 통해 불교미술사 교육이, 8강에서는 사찰음식과 차 문화, 9강에서는 불교와 문학, 10강에서는 불교사 및 경전산책, 11강에서는 불교와 과학의 접점 탐구 등이 이뤄진다.

교육과정을 구성한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불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했다"며 "신명나는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2기 3기 예비 수강생 또한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초심불자로서 수미산원정대에 참여하게 된 금나나 동국대 교수는 "불교는 종교가 아닌 문화재로 남게 된다는 회주 스님의 뜻에 힘을 보태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모태불자이긴 하지만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새롭게 보존처리를 마친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의 모습.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제 모습 찾은 '이성계 유리 사리병' 첫 공개

국립춘천博 보존처리 완료해
8월 15일까지 전시에서 공개
조사로 '석영유리' 재질 확인

보물 제1925호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가 보존 처리를 통해 제 모습을 찾고 최초 공개된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울림)은 "특별전 '오색영롱-유리, 빛깔을 벗고 투명을 입다'에서 새롭게 보존처리를 마친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를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5월 26일 밝혔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유물인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는 1932년 금강산 월출봉에서 가장 바깥쪽 백자 사발 안에 청동완과 팔각당형 사리기, 라마탑형 사리기를 차례로 넣고, 제일 안쪽에는 원통형 모양의 유리 사리병을 봉안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전 출품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 유리 사리병을 보존처리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유리 사리병이 높은 수준의 제작기술을 보여주는 무색투명한 '석영유리'로 제작됐음이 처음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국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석영유리는 불국사 석가탑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유리구슬이 유일했으나 유리제 사리병으로는 첫 사례"이라며 "향후 유리제 문화재의 과학적 분석과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염원을 가득 담은 무색투명한 왕의 유리 사리병은 오는 8월 15일까지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특별전 '오색영롱-유리, 빛깔을 벗고 투명을 입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자살예방센터 전국네트워크 시급"

생명존중정책 민 · 관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5월 28일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우리나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7개 종단 연합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불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각 종단 대표가 모여 자살예방방안을 논의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토론에서 "인터넷과 유튜브 등 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 종교의식에서의 자살예방 필요성 주지, 유가족 템플스테이 등 관계자 정신 치료, 성직자 대상 생명교육 등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이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종교자살예방센터의 지속 설립이 필요하다. 불교계는 불교자살예방센터의 전국네트워크와 NGO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사진 왼쪽부터 보물로 지정예고된 칠곡 송림사 대웅전, 대구 동화사 극락전,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의 전경.

팔공산 주요 고찰 전각들 '보물'된다

문화재청, 5월 25일 지정예고
지역특색 불전 3곳 가치 인정

17~18세기 팔공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고찰들의 불전들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경북도 유형문화재 '칠곡 송림사 대웅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대구 동화사 극락전',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등 3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5월 25일 밝혔다.

송림사의 주불전인 칠곡 송림사 대웅전은 임진왜란의 전란을 겪은 후 1649년에 중수됐으며 이후 1755년, 1850년 두 차례의 중수를 거쳐 현재 모습으로 남아 있는 건물이다. 대웅전은 정면 5칸, 옆면 3칸 규모인데 17세기 이후 재건한 불전이 정면 3칸, 옆면 2칸을 채택했던 추세와 달리 이전의 규모를 지키고 있다.

대구 동화사 극락전은 1600년(선조 33년)에 중건을 시작하였고, 그 중 금당(金堂)을 제일 먼저 건립했는데 지금의 극락전으로 판단된다. 이후 문헌기록을 통해 1622년에 중창되었음을 확인했다.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은 극락전의 뒤쪽에 있으면서 고금당(古金堂)이라고 전한다. 1465년(세종 11년)에 건립되었고, 임진왜란 뒤 1702년(숙종 28년)에 중창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문화재청은 "3건의 보물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17~18세기에 걸쳐 팔공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과 당시 이 일대에서 주로 활동했던 같은 계보의 기술자 집단에 의해 조영된 건축물"이라면 "시대적으로 앞서고 각각의 구조적 특징이 나타나 역사, 학술적 조형예술적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생명나눔, 조계종 복지재단과 공동사업

6월 2일 업무협약, 난치병 어린이 돕기 진행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6월 2일 본부 회의실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난치병 어린이 돕기'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일면 스님과 보인 스님,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해공 스님, 생명나눔 박종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법인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재단의 사업과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사회복지재단은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추천하는 난치병 어린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치료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일면 스님은 "불교사회복지 발전과 자비나눔 실천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사회복지재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 사회복지재단과 협력하여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인 스님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료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난치병 환아를 체계적으로 선별하여 선정된 환아 가정에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경전 어록, 佛法 압축…죽더라도 공부해라”

〈종용록 강설〉 완간한 성본 스님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서산 대사의 저서 〈선가귀감〉에 수록된 문구다. 이를 통해서 보면 불교는 부처님의 마음과 말씀을 통해 깨달아 스스로 부처가 되는 종교이다. 부처님의 마음과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단연 수행과 경전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팔만사천법문이라 할 정도로 방대하다. 이 방대한 법문은 경전에 모두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논서부터 고승 · 조사들의 선어록까지 불법의 요체를 담아내고 있다. 모두 불교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에 무엇 하나 허투루 볼 수 없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 교수를 지내고 현재 한국선문화연구원을 운영 중인 성본 스님은 평생을 선학(禪學) 연구에 매진해왔다. 스님은 최근 〈종용록 강설〉(총8권, 민족사 펴냄)을 완간했다. 지난해에는 〈선불교 개설〉과 〈돈황본 육조단경〉(개정증보)을 잇달아 출간하기도 했다.

이제 70세로 저술활동은 조금은 쉬엄쉬엄 할만도 하지만, 6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성본 스님은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단언했다.

성본 스님이 역주 · 강설한 〈종용록〉은 1223년 중국 조동종 선승 만송행수가 천동정각의 송고 100칙에 시중(示衆)과 착어(着語) · 평창(評唱, 강설 · 해석)을 붙인 것으로 원오극근의 〈벽암록〉과 함께 중국 선종 2대 명저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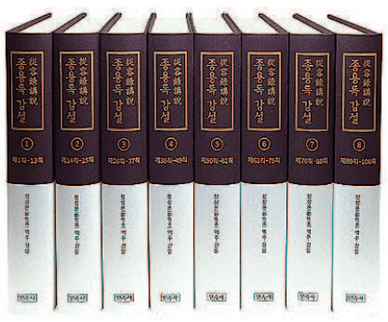
그간 한국불교는 임제종 선풍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종용록〉에 대한 제대로 된 강설집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성본 스님의 〈종용록 강설〉은 가장 주목할 만한 명강설서다. 〈종용록〉에는 많은 경전 구절과 용어, 중국 고사성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성본 스님은 그 말들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짚어내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 유학 시절부터 공부 · 집필하기 시작한 〈종용록 강설〉의 완성이 40년이 걸렸고, 교열만 2년 가량의 기간이 소요됐다”는 스님이 이야기에서 저술에 들어난 내공을 짐작할 수 있다.

“만송 선사의 〈종용록〉과 원오극근 선사의 〈벽암록〉은 제불 보살들과 선승들의 법문, 선시, 게송, 선사상의 진수를 제시하고 불법의 대의를 깨닫도록 설법한 선의 고전입니다. 제가 선어록과 〈종용록〉을 공부하게 된 인연은 일본 고마자와 대학 가가미시마(鏡島元隆) 선생의 〈천동굉지 광록〉 세미나에 참석하면서부터입니다. 〈굉지송고〉 100칙과 게송의 법문을 참구하면서 여러 주석서와 선승들의 평창을 읽고 사유했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정리해서 〈종용록 강설〉을 출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성본 스님은 30세에 비교적 늦게 일본 유학을 시작했다. 유학 전에는 여느 스님들처럼 선원에 방부를 들고 참선 수행을 했다. 어느 날 성본 스님은 서옹 스님의 〈임제록〉을 읽고 ‘정법안장(正法眼藏)’이라는 말이 궁금해졌고, 도반의 인연으로 서옹 스님을 친견하게 됐다. 친견 자리에서 서옹 스님에게 정법안장과 선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서옹 스님은 성본 스님에게 일본 유학을 권유했다.

늦게 공부를 시작한 만큼 더욱 간절했다. “목숨 걸고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만 한 성본 스님은 유학 생활 8년동안 한 번도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공부만 했다. 스스로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했기에 아이치가쿠인 대학과 고마자와 대학에서 각각 석사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나서야 고마자와 대학서 박사학위를 받아 한국으로 귀국했다.



성본 스님이 완간한 〈종용록 강설〉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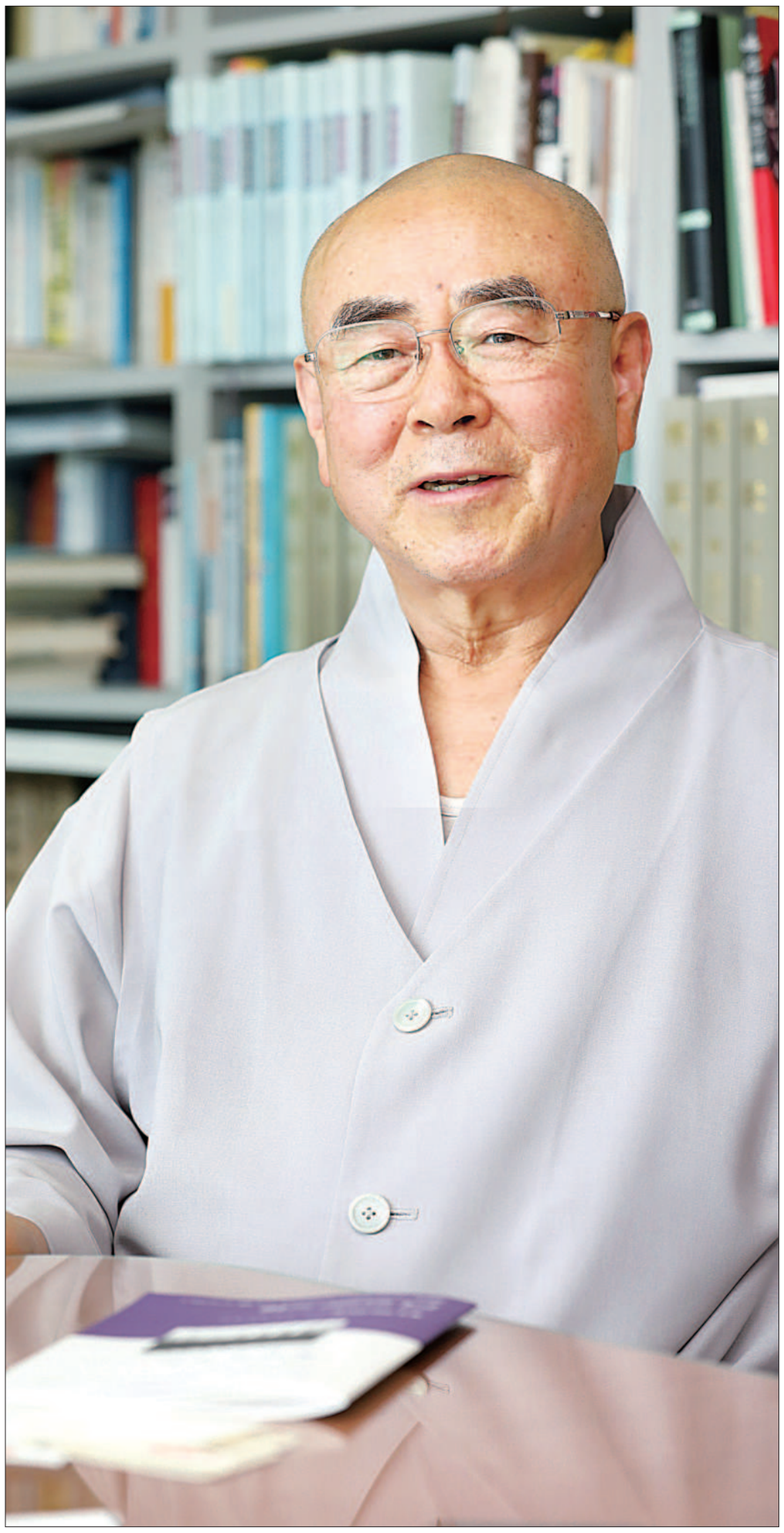
30세 늦깎이 일본 유학하며
공안 · 선어록 공부에 매진해
40년 정리한 〈종용록〉 완간

경전 공부해야 안목 생겨나
“책 보지말라” 잘못된 문화

임상 통해 좋은 의사 나오듯
바른공부가 명안종사 만들어

귀국한 뒤에는 선승이자 학자로, 또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자로 평생을 매진했다. 스님의 선에 대한 강설은 개인적 경험이 아닌 철저하게 경전과 선어록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더욱 명증하고 이해하기 쉽다.

스님은 제불여래나 선승들이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주장한 것이 아니며, 진여실상법을 설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부처님께서 당신 스스로 “49년 간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一字不說)”고 밝힌 이유도 여기 있다는 것이다.



성본 스님은 …1950년 경남 거창 출신으로 속리산 법주사에서 출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했으며, 일본 아이치가쿠인(愛知學院)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고마자와(駒澤)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선문화연구원을 운영 중이다. 역저서로는 〈중국 선종의 성립사 연구〉〈선의 역사와 사상〉〈선불교란 무엇인가〉〈선종의 전등설 연구〉〈참선수행〉〈간화선의 이론과 실제〉〈돈황본 육조단경〉〈벽암록〉〈임제록〉〈무문관〉 등이 있다.

“제불세존은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하지 않고 자아의식을 텅 비우고 대상 경계도 텅 비워 진여본심의 지혜로 진여법을 여법하게 개시(開示)했을 뿐입니다. 제불여래의 설법은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일입니다. 이 말은 불지견(佛知見)과 정법(正法)의 안목을 구족한 누구나 설법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문수, 보현, 관세음보살 등 수많은 대승보살과 유마 거사, 승만 부인, 암제차 여인, 8세 용녀와 조사, 선승들도 정법의 안목으로 선의 법문을 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본 스님은 정법의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전과 선어록을 바르게 공부해야 함을 강조했다. 공부를 통해 길러진 안목이 있어야 수행도 바르게 할 수 있고, 중생을 제접하며 법을 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님은 의사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임상’입니다. 많은 환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 독자적인 안목이 생기죠.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실상에 맞는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전과 선어록은 제불보살과 고승, 조사들이 전한 불법의 요체가 축약돼 있습니다. 이를 공부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 제불조사와 선승들을 친견하고 선의 종지를 탐구하는 구도행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한국인의 종교인식’ 조사에 불교인 중 66%가 “경전을 읽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것에 대해 성본 스님은 “불자들이 모두 공부를 너무 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를 만든 “문자 보지 말라”는 오역에서 비롯된 잘못된 문화라고 지적했다.

“〈육조단경〉에서 혜능은 ‘문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문자를 의식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문자를 의식, 대상의 경계에 두면 속박된 중생이 되기에 혜능은 문자를 의식의 대상으로 두지 않은 겁니다. 이건 책을 읽지 말라는 말과는 완전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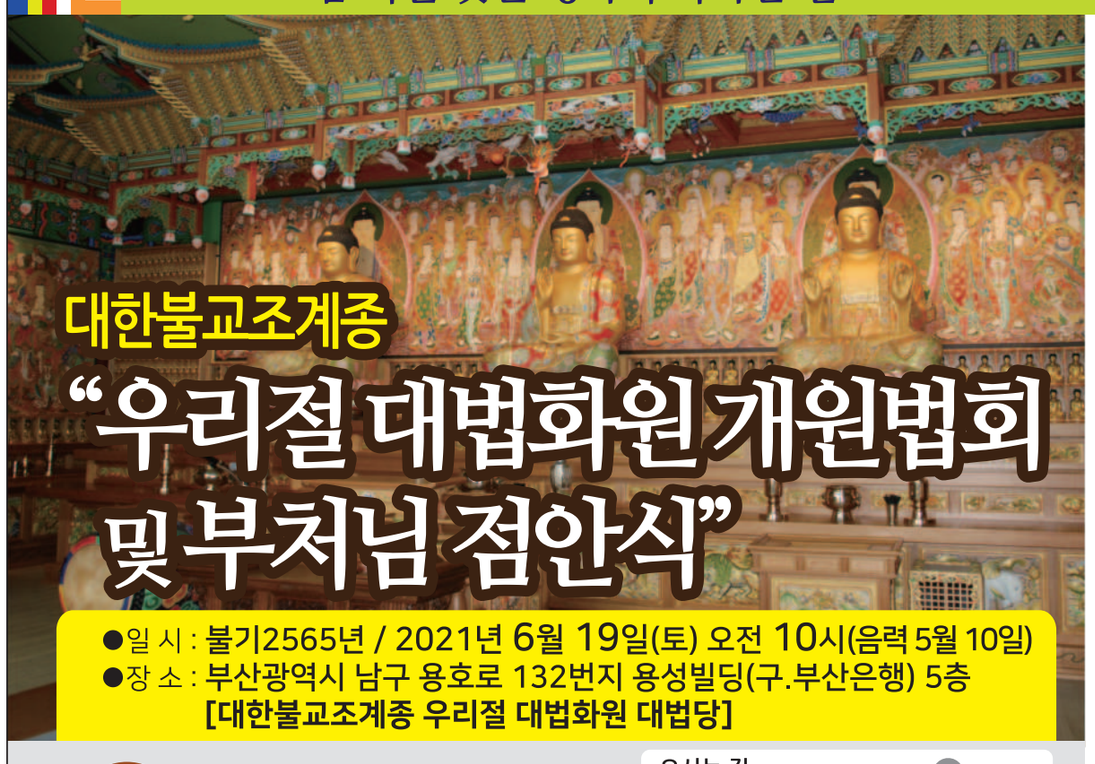
향후 스님은 강의와 저술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서울과 대구에서 진행한 강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구서만 진행 중이지만, 이를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설잠 김시습과 만해 한용운의 〈십현담 요해〉 · 〈십현담 주해〉를 역주 · 강설할 계획이다.

인터뷰 말미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을 맞이한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스님은 ‘처염상정(處染常淨)’을 통해 설명하며 ‘공부’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바세계라고 하죠. 진흙탕 속에서 사는 겁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뿌리도 결국엔 진흙입니다. 지금 여기 함께 하면서 수행을 통해 지혜를 이루는 창조적 삶을 사는 것이 불교입니다.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죽더라도 공부해야 합니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나를 찾는 행복이 가득한 절

불자교육 시민선방



대한불교조계종
법화신행도량 우리절대법화원
BTN 불교TV 진심법문 방송 도량
상담문의 : 051) 892-5000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32번지 용성빌딩 5층 (구 부산은행)



불자여러분!
한국불교 대표방송인 BTN불교TV에서 ‘진심법문’을 인기리에 강설한 대풍범각스님께서 그동안 닦아온 수행경험과 법력으로 불자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특화된 불교 신행 전문포교원 “우리절 대법화원”을 개원합니다.

첫째, “우리절 대법화원”에서는 주지 대풍범각 스님의 진심법문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큰스님들을 초청설법을 통하여 불자여러분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절 대법화원”은 불교의 진리와 신행을 배우고 익히는 포교원일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익히는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도, 서예, 꽃꽂이, 불화그리기, 노래, 선 체조 등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열어 불자님들의 불성과 인성계발은 물론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생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이 가득한 절’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셋째, 주지 대풍범각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방법’과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불자여러분! 오랜 신행 속에서도 깨달음이 열리지 않고 삶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대법화원’의 주지 대풍범각 스님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신다면 분명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시게 될 것 입니다.

불자여러분! “우리절 대법화원의 개원법회” 소중한 여러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참석하는 모든 불자님들께 귀한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회주 : 서해 흥교 큰스님(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주지 : 대풍 범각 스님(견불사, 실상선원, 사천왕사, 대각정사 창건주)

대풍 범각스님의 진심법문
YouTube 대풍범각TV



[주지 대풍범각 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출가
● 흥교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 견불사·실상선원·사천왕사·대각정사 창건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 미국코웬대학교 명예 종교학박사
● 현)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이사장
● 현)붓다야나명상대학 학장
● 현)대한불교자비공덕회 대표
● 현)대각정사·사천왕사·대법화원 주지
● BTN불교TV “진심법문“강의

함께 하실 가족을 모십니다.
● 공 양 주 : 1명
● 종무직원 : 1명 (유경험자 우대)
문의 : 051)892-5000

부산 동련, 천진불 포교 위한 도약 나선다

회장 이 · 취임식 및 부산연꽃문화제 시상

제 7대 회장으로 효산 스님 취임
콘텐츠 개발과 문화 포교로 선두
부산연꽃문화제에서 어린이 격려
어린이포교 후원금 500만원 전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단법인 동련 부산지구 신임회장에 효산 스님이 취임했다. 효산 스님은 부산지역 천진불 포교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다.

(사)동련(이사장 신공)은 5월 27일 부산 여래선원에서 '동련 부산지구 회장 이 · 취임식 및 제37회 부산연꽃문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삼귀의 △한글반야심경 △이임사 △회기 전달 △취임사 △축사 △공로패 전달 △연꽃문화제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 김수현 BTN 불교TV 부산지사장, 정분남 부산포교사단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사)동련의 회기를 전달받은 효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어린이 포교에 문화를 통해 새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산 스님은 "사단법인 동련은 찬불가와 여러 법회 프로그램과 온라인 어린이 법회와 어린이 지도자 교육까지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귀감이 되었다"며 "저도 어린이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자비의 수행을 닦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어깨동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사장 신공 스님은 신임회장과 전 회장의 공로를 치하하며 어린이 포교를 위해 함께 더욱 노력하고 관심갖기를 당부했다.

신공 스님은 "오랜 기간 동안 부산지구를 이끌며 노력해준 능후 스님께 감사하다"며 "어린이 포교를 위해 새로운 출발을 맡아 주실 효산 스님께도 감사하며 부산의 어린이 포교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희망의 불씨를 심자"고 당부했다.



(사)동련은 5월 27일 부산 여래선원에서 '동련 부산지구 회장 이 · 취임식 및 제37회 부산연꽃문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13년 간 부산지구 회장으로 노력해 온 능후 스님은 "앞으로도 관심을 잊지 않고 마음을 다해 어린이 포교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동련 부산지구는 1982년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로 출발, 초대 정관 스님, 2대 혜총 스님, 3대 철오 스님, 4대 정여 스님, 5대 지현 스님, 6대 능후 스님까지 39년간 어린이포교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사)동련은 어린이 포교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했다.

부산불교대상을 수상한 김수현 BTN 불교TV 지사장은 어린이 포교를 위해 사단법인 동련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수현 지사장은 지난 부산불교연합회가 주최한 부산연등축제 회향식에서 제3회 부산불교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상했으며, 이날 받은 상금을 동련에 회향해 어린이 포교를 응원했다.

제37회 부산연꽃문화제 대상(부산광역시장상)은 글짓기 부문 박영서(연서초 6)와 그리기 부문 황도현(사하초 3) 어린이가 각각 수상했다. 제37회 부산연꽃문화제는 '병원', '감사', '내가 만약 OO이라면'을 주제로 총 451명의 어린이가 참가했으며 32명이 수상했다.

통영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 감사패

반려동물 숲속놀이터 개소 등
정책 협조 · 장소제공 공로 인정


통영시청은 5월 17일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 '반려동물 숲속놀이터 개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남 통영시가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경남 최초 통영시 반려동물 놀이터 개소를 위한 장소제공 및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이다. 경남 통영시청(시장 강석주)는 5월 17일 '반려동물 숲속놀이터 개소 감사패 전달식'을 통영시청 제1청사 시장실에서 개최했다.

감사패는 반려동물 놀이터 부지를 위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았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은 지난 4월 16일 반려동물을 위한 '숲속 놀이터'를 사찰 경내 숲에 개장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개장은 민선 7기 강석주 시장의 공약 사항이었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이 보조 사업자로 나서면서 반려동물 놀이터 결실을 보게 됐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 강석주 통영시장, 박경수 통영시청 농축산과장, 이명선 통영지원 실장 등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자용 스님, 교정대상 자비상 수상

2004년부터 교정위원 활동



경남 통영시 두타사 주지 자용 스님〈사진〉이 교정 위원으로 활동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교정대상을 수상했다.

자용 스님은 5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자비상'을 수상했다. 이 시상식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교정공무원과 교정공로자가 참석했다.

자용 스님은 2004년부터 통영구치소에서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6571명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156회의 법회를 봉행했다. 스님은 마음 다스리는 법,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설명하고 재소자들의 심신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또 교화기자재, 불교서적, 영양 음식 등 약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으며 2007년 이후에는 설, 추석 등 명절과 부처님오신날에 약 2500만원 상당의 음식물(떡, 과일 등)을 보시했다. 또 자살우려자에 대한 불교 상담과 불우 수형자 · 고령 수형자에 대한 위로금을 전달하며 격려해오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 부산본부 시 · 산문 백일장 시상

5월 29일 수상자 38명에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 이하 생명나눔부산)는 5월 29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9층 문화홀에서 '제13회 생명나눔 시 · 산문 백일장 시상식'을 진행했다.

시상식에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인원을 제한, 대표 수상자 38명 가운데 학생 21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생명나눔부산 본부장 심산 스님, 이경순 생명나눔 이사, 차달숙 한국문학신문 전국총괄본부장, 차정연 부산불교문인협회 협회장, 김미순 부산시인협회 협회장 등 내빈이 동참해 격려했다.

작품 공모는 지난 5월 1일~22일 간 코로나19를 공통 주제로 진행됐으며 중등부는 '어머니', 고등부는 '사진'으로 주제어가 제시됐다.

백일장 작품 공모에는 중등부 82명(금정중 외 7개 학교)과 고등부 39명(해동고 외 7개 학교) 총 121명이 동참했으며 38명이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차명상, '계정혜 삼학' 수행 체계 갖춰"

제9회 칠불사 선차 학술발표회

김유리 박사, 불교수행적 고찰
하동군, 세계 차엑스포 추진도


칠불사는 5월21일 경내 선다원에서 제9회 칠불사 선차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차명상이 '계정혜 삼학'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칠불사(주지 도응)가 5월 21일 경내 선다원에서 개최한 제9회 칠불사 선차 학술 발표회에서 김유리 동국대 박사는 '차명상의 불교수행론적 이해' 주제발표에서 차명상을 통한 효과에 주목했다.

김유리 박사는 "차를 마시면서 마음의 안정과 고요함을 갖는 행위는 계 · 정 · 혜 삼학 수행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며 "특히 차를 다루는 다도는 절제와 계행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상대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랑과 연민의 마음(慈悲心)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고 하는 물질은 오온(五蘊)의 색(色)이 지니는 특성처럼 사대(四大)로 이루어진다. 사대는 정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이 라고 볼 수 있는 사마타(samatha)와 위빠사나(vipasanā) 수행에 모두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차 학술 발표회는 하동차의 역사 및 문화 가치를 확인하고 차문화의 계승과 선차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개최됐다. 특히 하동군에서 내년에 개최할 '세계차엑스포'의 가치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칠불사 도응 스님, 윤상기 하동군수, 박성곤 하동군의회의장, 동국대학교불교문화원 정도 스님, 차문화콘텐츠학과 혜명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1부 개회식과 2부 학술발표회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도응 스님은 "하동 야생차는 UN 식량농업기구로부터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인증받았다"며 "하동군은 내년에 세계차엑스포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지역사찰로서 깊이 축하드리며 전국 차인들과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snakdu@hanmail.net

(주)덕양가스, 정토사에 소방차 기증

6월 2일 소방훈련도 진행


울산 정토사는 6월 2일 소화장비 기증식 및 소방훈련을 대웅전 전 앞 마당에서 진행했다.

(주)덕양가스가 울산 정토사의 화재 예방을 위해 최신 소화 장비인 삼륜소방차를 기증했다.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6월 2일 소화장비 기증식 및 소방훈련을 대웅전 전 앞 마당에서 진행했다.

(주)덕양가스는 이날 삼륜소방차(3000만 원 상당)을 기증하고 사찰 화재 예방과 신도들의 안전을 기원했다.

기증식에는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과 이치윤 (주)덕양가스 회장 및 개발업체인 덕양에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증식은 경과보고 및 차량 설명 안내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치윤 회장의 인사말 및 주지 덕진 스님의 감사인사 등이 진행됐다. 이어 작동 시연회 및 소방 훈련도 실시됐다.

이치윤 회장은 "정토사는 선친이 다니시던 절이고 최근에 선친의 49재를 모신 인연이 깊은 사찰이다"며 "목조건물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 선친을 모신 감사함을 담아 화재 예방에 도움드리기 위해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광주서 만나는 뮤지컬 '싯다르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문화전당서 공연

새롭게 각색한 2021년 버전
전 배우와 연출, 안무 교체
호남 불교문화 다변화 기여
뮤지컬 펀딩도 진행해 화제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21 싯다르타' 가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6회에 걸쳐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된다.

불교 뮤지컬 '싯다르타' 가 광주에서 호남 관객들을 처음 만난다. 뮤지컬 전문 제작사 ㈜엠에스엠시와 MC서울이 제작한 '2021 싯다르타' 가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6회에 걸쳐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 불자들에게 선보인다.

2600년 전 인류 최초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하는 '뮤지컬 싯다르타(Musical The Life of Siddhartha)' 는 코로나 확산으로 힘들었던 지난해 여름 군포, 부산, 대구 등 지방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로부터 1년만에 당시 공연이 진행되지 못한 지역에서 다시 막을 올린다.

이번 광주 공연은 5월 22일 의정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성남에 이은 세 번째로 불교 공연이 드문 호남지역에서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1년 싯다르타는 2600년 전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나, 전륜성왕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구도의 길로 깨달음을 얻은 붓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작 각본에서 3차로 이른바 업그레이드됐다.

2019년 초연 무대보다 훨씬 감동적이고 연출과 구성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에는 군포 첫 공연에 이어,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대구 수성아트홀에서 각각 5회씩 열려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드라마틱한 구성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 새로운 무대 기술이 어우러진 오리지널 대극장 뮤지컬 '싯다르타' 는 싯다르타 태자가 부처님이 된 3번의 운명적 그 날을 주제로 펼쳐진다.

뮤지컬의 가장 중요한 장면인 운명의 날들은 '야소다라를 신부로 맞이하던 19세의 그 날', '출가를 결심하던 29세의 그 날', '깨달음을 얻은 35세의 그 날' 이다.

㈜엠에스엠시 김면수 프로듀서는 "시즌3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생동감 있는 무대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각오로 주인공을 비롯한 전 배우와 연출과 안무를 교체했다. 이를 통해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며 "어렵게 탄생한 창작 뮤지컬 '싯다르타' 가 국내 무대에서 성공해 명상과 동양사상, 철학이 뜨고 있는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사랑을 바란다. 더 좋은 무대와 연출, 연기로 관객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불자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뮤지컬 '싯다르타' 는 2021년 서울 정기공연을 위해 1000명의 제작자를 모집하는 펀딩도 진행 중이다. 크라우딩 펀딩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연 펀딩은 관객이 직접 제작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펀드 금액은 제작에 투입되어 캐스팅 등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와 함께 펀딩에 참여한 관객들은 티켓 제공은 물론이며, 리허설 참관, 배우와의 만남, 후원회 밤 초대 등 다양한 부대행사에 리워드 상품 및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온라인서 펼쳐진 첫 이주민 찬불가 경연

아시아 불교국가 출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불가 경연대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사)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5월 29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진행한 '제1회 아시아 이주민 찬불가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광주불교연합회와 대한불교진흥원이 후원한 경연대회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네팔, 중국, 미얀마 등 5개국 21개 팀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상에 베트남 한 수진(다음 생에는 연꽃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상에 방글라데시 바루아 수미(예불의 노래), 우수상에 네팔 소포나(꽃을 보는 눈)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려상은 7개 팀이 수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1회 아시아 이주민 찬불가 경연대회서 대상 등을 수상한 참가자들.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신규포교사 교육

금산사 설법전서 사찰문화 등 연수 시작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은 5월 29일 금산사에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을 시작했다.

포교사단 전북지역단(단장 김용수)이 포교사 고시에 합격자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은 5월 29일 금산사 설법전에서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포교국장 제환 스님, 김용수 단장 등 지역단 임원과 1차 합격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재식을 갖고 사찰문화해설 등 총 40시간의 연수교육일정을 시작했다. 입재식에서 김용수 단장은 "포교의 궁극적 목표는 불교에 기반을 둔 사회건설에 있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로서 이웃을 생각하고 섬기는 진정한 포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원 스님은 법어를 통해 "포교사 합격을 축하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이며 법을 전하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법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내 삶이 지금보다 편안해지고 주변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인 예비포교사들은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6월 중 염불봉사 등 각 팀별 연수를 마치고 7월 중 지역단장, 지도법사 평가와 제적사찰에서의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정식 포교사 품수를 받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마음 쉬는 토요일' 진행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통 산사문화재 활용
판소리 · 인경체험 비롯해
가족 동참 프로그램 인기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 중 '놀부가 들려주는 금산사 보물이야기' 의 한 장면.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가 올해 전통산사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인 '마음 쉬는 토요일' 을 진행했다. 5월 29일과 30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통산사의 문화재에 깃든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그 가치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진행됐다.

'마음 쉬는 토요일' 은 국보 제62호 미륵전, 보물 제26호 방등계단, 보물 제828호 석등, 보물 제827호 대장전 등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금산사 의미를 되새겨 보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또한 전주 젊은 소리꾼 최재구와 최지원이 '놀부가 들려주는 금산사 보물이야기' 를 통해 금산사 역사와 전통에 대해 특유의 해학과 판소리를 엮어 해설했다.

이와 함께 미륵전 탁본 · 인경체험, 전통한지부채만들기, 여찬 스님의 지도로 진행된 오유지족 다도다식체험, 꽃살무늬 한지등만들기, 미륵전 신건축학개론, 미륵전과 방등계단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주는 모악산 사진관 등의 체험 프로그램 등도 진행됐다.

'마음 쉬는 토요일' 에서는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금산사와 관련한 퀴즈를 맞힌 참가자들에는 기념품이 주어졌다. 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는 이미연(대전시 둔산동) 씨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바깥나들이를 못한 지 1년이 넘었다"며 "모처럼만의 외출로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의미있는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산사 관계자는 "불교문화재가 단순히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려운 이웃들에 밑반찬 나눔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정성이 담긴 밑반찬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5월 30일 쌍봉사 만복의 소리 봉사단은 열무 얼갈이배추 겉절이, 고등어무 조림, 꽈리고추 멸치볶음의 밑반찬과 바나나, 방울토마토 등 과일이 담긴 반찬세트를 준비해 어려운 이웃 30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반찬 나눔 봉사활동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세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복지시설 휴관 등으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이번 반찬 나눔 행사가 코로나19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쌍봉사 만복의 소리 봉사단원들이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고 있다.

시한부 말기암 신속 소멸되는 의료기기임상실험 경제적 도움주실 분

허리·무릎·목·엉치·다리
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 의료기기

부항 여러가지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일회 체험하러 오세요.
진짜 거짓말처럼 즉각 효과를 확인해 볼수 있는 발명특허의 세상에 유일한 원리방식의 척추 · 골반 ·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말기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러 오세요. 암을 극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엔 암소멸에 대한 임상실험 반드시 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 세분의 좋은 사례담

사례1 > 식도암과 간암 환자분 홍천에 사시는 65세 남성 5월 12일 삼성병원에서 항암제 주사를 맞으시고 의료기 체험 하러 오셨습니다. 체험해보시고 몸이 편하기는 하나 어떻게 암치료가 되겠는지 못 믿겠다며 의료기 값 중 절반을 주고 다음에 확실히 좋아지면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싸우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항암제 주사를 맞고 그렇게 처음 편하게 잠을 잤고 몸이 천근만근하여 아침에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거뜬하게 일어났다며 믿음이 가신다며 다시 오셔서 의료기를 사 가셨습니다.

사례2 > 남양주시 사는 60세 여성은 2019년 1월 폐암 말기진단을 받고 "선생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폐에 물이 7리터 이상 차서 병원에 입원해서 100일간 물만 빼고 퇴원한 후 우리가 만든 '척추근육강화기 (의료기)를 꾸준히 활용하여 현재 병원 의사의 "매우 안정적이다" 라는 진단을 받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3 > 2019년 10월 50대 여성이 "병원진찰 결과 간에 암이 세개 발견되고 대장암은 너무 커버려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저희가 특허 발명한 위 의료기를 구입, 한달간 사용 후 간암은 완전히 소멸되고 두달쯤 사용하던 중 어느날 항문으로 피고름이 쏟아져서 무서운 마음으로 급하게 병원을 방문하여 상황을 말씀드리니 "검사 결과 암이 죽어서 거의 다 피고름으로 쏟아졌다"며 이제는 수술하는 게 좋겠다 하여 수술 후 완치됐습니다. 처음 저희 의료기를 불신하던 그분의 형제자매 6남매 모두가 의료기를 구입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주 전화하십니다.

의료기 개발자인 저는 "모든 암질환은 대부분 척추변위가 직접 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척추근육강화기(의료기)는 변위된 척추를 원래 척추로 교정해주는 의료기기입니다. 척추가 좋아지면 항암제부작용도 말기암 통증도 해소됩니다.
※ 질병 퇴치연구를 할수 있도록 도움주실 분 찾습니다.

✲ 소자본 지점모집 ✲ NAVER 척추근육강화기 ▼ 검색 **예약 010-6575-7866**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



금일(今日)은 신축년(辛丑年) 하안거(夏安居) 결제일(結制日)입니다. 이렇게 여름과 겨울에 대중(大衆)들이 모여서 안거(安居)를 하는 것은 오직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혜명(慧命)을 잇고 광도중생(廣度衆生)하기 위함이라.

이 대도(大道)의 진리(眞理)는 한 번의 발심(發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해보는 것으로는 불가능함이라.

태산(泰山)을 넘는 기상(氣像)의 신심(信心)과 바다를 건너는 불퇴전(不退轉)의 일일발심(日日發心)이 있어야 함이라.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 번 만번 해야 할 것이라.

금일 결제대중은 이 여름한철동안 모든 반연(攀緣)은 끊고 시비(是非)는 내려놓고 과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옆도 보지 말고 오직 화두타파에 목표를 두고 선지식(善知識)으로 인가(認可)받을 때까지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혼신(渾身)의 힘으로 정진(精進)에 정진(精進)을 거듭해야 함이로다.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조주고불(趙州古佛)이라는 조주(趙州)선사(禪師)께서 행각차(行脚次) 임제사(臨濟寺)를 방문하여 발을 씻고 있는 차에, 종문(宗門)의 위대한 선지식(善知識)인 임제(臨濟)선사께서 다가와 물으시기를, "어떤 것이 조사(祖師)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하시니, 조주 선사께서 "마침 노승(老僧)이 발을 씻는 중이니라."하고 대답하셨다.

이에 임제 선사께서 가만히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시늉을 하니, 조주 선사께서 "알면 바로 알 것이지, 되씹어 무엇 하려는고?" 하심에 임제 선사께서 팔을 흔들며 가버리시니, 조주 선사께서 "30년간 행각(行脚)하다가 금일(今日)에야 처음으로 주각(注脚)을 잘못 내렸다."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석일(昔日)에 임제(臨濟)선사께서 발우(鉢盂)를 들고 탁발(托鉢)을 하시는데, 어느 집 앞에 가서 대문을 똑똑 두드리니, 한 노파가 문을 열고 나와 임제 선사를 보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다. "이 염치없는 스님이로구나!"

그러자 임제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푼의 시주도 하지 않고서 어째서 염치없는 스님이라 하는고?" 하니, 노파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문을 왈칵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여기에서 임제 선사께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절로 돌아가셨다.

대중(大衆)은 알겠는가?

만약 임제 선사께서 노파(老婆)가 문을 닫을 적에 한 마디 이르셨다면 문전박대(門前薄待)를 면했을 것이다.

그러면 임제 선사는 번갯불보다도 빠르고 돌불보다도 빠른 기봉(機鋒)을 갖춘 위대한 도인(道人)이신데, 노파가 대문(大門)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것에는 왜 한 마디도 못 하고 걸음을 돌리셨느냐?

이 '임제탁발화(臨濟鉢盂話)' 법문은 '덕산탁발화(德山鉢盂話)' 법문과 더불어 가장 고준(高峻)한 공안(公案)입니다.

다른 공안(公案)에 대해서는 역대(歷代) 선지식(善知識)들의 송(頌)과 평창(評唱)이 있었지만 이 공안에 대해서는 천 이백년 동안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입을 댄 이가 없었다.

산승(山僧)의 스승이신 향곡(香谷)선사께서 당시에 제방(諸方)의 조실(祖室)스님들을 찾아다니며 이 '임제탁발화' 법문을 가지고 물었지만 흡족한 답을 내놓으신 분이 없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해운정사로 오셨을 때 산승이 도량(道場)을 포행(布行)하고 있었다. 도량에 들어서자마자, 선 채로 대뜸 '임제탁발화' 법문을 물으셨다.

"네가 만약 임제선사가 되었던들 무엇이라 한마디 할려는고?" 하시기에, 산승이 즉시 "삼십년래농마기(三十年來弄馬騎)러니 금일각피려자박(今日却被驢子搏)입니다.(삼십년간 말을 타고 희롱해왔더니 금일 당나귀에게 크게 받힘을 입었습니다.)"라고 답을 하자, 향곡선사께서 크게 웃으시면서 산승의 손을 잡고 "과연 나의 제자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때가 향곡선사 열반(涅槃) 나흘 전의 일이다. 향곡선사께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멋진 삶을 사시다가 가신 것이다.

시회대중(時會大衆)은 조주 선사를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지닌 본성을 아는가

태고종 종정 지허 대종사



오늘 여기 모신 대중은 물론 일체 중생이 모두 다함없는 무진억겁에 영구불변한 대적광명지(大寂光明智)를 갖추었는데 스스로 지닌 이 본성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 몸이 바로 대적광명지의 깃발이요, 이 마음이 신통을 담은 궁궐인 즉, 작은 촛불 하나에 팔만 사천 지옥을 태우고 용의 입속에 여의주 빼내어 가지고 놀 줄을 왜 모르는가.

본분납자(本分衲子)에게 결제나 해제가 분별이 있을 리 없지만 하안거 결제라 하니 회상(回上)에 있거나 선원에 있거나 어디서든 자기 분상에서 본분화두가 순일(純一)한지 스스로 점검하고 정진일로를 갈 뿐이다.

태고 조사께서는 13세에 일찍 출가하시어 강원을 나와 선원에서 참구하였으나 때때로 경전을 탐색하였고 심오한 데에 이르러서 이 또한 토끼 잡는 그물이고 고기 잡는 통발이라 판단하고 대장부의 목표는 아니라 하였다. 그리고 대장부로서 큰 원을 세우고 관음기도를 한 후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의 화두에 전념하였다. 스스로에게 조금이라도 게으른 마음이 생기고 기질이 약하여 큰 일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정진고행하다 죽은 후 몸을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용맹정진 후 4년 만에 확철대오하여 8구의 오도송을 다음과 같이 읊으셨다.

一亦不得處 일역부득처
踏破家中石 답파가중석
回看沒破跡 회간몰파적
看者亦己寂 간자역기적
나무아미타불

了了圓陀陀 요요원타타
玄玄光爍爍 현현광삭삭
佛祖與山河 불조여산하
無口悉呑卻 무구실탄각
나무아미타불

하나도 얻을 곳 아닌데
집안 돌 밟아 깨버렸네
돌아보니 깨진 자욱마저 없고
돌아본 것까지 더욱 고요하구나
모두 허물어져서 두루 명백하고
깊고 깊은 이치 그 빛이 찬란하니
부처와 조사와 더불어 산과 강을
입없이 모두 삼켜버렸네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



獼猴探水月하야
到死不休歇이라
放手投深池하면
十方光皎潔이로다

원숭이는 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죽을 때까지 쉬지 않는다.
손을 놓고 깊은 연못에 몸을 던지면
밝은 광명 시방에 가득하리라.

금일 결제 대중이여!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고 조사의 공안을 참구하되 내일을 기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자에게는 다만 오늘이 있을 뿐 내일은 없으니, 내일을 기다리는 수행자는 미륵이 성불한다 해도 대사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 조사는 천하인을 제도한다, 살린다 하지 않고 죽인다고 했는데 이는 大死 이후라야 大生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육조 스님은 남악회양 스님에게 "네 밑에 말 새끼 한 마리가 나와서 천하인을 밟아 죽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 새끼가 바로 마조도일입니다.

천하인을 밟아 죽일 수 있는 힘을 얻는 처방이 바로 화두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두도 헤아리면 死句가 되고, 별 것 아닌 화두도 헤아리지 않고 지극한 신심으로 바른 의심을 간절하게 가지면 活句가 되어서 모두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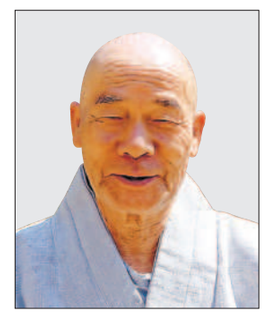
一切處 一切時에 잠시도 화두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은산철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대신심 · 대의심 · 대분심을 가지고 정진하면 본분사를 그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無邊風月眼中眼이요
不盡乾坤燈外燈이라
柳暗花明千萬戶에
鼓門處處有人應이라

가없는 청풍명월은 안목 중의 안목이요
다함없는 하늘 땅은 등불 밖의 등불이로다
버들 우거지고 꽃 화사한 천만 한양에
뉘 집 문을 두드린들 대답하지 않으리.

일념바탕에 행복이 샘솟는구나

덕숭총림 방장 달하 스님



"일도양단 다 놓고 제자리에 돌아와 결제 입방을 하니 통쾌하도다! 거친 숨길을 곱게 조복 받아야지, 대중을 부처님같이 제대로 시봉해야지, 꿈에도 공부가 一色이 되게해야지. 무슨 복으로 이 결제에 주인공이 되었을까? 시방세계가 녹아져 경계가 맑게 비었도다. 곱고 미운 것이 맑은 거울을 속일 수 없고 누르고 푸른 것이 밝은 구슬을 더럽힐 수 없네. 화장찰해도 밝은 달을 가두지 못하고 밤사이 흐르는 그림자 산호 가지에 걸렸도다." -만공스님

고목 끝 가지에 밝은 달이여 고요한 도량에 대종소리가 지축을 흔든다. 보고 듣는 이 물건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아 ! 만고의 중심 이 물건이여, 이 뭘까? 하늘 땅 폭발하기 전, 이 불가사의 생명바다, 이 뭘까? 無도 아니요, 空도 아니요, 제로도 아니요, 0도 아니요 시작점, 출발점 이 자체, 이 뭘까?

돌이키니 백천 숨길이 터진다. 소리 앞에 모양 앞에 구원겁 전에 이미 무르익어 있었나?

個個가 서로서로 완성이다. 여유만만이요 백억달마로다. 卽下에 돌이켜라! 이- 하는 이 놈을 돌이켜라! 보고 듣는 이 물건을 반조하라!

이 지심에 폭 빠져라. 지심귀명례를 백천만번 반복하는 조석예불을 놓치지 마라. 지심에서 열린 산하대지가 불국토요, 지심에서 열린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가 부처님이요, 달마로다.

삼계대사 사생자부를 어디 딴 곳에서 찾을 것인가? 대종소리 목탁소리 아닌 것이 어딨나? 요동치는 세상소음이 대종소리요, 조도의 벗이요, 구경열반이로다.

外息諸緣 內心無喘. 딴 짓하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애 쓰다보면 푹 빠진다. 다 놓아지고 다 잊어지고 몰란결에 고요해지고 성성해진다. 고요가 성성해지고 성성이 고요해지고 성적등지로 한 몸이 되면 잠을 자도 공부요 가닥이 잡혀 쉬어진다. 백천삼매 묘한 뜻이 일념바탕을 여의지 않았으니 이런 행복이 어디있나. 어느 사이 얼굴이 쉬어져 보이고 편안해 보인다. 사문이 쉬어보이면 세상이 진정되고 역병이 소멸된다.

폭포는 절벽에 날고 찬 안개 나무 숲에 일고 있네. 철썩같이 굳은 결심 꽃잎같이 고운 얼굴 저 고운 얼굴에 철썩같이 굳은 결심이 숨어있네. 이-뭘까?

달마가 벽을 향해 돌아앉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선종의 초조인 달마대사는 소림굴에서 2조 혜가대사에게 법을 전합니다.

소실봉은 숭산의 서쪽봉우리를 말합니다. 하남성 등봉현(登封縣)에 있는 숭산(崇山)은 중국의 오악(五嶽) 가운데 중앙(中央)으로 불리는 성산(聖山) 중에 성산입니다. 이 산에 달마대사가 머물렀던 인연으로 그의 선풍을 소실가풍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이 높아 명산이 아니라 인물이 있기 때문에 명산입니다.

이락伊落에 있던 慧可가 도를 깨닫기 위해 소림굴 밖에 이르렀습니다.

혜가는 불교. 유교. 도교의 깊은 이치에 밝았습니다. 달마는 면벽단좌하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혜가는 "옛사람은 도를 구하기 위하여 뼈를 부수고 골수를 내며 피를 뽑아 굶주림에 먹이고 머리를 풀어 진흙을 덮었으며 절벽에서 몸을 던져 호랑이에게 먹였는데 나는 또한 무엇 하는 거냐!" 하고 마침내 눈이 펑펑 내리는 12월9일 밤 무릎을 넘는 눈 속에 합장하고 서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 해가 높이 떴을 때 달마와 이야기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혜가가 "제불의 법인法印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자

달마는 "제불의 法印은 남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 당시 혜가는 알 수 있는 것은 다 알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웠으나 그러나 마음속에 불안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화상이시여 저의 마음이 아직 편안치 않습니다. 마음을 편안케 하여 주십시오."

"좋다. 그러하마. 너의 불안한 마음을 가져 오너라."

"마음을 찾아도 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不可得입니다."

"내 너의 마음을 편안케 해 마쳤다." 하는 데서 깨달았습니다.

혜가는 법을 위해서 그 추운 엄동설한에 불석신명不惜身命 했습니다.

신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안거 구순 안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제라는 것은 그저 안거 석 달을 선방에서 적당히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애써 정진해서 이번 철에 이 공부를 마쳐야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만나서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역 경계를 만났을 때 정진하기가 더 좋습니다. 결계지역을 벗어나지 말고, 말을 하는 것을 삼가고, 열심히 정진해서 공안을 타파합시다.

성성적적하게 선정 · 지혜 닦자

조계총림 방장 현봉 스님



화두(話頭)가 성성(惺惺)하면
망상(妄想)은 저절로 적적(寂寂)하리니

오늘은 여름안거가 시작되는 결제일입니다. 출가 사문들이 세간을 벗어나 출세간의 도를 구하는 이 일은 참으로 기특한 일입니다. 어떤 선객이 백장 회해(百丈 懷海: 749~814)선사를 찾아가서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如何是奇特事]?" 하고 물으니, 선사는 "홀로 우뚝 앉아있는 대웅봉이다.[獨坐大雄峰]" 하였다. 그러자 선객이 절을 하니, 선사가 때렸다.

회해선사가 머물던 산 이름이 백장산(百丈山)이며 그 주봉(主峰)이 대웅봉(大雄峰)이다. 투자 의청(投子 義淸, 1032~1088)선사가 이 독좌대웅봉(獨坐大雄峰) 이야기에 대해 절창(絶唱)을 남겼다.

巍巍峭逈出雲宵 (외외초형출운소)
頂鎖氷寒勢外遙 (정쇄빙한세외요)
坐觀四望煙籠處 (좌관사망연롱처)
一帶靑山萬水朝 (일대청산만수조)

저 멀리 구름 밖에 우뚝 높이 솟아있는
찬 눈 덮인 정수리는 하늘까지 뻗었는데
사방을 둘러보니 안개 연기 서린 곳에
푸른 산은 만 개울의 근원을 품고 있네.

기특한 독좌대웅봉(獨坐大雄峰)이란 백장산의 대웅봉 산꼭대기에 혼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의 대웅(大雄)처럼 홀로 우뚝 앉아 있는 대웅봉이라야 기특한 것입니다.

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름안거를 하는 우리 조계총림 대중들은 이 조계산 속에서 조용히 혼자 앉아 지내는 것이 기특한 것이 아닙니다. 백장산의 주봉인 대웅봉처럼 이 조계산에 임금제(帝) 자처럼 기상 높게 홀로 우뚝 솟아있는 조계봉(曹溪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홀로 앉은 비대면(非對面)의 기특한 안거가 될 것입니다.

獨坐曹溪峰 홀로 우뚝 앉아있는 조계봉이여!
白雲閒去來 흰 구름이 한가롭게 오고가는데
山鳥朝夕鳴 산새들은 아침저녁 지저귀면서
百花四季開 계절 따라 온갖 꽃이 피어나구나.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1300년 전 日나라시대 대형 탑터 발견

코키(行基)대사 묘탑 추정
전례 없는 규모로 화제

나가오카인 북쪽으로 추정
중앙 15개 기둥과 원형유적
인근 코키대사 입적지 있어



나라시대의 고승 코키 대사의 묘탑지로 추정되는 탑터.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나라(奈良)시의 중심에서 거대한 불교 유적지가 발굴됐다. 노사나대불로 유명한 토다이지(東大寺)에서 정동방향으로 6Km가량 떨어진 주택지에서 발견된 유적은 회랑과 담으로 둘러쌓인 원형의 거대한 목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월 20일 일본 '산케이 신문' '이자뉴스' 등 언론들은 전례없는 발견을 일제 보도했다.

나라시 서쪽 스가와라(菅原) 유적 인근서 발견된 이번 유적은, 나라시대 고승 교키(行基) 대사와 그 제자들이 건립한 것으로 알려진 사찰 49개소 중 '나가오카인(長岡院)' 북쪽으로 추정된다.

유적 발굴을 담당한 나라 간고지문화재연구소는 "유적은 남북으로 34.6m, 동서 36.4m의 정방형으로 회랑과 담이 전각들을 둘러싼 형태"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연구소는 "유적 북측에 불당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있다. 중앙에는 15개 기둥이 둥글게 배치됐다. 유구는 직경 14.5m 규모로 불탑 유적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발굴조사를 담당한 사토 아세이 사가현립대 고고학교수는 "원형유적이 나라시대 최초로 세워진 형태"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라시대 유적 중 회랑 가운데 원형건물이 있는 유적은 호류지(法隆寺) 유메도노(夢殿)뿐이다. 유메도노는 팔각형 건물이지만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완전한 원형유적이다.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과 기와는 8세기 중반 것으로 판명됐다. 조사팀은 "불교시설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인물은 교키 대사 뿐"이라고 전했다.

유적검토에 나선 타테노 카즈미 나라여대 교수도 "원형 유구는 사상 최초로 매우 귀한 사례"라며 "이정도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교키 대사의 묘탑(廟塔)으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키 대사(668~749)는 백제도래인 후손으로 전염병 유행과 빈곤에 시달리던 나라시대에, 제자들과 함께 포교활동 일환으로 사찰과 다리, 저수지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해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

교키 대사는 토다이지 대불 조성 당시 쇼무(聖武)천황에게 화주 소임으로 발탁돼 전국을 돌며 교화행과 함께 조성기금을 보시 받았다. 그러나 세납 80세의 나이에 대불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입적했다.

교키 대사 입적 후 각지에서 대사를 기리는 전각과 불탑이 건립됐다. 입적지가 이번 발굴지와 가까운 스가하라지(菅原寺)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입적 직후 세워진 묘탑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발굴에 대해 사가와 신이치 오사카대학 교수는 "해당지가 토다이지와 당시 도성인 헤이죠쿄(平城京) 불과 6km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로 묘탑이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상 최초로 발견된 나라시태 원형 유구에 대해선 현재 다보탑 형태의 목탑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고대 인도의 복발형 스투파의 형태를 본 따 나무 울타리를 두르고 흙무덤의 형태로 조성한 토탑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사찰 법당서 캡슐 뽑기 인기

日시코쿠 안라쿠지
장난감 캡슐판매기 설치

12신장 마스크 · 곡옥 등
사찰 기념상품도 판매해



안라쿠지 본당에 설치된 캡슐장난감 판매기. 사진출처=토쿠시마 신문

1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일본의 시코쿠 88개소 순례에 새로운 재미가 생겼다. 시코쿠 순례 6번 사찰인 안라쿠지(安楽寺)의 본당에 작은 장난감 판매기가 설치, 불교를 모티브로 한 소형 상품과 기념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22일 일본의 '토쿠시마 신문'은 안라쿠지의 새로운 시도를 소개했다.

안라쿠지는 1200년 전 시코쿠 순례길을 개창한 코보대사(弘法大師)가 솟아나는 온천을 보고 약사여래를 봉안하여 개산한 도량이다.

지역에서는 '온천 약사'로 친근하게 불리고 있다. 이러한 안라쿠지의 본당 안에 최근 6대의 캡슐 장난감 판매기(통칭 캡슐뽑기)가 설치됐다. 엄숙한 정적이 흐르는 본당 안에 달그락 거리며 상품이 나오는 모습이 순례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1회에 100엔에서 500엔 동전을 이용해 판매기에서 뽑을 수 있는 캡슐 안에 담겨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6종이다.

본존인 약사여래를 호위한다고 알려진 12신장이 프린트된 마스크, 아크릴제의 피규어, 경내의 온천수로 가피한 목제 곡옥(曲玉), 순례자 캐릭터 인형 등으로 모든 상품은 안라쿠지에서만 취급하는 한정품이다.

캡슐 장난감 판매를 생각해 낸 것은 부주지인 하타케다 유부 스님이다. 유부 스님은 "캡슐 장난감 판매기는 일본에선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판매기다. 적은 돈으로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고, 또 이것을 모으는 마니아들도 있는 등 사찰에서 불교문화를 적용해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왔다"고 전했다.

스님은 4년 전 SNS인 인스타그램에 안라쿠지 공식 계정을 만들면서 본당에 판매기를 설치할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사찰에서 판매되면 재미있을 장난감'이라는 주제로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먼저 그 첫 번째 시도로 지역의 목공 장인들이 만드는 목제 곡옥과 12신장을 응용한 상품이었다. 12신장 마스크는 사찰을 참배한 한 순례자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유부 스님은 판매기의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주기적으로 상품을 추가하고 교체할 계획이다. 현재도 SNS를 통해 판매홍보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고 있으며, 사찰을 찾는 순례자들에게도 제안을 받고 있다.

안라쿠지의 캡슐 장난감이 입소문을 타면서, 안라쿠지를 찾는 참배객들도 늘고 있다. 한 참배객은 "불교를 모티브로 한 캡슐 장난감을 수집하고 있기에 일부러 안라쿠지를 찾았다"고 말했다. SNS상에서도 더 많은 상품을 추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유부 스님은 "모든 분들이 사찰을 좀 더 가깝게 느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얀마 무장단체, 국민통합정부와 동맹

독재정권에 저항, 민간인 보호 등 협력 약속



사진출처=AFP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EAO) 친민족전선(CNF)이 반(反)군부진영 임시정부 '국민통합정부(NUG)'와 동맹을 맺었다고 6월 1일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EAO 중 NUG와 동맹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와라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CNF는 5월 29일 NUG와 협정을 맺고 독재정권에 저항키로 결의했다. 두 단체는 연방 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평등과 상호존중, 상호인정을 토대로 협력하는 한편,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두와 라시 라 부통령, 만 윈 카잉 딴 총리 등 NUG 인사들과 푸 징 쿵 의장 등 CNF 관계자들 사이에 체결됐다.

CNF는 2015년 10월 미얀마 최초 민선정부인 떼인 세인(Thein Sein) 정부와 전국휴전협정(NCA)을 맺은 8개 EAO 중 하나다. NUG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CNF 부의장을 임시정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현재 NCA를 체결한 다른 EAO들은 NUG와 군사정부간 대화를 위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당 매체가 보도했다.

한편 NUG는 지난해 라카인 주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학살 행위를 막으라고 명령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고 NUG대변인은 31일 밝혔다.

NUG대변인은 "NUG는 세계 최고 법원인 국제 사법 재판소와 협력함으로써 미얀마의 국제적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우리는 미얀마의 모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법원 및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베트남계 불자배우, 포브스 5인 선정

샹탈투이, '5월 아시아계 미국 및 태평양 섬 주민' 선정



5월 31일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에 따르면, 캐나다 태생의 여배우 샹탈투이〈사진〉가 '이달의 아시아계 미국 및 태평양 섬 주민' (the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AAPI)에 선정됐다. 미국에서 5월은 이른바 '아시아계 태평양 및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로, AAPI 들의 삶과 업적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샹탈투이는 미국 전쟁 중 그녀의 부모가 베트남을 떠난 이후 몬트리올에서 성장해 왔다. 방송가에서 벌써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그녀는 12개 이상의 영화와 TV쇼에 출연했다. 최근 이례적으로 유색인종들 출연진으로 구성된 슈퍼히어로 TV 시리즈 '블랙 라이트닝'에서 그레이스 최 역을 맡으면서 유명해졌다.

그는 이번에 포브스 선정 '이달의 아시아계 미국 및 태평양 섬 주민'에 영화감동 레인 발데즈(Rain Valdez), 영화배우 마가릿 조(Margaret Cho), 사회운동가 어매진 로티(Amazin LêThi), 필리핀계 미국인 지나 로세로(Geena Rocero), 미 상원의원 세나토 타미 덕월스(Senator Tammy Duckworth)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가 캐나다의 다종교 가정에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성인이되자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녀의 불교 스승은 토론토에 있는 잼츠조 링 다르마 센터의 설립자이자 주지인 툴쿠 네탄 린포체(Tulku Neten Rinpoche)다.

투이는 부디스트도어와의 인터뷰에서 "불자인 아버지,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와 함께 불교에 대해 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라며 "나는 절과 성당을 번갈아 가는 가정에서 자랐다. 나는 두 종교에 모두 친숙하고 교리와 가치를 잘 알고있다"고 웃어 보였다.

이어 그는 "아버지와 나는 가끔 불교 서적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아버지는 (나와 마찬가지로) 몇 년 전 린포체의 제자가 됐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불교에 대해 멋진 토론을 나누며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출가자와 종도를 모집합니다.
수행의 문턱에서 서로 위로하고 탁마를 함께 하실 도반의 인연이 없고,
어느 종단에 이 한 몸을 의지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
또는 발심출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
출가는 했는데 은사와의 인연이 박복 하신 분!
도첩이나 호계첩이 없는 분!
여법한 각종의식 진행방법을 모르는 분! 등
승려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저희 종단에서는
가족같이 교육하고 지도하여 정법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총무원장 성곡 지운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 총본산 및 총무원 : 무등산 미륵사
· 부설기관 :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산길7번길 5-11
· 전 화 : 062)234-9834 팩스 062)223-9233
· 손 전 화 : 010-5479-5607 / 010-8623-3010

출가행자 및 종도모집 안내

기 간 : 상시
자 격 : 신체 건강한 남 · 여 내국인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몸짓 언어로 전하는 부처님 말씀

제7회 불교무용대전
'불교, 한국문화의 미래'

7월 3일까지 성균소극장 마로니에공원
김민주 · 윤명화무용단 등 14개 팀 경연
6월9일 2회째 불교무용 주제 컨퍼런스


전희자의 '승무'.


백재화, 성예진의 '작법의 향연'.


리틀예인무용단의 '윤회'.



리틀예인무용단의 '천수관음'.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전통과 창작의 다양한 불교무용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새롭게 전하는 무용축제가 열린다.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는 6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제7회 불교무용대전을 개최한다. '불교, 한국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불교무용대전은 1월에 발표한 공모를 통해 선발된 20여 개 팀 중 14개 팀이 불교문화를 소재로 한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한국창작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춤으로 3주간 열띤 경연을 벌인다.

6월 2일 기념 쇼케이스 및 기자간담회(성균소극장)를 시작으로, 6월 9일(오후 2~4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좋은공연안내센터)에서 기념컨퍼런스 '불교예술 진흥을 위한 춤의 역할과 가치'가 열린다. 올해로 두 번째인 컨퍼런스에서는 춤을 통한 전법의 가치에 대해 모색한다. 불교춤 예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해리(춤이론)의 기조발제와 서정록(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예림(무용평론가), 심정민(불교무용이론) 등이 참가한다.

구슬주머니 이철진 대표는 "불교무용이 앞으로 불교문화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고 컨퍼런스의 취지를 밝혔다.

6월 11일부터 27일(매주 금-오후 7시 30분 토 · 일오후 4시)까지 성균소극장에서 본선 무대가 열린다. 여기서 선발된 7개 팀이 결선 무대를 펼친다.

△1주차(6월 11~13일)에는 2020년 대상 수상작 고양행주누리 무용단의 무 · 무(無 · 舞) 기념공연과 김민주의 '비로소', 修예술단의 '바라밀다', 임현진의 'jaja', 전희자의 '한양교방승무(송화영류)'가 경연을 펼친다.

△2주차(6월 18~20일)에는 윤명화무용단의 'meditation'을 시작으로 권영심 · 정은경의 '헌다(獻茶)-보리행을 춤추다', 창무용단(현숙희)의 '무애행무(無礙行舞)', 디아즈 댄스컴퍼니의 '회향', (사)한국민족춤협회 경기 · 인천지회의 '부처의 소리 사자후'가 경연을 펼친다.

△3주차(6월 25~27일)에는 리틀예인무용단의 '천수관음 · 윤회'를 시작으로 하담이주연무용단의 '貪(탐낼 탐)', 김정민의 '진바라춤', UND무용단의 '무상 · 무아(無常 · 無我)', 백재화 · 성예진의 '작법의 향연'이 경연을 펼친다.

결선과 시상식은 7월 3일 오후 3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시상식은 대학로에 위치한 30여 명 수용 규모의 작은 장소에서 자유롭고 흥겨운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슬주머니가 2015년부터 개최해온 불교무용대전은 불교무용예술 활성과 발전을 위해 시작됐다. '불교무용'이라는 개념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던 당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작된 불교무용대전은 올해로 7회 째를 맞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무용페스티벌, 나아가 한국의 무용활성화를 위한 무용페스티벌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이번 7회 불교무용대전은 불교무용의 보존과 창조를 통한 전법의 활성화와 한국문화의 미래, 불교의 저변확대를 위한 무대이다.

7회째 불교무용대전을 개최하고 있는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는 불교무용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창작 작품과 전통 작품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불교무용대전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이전에 국제사업으로 진행된 바 있다. 구슬주머니 이철진 대표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교문화를 공연예술의 중심인 대학로에서 자유롭게 감상하며 코로나 이후 불교에 뿌리를 둔 동아시아 이웃국가 등과 연대하여 국제 공연예술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년 불교무용대전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02)747-5035.


(좌)금동약사여래입상, (우)금동관음보살입상

먼 시대 건너와 위로하는 약사여래

'가슴에 품은 작은 부처님' 展
합천박물관 7월25일까지 기획

합천박물관은 7월 2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가슴에 품은 작은 부처님' 전을 개최한다. 합천박물관이 국립진주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전시에서는 합천에서 수습되었거나 발굴된 금동불상 8점(국립진주박물관 소장)을 선보인다.

전시되는 금동불상은 주로 20cm 내외의 소형으로, 개인의 예불용이나 불탑의 사리장엄용으로 사용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금동여래입상 5점을 비롯해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늘려주며 재난을 없애준다는 금동약사여래입상 2점,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여 안락함과 기쁨을 준다는 금동관세음보살상 1점이 전시된다.

합천 대양면 백암리사지에서 출토된 금동여래입상은 비스듬히 서있는 신체의 굴곡과 살이 오른 몸매의 비례가 양호하며 양감도 매우 우수하여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합천 대병면 무학대사 유허지에서 출토된 금동여래입상은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하지만 신체는 균형 잡힌 모습이고 양감도 풍부하여 통일신라시대 불상으로 추정된다.

합천 가회면 둔내리에서 수습된 금동여래입상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불상은 양감이 없는 평판의 신체에 도식화된 육계와 수인, 추상적인 형태에 가까운 법의의 옷주름, 짧은 인중과 단순화된 이목구비 등에서 고려시대 불상양식이 잘 표현되어 있다.

합천 가회면 영암사지에서 출토된 금동여래입상은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신체 비례가 원만한 편이며 양감도 풍부하다.

합천 가야면 구원리에서 수습된 금동여래입상은 전체적으로 신체의 비례가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양감이 풍부하다.

합천 가회면 둔내리에서 수습된 금동약사여래입상은 윗부분이 약간 떨어져나간 왼손에 약항아리를 들고 있어 약사여래임을 알 수 있다.

합천 청덕면 두곡리에서 수습된 금동약사여래입상은 옷주름 표현에서 삼국시대 이후의 고식 불상의 흔적이 나타나지만 살이 오른 얼굴이나 머리가 신체에 비해 큰 편으로 신체 비례가 원만하지 않은 점과 삼도가 표현되어 있는 점 등에서 통일신라시대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합천 가야면 구원리에서 수습된 금동관음보살입상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의 끝부분이 깨어져 있어 확실하지 않지만 보주를 쥐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전시에 전시된 불상들은 모두 작은 불상이지만 그 쓰임으로 볼 때, 힘든 중생과 가깝게 있었고 힘든 대중의 간절한 염원이 담겼던 큰 의미의 불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먼 시대를 건너온 불상들이 힘겨운 대중들에게 또 한 번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는 시간이다. (055)930-4883.

박재완 기자

제3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공모

접수 : 2021. 6. 21 ~ 7. 16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과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개인과 불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제3기(2021년) 불교 장학금 및 활동비 지원 공모를 실시합니다.

◑ 지원 자격(불자인 개인 또는 단체)
① 개인 : 대학생, 대학원생
② 단체 : 초 · 중 · 고등학생 불교 동아리, 대학생 · 대학원생 불교 동아리

◑ 장학금 및 활동비 지원 금액(세금 포함)
① 개인 : 대학생 · 대학원생_300만원
② 단체 : 초등학생 불교 동아리_50만원, 중 · 고등학생 불교 동아리_100만원, 대학생 · 대학원생 불교 동아리_100만원
[선정된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교사)에게 50만원 별도 지원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추천인 서명 필요함)
* 개인 : 대학생 · 대학원생은 학과장 또는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의 추천인 서명 받을 것.
* 단체 : 초 · 중 · 고는 불교 동아리 지도교사, 대학 · 대학원은 학과장 또는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의 추천인 서명 받을 것.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향후 활동 계획서 1부(A4 1~2쪽 이내)
* 활동 계획서 내용 :
불자인 경우(불교 동아리 결성 및 활동 참여, 회원 증가 등),
무교인 경우(불교활동 참여 및 불교 동아리 가입 등)
-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접수
- 기간 : 2021년 6월 21일(월) ~ 7월 16일(금)까지
- 방법 : 이메일(kbpf2606@daum.net)
- 문의 전화 : 02-719-2606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1년 8월 말(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6/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현실은 영원이다 : 지광스님의 삶과 죽음에 관한 법문	지광스님	위로
2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3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4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 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5	프리스틴 마인드 : 궁극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최첨 명상 안내서	올갠 초왕 린포체	운주사
6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 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7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8	운허 큰스님의 한산시와 남은 돌 모둠	운허스님	맑은소리맑은나라
9	공과 윤리 : 반야 중관에 대한 오해와 이해	김성철	오타쿠
10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책세상

"세상 긍정적 보는 대전환 비결…매사에 감사"



오직 감사할 뿐
정현 스님 지음
민족사 펴냄
1만 3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수행서 건져 올린 행복 여는 열쇠들 소개
"삶의희망 없을 때 좋은 법문 듣는 것만도 치유"
일상서 소소한 행복누리며 사는 비결도 제시해
틈틈이 쓴 글과 강의 중 긍정 메시지 핵심 뽑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나니라" 이는 청마 유치환의 〈행복〉이라는 첫 구절이다.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정작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 더군다나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우울하고 불행한 일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현 스님〈오른쪽사진〉의 신간 〈오직 감사할 뿐-정현 스님의 행복 언어〉은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춘천BBS불교방송 사장,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을 역임한 정현 스님은 현재 지장도량으로 유명한 철원 심원사 주지로서 오랫동안 지장보살의 본원을 자신의 수행 목표로 삼고 보살행을 실천해 왔다.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이웃에게 쌀과 연탄을 나눠주고, 장학금을 주는 이타행을 펼친 스님은 법문과 BTN불교TV, 개인 유튜브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전해 준다. 강의를 접한 사람들의 호응도 높다. 대부분 행복한 인생을 되찾았다는 반응들이다. 그 덕분에 정현 스님과 철원 심원사는 기적과도 같은 큰 가피를 입은 생지장도량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어떤 법문들이 실의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 병들지 않는 사람, 힘든 시간을 지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가 겪어야 할 아픔과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그저 뺨에 스치는 바람결처럼 지나갈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하세요. 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은 데 대해 감사하며 그동안 있었던 고마운 일을 하나씩 헤아려 보세요. 어느새 고마운 일들로 가득찬 행복한 인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스님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감사야말로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조언한다. 또 스님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오늘날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나와 남이 모두 다 부처라는 비밀을 알면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부처라는 비밀을 잠시 잊어서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중생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역설한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께서 알아내신 '일체 중생 모두가 부처'라는 비밀이 더 이상 수행자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이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佛性)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뼈저리게 체득해 행복한 인생으로 가꿔갈 것을 당부한다.

정현 스님은 머리말에서 "우리의 겉모습은 다르지만 내면은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본래 부처였다고 해도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려 애쓰고,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행을 하지 않으면 부처에서 멀어집니다. 반면에 인과의 순리를 이해하고 인연법을 깨우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해 나간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 나라인 불국토를 이루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온갖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오늘날 스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불성 존재임을 깨닫고, 생명 존중 사상의 확산과 아울러 인과법과 인연법을 깨우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마음의 작용과 좋은 행동이 큰 운명의 틀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순간순간 오직 감사하며 정진하시길,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본래 깃들어 있는 아름다운 생명, 불성 존재로서의 찬란한 삶이 매순간 꽃피울 수 있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정현 스님은 마지막으로 "인간은 생활 속에서 대화하거나 생각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관념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쓸때없는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들여다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대부분이죠. 이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림자인 관념서 비롯된 겁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없는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이렇듯 고통스럽고 삶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을 때 좋은 책을 읽거나 법문을 듣는 데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것은 염불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를 반복적으로 실천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제 8식 아뢰야식에 저장돼 내가 한 행위의 나쁜 말도 생각도 그치게 된다. 내 안에 들어 있는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체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가는 과정, 즉 자기 본질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을 불교의 핵심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현 스님은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가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그러려면 작은 은혜나 감동을 받더라도 크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또한 이것을 자꾸 연습하다보면 세상을 보는 긍정의 세계가 보이게 되며, 이렇게 긍정 세계로 대변환시키는 비결은 오직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곧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불교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책은 정현 스님이 그동안 틈틈이 쓴 글들과 강의한 내용중 긍정적인 메시지 가운데 핵심만 가려 뽑아 1장 행복열쇠, 2장 행복 언어로 엮어 놓았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고달픈 삶의 위로를 받고, 항상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 **정현 스님**은?

영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일타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심원사 · 덕사 · 건봉사 주지, 서울중부경찰서 · 고성경찰서 경승실장, 춘천불교방송 사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철원 심원사 주지로 불교 발전에 진력하는 한편 기도 수행, 경전 강의와 생활 법문으로 포교에 힘쓰고 있다. 편저서로 〈지장경을 읽는 즐거움〉 〈실상불교성전〉 〈수행법요집〉 〈불설아미타경〉 〈오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등 다수가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사랑도 너무 강하면 상처를 줄 수 있고, 자비도 너무 강하면 불편함을 줄 수 있는데 슬픔과 노여움으로 인한 상처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소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렇듯 힘든 시련이 닥쳤을 때 인연법을 생각하고 괴로움에 빠지지 말고 그저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함입니다. 〈p.79〉"

"나라는 존재가 실체가 없으므로 슬픔과 아픔, 온갖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것, 그렇게 바라본다면 바로 그 자리에 기쁨과 행운이 채워질 것입니다. 〈p.81〉"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인연소생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도 인연일 뿐임을 안다면 집착 없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몸도 정신도 감정도 기분도 느낌도 무상한 것입니다. 사랑도 증오도 그때그때 인연일 뿐입니다. 〈p.84〉"

"지금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번영도 풍요도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염불도 연습해야 하고 행복도 연습해야 합니다. 염불 기도 연습을 꾸준히 하면 날마다 좋은 일로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이 찾아들게 됩니다. 〈p.93〉"

"삶에서 마음을 잘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가려서 써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입밖에 내뱉는 순간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을 하세요.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오고 사랑하면 사랑이 찾아듭니다. 〈p.99〉"

"지금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지금 자신을 믿으라. 이 일을 수행함에 타인에게도 이와 같이 베풀어라. 〈p.111〉"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근원으로부터 완벽하고 원만하다. 감사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좋아지게 한다. 믿음은 삶을 윤택하게 한다. 믿는 대로 얻게 된다. 기도 수행은 자신을 발전하게 한다. 발원 수행은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 지금에 충실하라!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라. 〈p.117〉"

-제11회- 반야학술상 공모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제11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합니다. 반야학술상은 시상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학술 및 사회활동이 활발한 중견급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 연구자들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

■ **반야학술상 선정 기준**
공모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학술 및 사회활동이 활발한 중견급 연구자(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연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사를 통해 수상자 1명에게 1,000만원 지원함.

■ **추천(타천) 마감 : 2021년 7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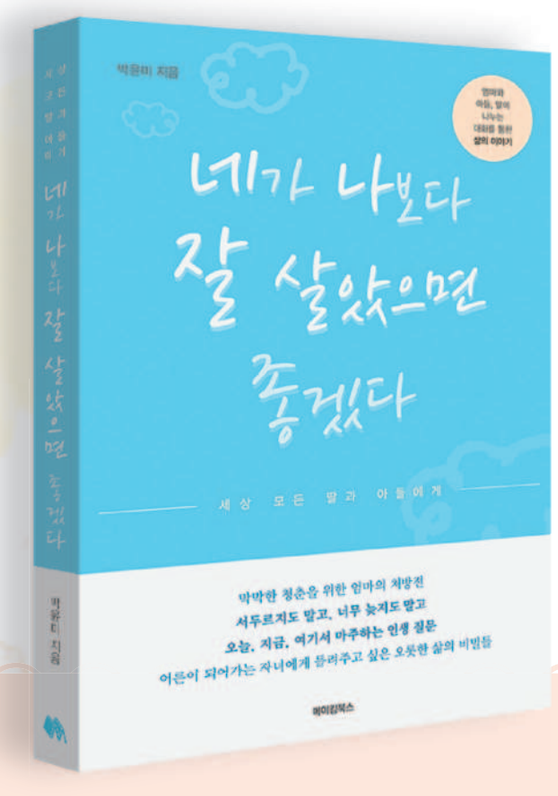
■ 추천(타천) 방법은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banyaresearch.org)를 참조바람.

■ **시상일 및 장소** : 추후 공지

■ **문의처 :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구자상 (010-4731-3471)**
우명주 (010-9027-5193)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2020년 신간
천만 불자(佛子)들의 필독서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한 무수한 의문, 살아야 할 이유,
모든 해답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존재합니다.

불자로서, 어머니로서,
청춘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부모님께는 자녀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줄 힘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그윽한 자비를 누리시길 빕니다.

이 책 한권으로,
부처님 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 겠다
박윤미 지음 | 220쪽 | 14,8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1

▶ 22회 예고
감옥의 우두머리 전옥은 왕명을 받아 궁녀들을 조사한다. 그러나 라따나 왕자의 음식에 독을 타도록 사주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다. 옥졸들의 잔인한 고문으로 우두머리궁녀는 죽고 겁에 질린 어린 궁녀는 실성해버린다.



라따나 왕자, 독살미수 사건

아반띠국의 수도인 웃자인의 반란은 심각했다. 반란수괴는 빈두사라가 파견한 관리들을 처형한 뒤 웃자인에서 왕 행세를 했다. 웃자인을 지나는 상인들에게 과도한 통행세를 갈취했다. 그러자 대상(隊商)들은 웃자인을 거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까시국 수도인 바라나시로 들어가 짐을 풀었다. 상인들이 오가지 않는 웃자인은 차츰 흉흉해졌다. 성민들은 하나 둘 성을 떠났고 빈 집들이 늘어난 성 안은 활기를 잃어갔다.

빈두사라는 웃자인에 왕자 중에서 누구를 파견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다. 총애하는 라따나 왕자를 보내자니 그는 아직 어렸다. 빈두사라는 날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를 불러놓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았다. 빠딸리뿌뜨라 주변 소국에 파견한 왕자들과 관리들이 있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했다. 그들을 잘못 파견했다가 실패하면 빈두사라의 체통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소국들 중에 어떤 나라가 자극받아 반란을 일으킬지도 몰랐다.

빈두사라는 날이 갈수록 초조했다. 그런 탓에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를 궁으로 불러들였다. 칼라따까에게 먼저 물었다.

"소국에 파견한 왕자들이 많이 있소. 그들 중에 누구를 보내면 좋겠소?"

"어찌 소신의 입으로 유능하다, 무능하다고 평가하겠사옵니까? 대왕님은 이미 어떤 왕자님이 유능한지 정확하게 보시고 계실 것이옵니다."

빠딸리뿌뜨라 주변 소국에 파견한 왕자출신 부왕들은 많았다. 그러나 왕자들을 함부로 평가했다가는 나중에 후환이 생길 수도 있었다. 왕자를 낳은 왕비들이 무슨 모사를 꾸며 칼라따까를 공격할지 알 수 없었다. 칼라따까는 그것이 두려워서 심중에 있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빈두사라가 답답해하며 이번에는 라다굽따에게 물었다.

"제관은 어떻게 생각하오?"

"소신도 대왕님의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허허. 제관의 의견을 묻고 있소. 누구를 웃자인에 보내면 좋겠소?"

"소신은 대왕님께서 누구를 지목하고 계신지 짐작하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대왕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사옵니다. 제 의견은 그것이옵니다."

빈두사라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미 능력이 검증된 아쇼까를 보내고 싶지만 차마 그러지를 못했다. 탁실라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쇼까를 웃자인으로 보낸다는 것은 아무래도 잔인한 일이었다. 더구나 탁실라에서 돌아와 아내의 죽음을 알고 실의에 빠져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던 아쇼까였다.

두 번째 아내 아상디밋따를 만나 겨우 진정한 상태인데, 아쇼까에게 또 웃자인으로 떠나라고 명을 내린다면 반발할지도 몰랐다. 설령 마지못해 빈두사라의 명을 따른다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원한을 품을 터였다. 뿐만 아니라 아쇼까 말고도 다르마를 설득하는 것도 난감했다.

"아쇼까를 능가하는 왕자들이 없다는 말이오?"

"감히 말씀드리옵니다만 총애하시는 라따나 왕자님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옵니다."

"허허. 시간을 더 끌다가는 나 빈두사라의 명예가 더럽혀질지도 모르겠소."

"대왕님이시여. 다르마 왕비님을 설득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사옵니다. 왕비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쇼까 왕자님이 차마 거절하지 못할 것 같사옵니다."

"누가 다르마 왕비를 설득한단 말이오. 아쇼까가 탁실라로 떠날 때 다르마 왕비는 며칠 간 식음을 전폐한 적이 있소."

빈두사라는 다르마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다르마는 젖먹이손자 꾸날라를 키우는 고생까지 감수했던 것이다. 빈두사라가 라다굽따에게 말했다.

"사실 다르마 왕비는 왕손을 잉태한 몸이오. 내가 나서서 말할 자신이 없소. 유산이라도 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소? 그러니 아쇼까의 스승인 라다굽따 제관이 나서주시오."

라다굽따는 답변을 못하다가 겨우 한 마디 했다.

"소신은 아쇼까 왕자님의 스승이기는 하였지만 다르마 왕비님을 자주 뵙지는 못했사옵니다. 소신이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지도 모르겠사옵니다."

무슨 일이든 먼저 나서지 않는 라다굽따다운 말이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언행 덕분에 자기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그런 위인이었다. 빈두사라가 칼라따까를 쳐다보며 말했다.

"칼라따까 제관이 왕비를 만나 보겠소?"

"다르마 왕비님의 청으로 별궁을 드나들곤 했사옵니다만 왕비님께서 소신의 말을 들어주겠사옵니까?"

"어떻게 말하면 다르마 왕비가 아쇼까를 설득할지 고민해 보시오. 그대의 공은 잊지 않겠소."

그때 친위대장이 들어와 빈두사라에게 귓속말을 했다. 갑자기 빈두사라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빈두사라는 즉시 대신들과의 자리를 파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궁을 나와 헤어졌다. 그런데 칼라따까는 내성 동문으로 가다가 다시 궁으로 돌아와 친위대장을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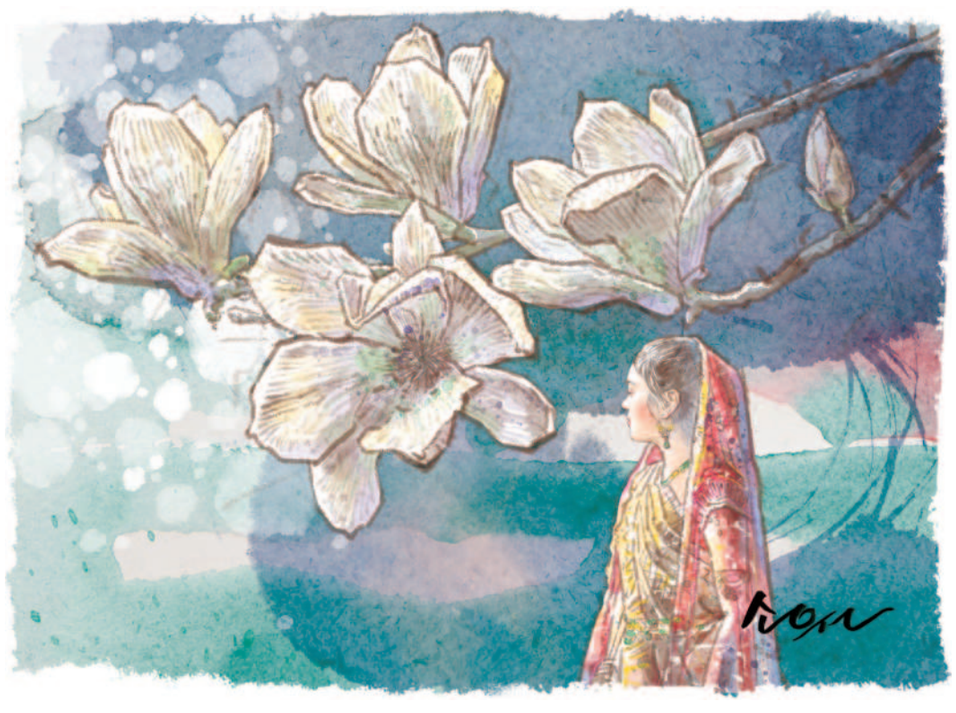
친위대장은 다르마의 신임을 받는 유일한 장수였다. 친위대장은 다르마가 외출할 때마다 자청해서 호위해왔던 공으로 자잘한 허물이 있었지만 대장직을 오랫동안 유지했다. 이윽고 친위대장이 심각한 얼굴로 궁문을 나왔다. 칼라따까가 물었다.

"대장, 무슨 일이 있소?"

"간밤에 라따나 왕자님이 독살당할 뻔했소."

"대왕님께서 총애하는 왕자님이신데 도대체 누구의 소행이란 말이오?"

왕자를 죽이려는 음모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탁실라 부왕 수시마도 빠딸리뿌뜨라에 있을 때 독살당할 뻔했던 것이다. 그런데 수시마 같은 왕자를 갖지 못한 왕비들의 사주를 받았을 것이라는 혐의만 무성했다가 미궁에 빠진 사건이었다. 음식에 독을 탄 궁녀가 강가강에 투신해 죽는 바람에 사건이 유야무야돼버렸던 것이다.



이번에는 라따나 왕자를 짝사랑했던 궁녀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자신이 독을 탄 음식을 먼저 먹은 뒤 입에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다.

라따나 왕자별궁이 발칵 뒤집혔지만 연루자가 죽은 탓에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는 하루가 지났지만 오리무중이었다. 즉시 우두머리 궁녀는 물론 음식을 만드는 궁녀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라따나 왕자별궁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좀체 바뀌지 않았다.

빈두사라는 감옥에 갇힌 궁녀 전원을 사형에 처하라고 친위대장에게 지시했다. 친위대장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친위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대왕님의 총애를 받는 왕자님들이 표적이 되고 있소. 아마도 질투하는 왕비님들의 소행인 것 같소."

"빠빠 왕비의 동태는 어떻소?"

문득 칼라따까는 궁에 들어왔을 때부터 다르마를 괴롭혔던 15번째 빠빠 왕비가 떠올랐다. 그녀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인지 다산하는 왕비들을 시기했고 자신보다 젊고 얼굴이 반반한 궁녀들을 괴롭혔다. 친위대장이 다시 말했다.

"빠빠 왕비님은 아닌 것 같소. 왕자를 낳지 못하는데 굳이 왕자를 미워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빠빠 왕비님이 시기하는 대상은 라따나처럼 똑똑한 왕자를 낳은 왕비들이겠지요. 대왕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왕비들이겠지요."

칼라따까가 갑자기 처량하게 말했다.

"대왕님께서는 웃자인 반란을 진압하고자 아쇼까 왕자님을 파견하려고 하는 것 같소. 나보고 다르마 왕비님을 먼저 설득하라고 하시는데 방법을 모르겠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오. 암투가 심한 궁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득할 수 있지 않겠소?"

"아! 그럴 수 있겠소."

"사실이지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소."

칼라따까가 또 다시 친위대장에게 애원하듯 부탁했다.

"다르마 왕비님은 대장을 신임하고 있소. 그러니 함께 다르마 왕비님을 만나면 어떻겠소."

"어렵지 않은 일이오."

두 사람은 곧장 다르마 왕비별궁으로 달려갔다. 락슈미띳사가 두 대신을 맞이했다. 구면인 데다 다르마 왕비가 신임하는 친위대장이므로 락슈미띳사는 바로 두 대신을 안내했다.

"왕비님은 후원에서 산책 중이십니다. 저를 따라 오셔요."

후원도 왕비별궁 앞 정원 못지않게 붉은 양귀비와 하얀 목련꽃이 만발해 있었다. 다르마는 꽃향기를 맡으며 위로받고 있는 듯했다. 다르마가 공작야자수 그늘에 앉아 있다가 두 대신을 보고는 일어났다. 칼라따까가 먼저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왕비님이시여,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쇼까 스승이 라다굽따로 바뀐 뒤로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를 왕비님께 데리고 온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칼라따까는 빈두사라를 대하듯 정중하게 말했다.

"대장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궁에 불미스런 사건이 나서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라따나 왕자님께서 독살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요? 왕자님은 어떤가요?"

"무사합니다. 궁은 안전하기도 하지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칼라따까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왕비님, 아쇼까 왕자님도 질투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칼라따까는 친위대장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친위대장이 마지못해 말했다.

"제관님은 아쇼까 왕자님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르마는 친위대장의 보고를 듣고 나서는 불안해했다. 그러자 칼라따까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장이 가까이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무슨 대책을 세워두기라도 했다는 말씀인가요?"

"왕비님이시여, 성 안은 언제나 불안하고 차라리 성 밖은 안전합니다."

"제관님은 아쇼까가 또 다시 성 밖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왕님의 뜻에 따라 왕국을 지키는 영광스런 일입니다."

다르마는 칼라따까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친위대장에게 물었다.

"대장님, 아쇼까가 대왕님의 뜻을 따른다니 무슨 말입니까?"

"왕비님이시여, 아반띠국 수도 웃자인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을 제압하는 일이 마우리아왕국을 지키는 영광스런 일입니다."

칼라따까가 또 다시 말했다.

"왕비님, 아쇼까 왕자님께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는 대왕님의 뜻을 받들어 명예를 더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성 밖으로 나가 목숨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왕자님은 출중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이루실 것입니다. 왕자님께 이러한 제안을 전할 분은 오직 왕비님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소. 어쩌면 아내와 아들과 함께 아쇼까가 멀리 나가 있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소. 탁실라에서 돌아온 뒤 궁 안의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하였기 때문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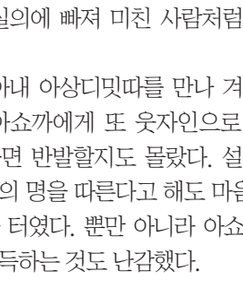
"왕자님에게 명예가 더해진다면 왕자님의 앞날은 산처럼 높고 강처럼 깊어질 것입니다."

칼라따까는 다르마가 자신의 말을 호의적으로 들어주었으므로 절반은 성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제 아쇼까는 다르마의 설득에 달린 셈이었고, 자신은 빈두사라에게 포상을 받을 일만 남은 것 같았다. 〈계속〉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⑪ 선종오가의 전래와 의의



▶ 한줄 요약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선종오가의 선풍은 고려 전기까지는 거의 이렇다할만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뚜렷한 성과 없었던 고려 초 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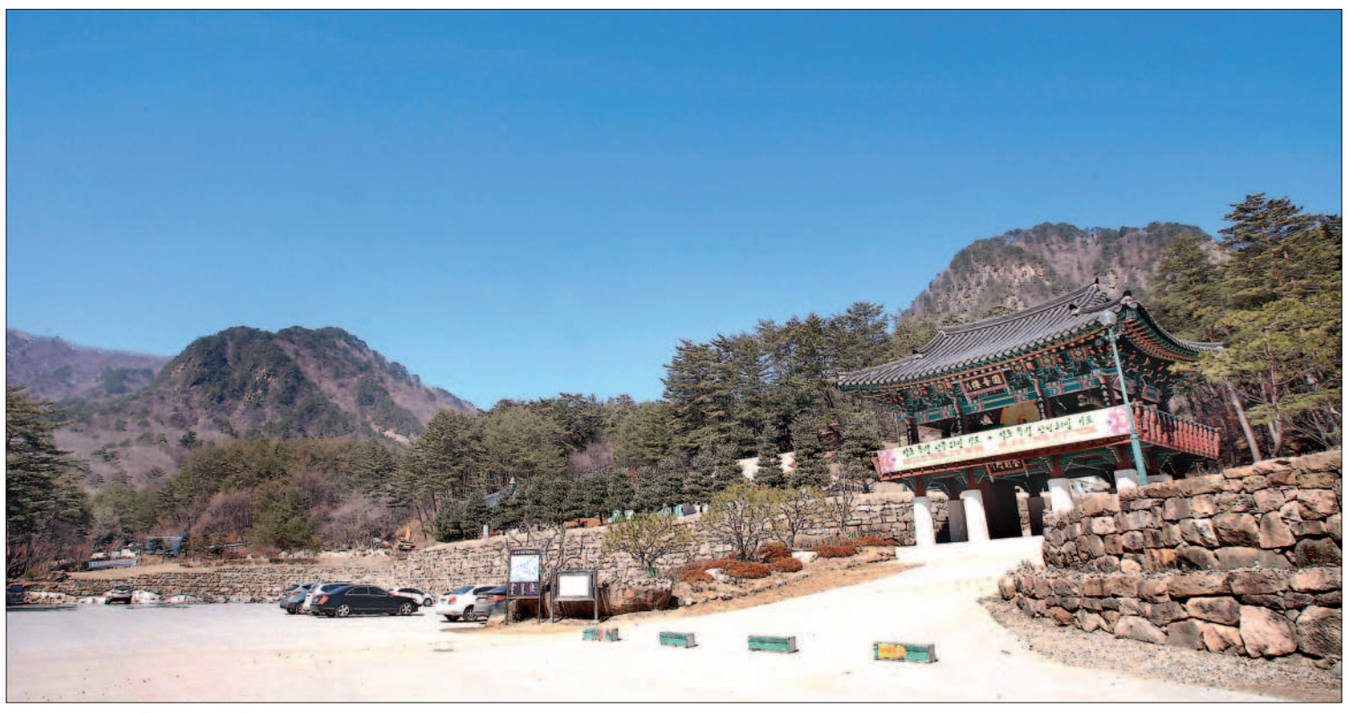
1) 선종오가의 전래

신라 말기에 중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선법은 다양한 선풍의 수입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주로 중국의 선종오가에 속하는 선풍이었다. 신라 말기에는 우선 요오 순지를 통하여 위앙종풍이 수입되어 오관산 용암사(龍巖寺)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후에 서운사(瑞雲寺)로 개칭되었다. 이어서 고려 초기 태조 왕건으로부터 크게 후원을 받아 전개된 조동종풍은 중국 조동종 계통의 몇몇 법계로부터 많은 선자들의 수입으로 크게 돋보였다. 이어서 광종시대에는 한때 오월국의 후원을 받았던 법안종의 도입이 정책적인 후원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이후에 혜조국사(慧照國師) 담진(曇眞)은 10세기 후반에 입송하여 임제종 계통의 정인 도진(淨因 道臻, 1014~1093)과 부산 법원(浮山 法遠, 991~1067), 그리고 운문종 제5세 대각 회련(大覺懷璉, 1009~1090) 등에게 사사하였고, 송의 신종 황제로부터 법원대사(法遠大師)의 호를 받았다. 여기에는 당시에 정치적인 측면으로 국가 외교의 원만한 이해가 결부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후 1080년에 귀국하였는데, 1107년에는 왕사로 책봉되었고, 1114년에는 국사로 책봉되었다. 당시 북송시대 선종은 임제종 계통에서 황룡파(黃龍派)와 양기파(楊岐派)가 출현하였는데, 처음에는 황룡파의 세력이 크게 부각했다가 이후에 양기파의 세력이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담진은 임제종풍과 운문종풍을 아울러 수입하였는데 국내의 법계로는 사굴산문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이로써 11세기 후반까지는 중국의 선종오가의 선법이 모두 전래되었다. 9세기 중반부터 10세기 중반까지 100여 년의 세월에 걸쳐 형성된 중국 선종오가의 순서는 위앙종을 비롯하여 임제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의 차례였다. 이것이 신라 및 고려에 수입된 것은 9세기 후반부터 11세기 후반에 걸쳐 200여 년이 걸렸는데, 그 순서는 위앙종, 조동종, 법안종, 임제종과 운문종이다. 중국에서 선종오가의 형성과 그 전개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모두가 신라 및 고려로부터 직접 유학한 선승들에 의하여 직수입되었다는 점에서 오가종풍의 수입에 적극적인 면모가 엿보인다. 이것은 선법의 수입기에 해당하는 8~9세기 신라의 상황과 비교하여 고려에는 이미 선법에 대한 이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오가선풍이 수입된 이면에는 특히 대각국사 의천이 주도한 고려 천태종의 개창운동과 관련하여 당시에 다수의 조계종 승려들이 천태종의 개창에 참여했다가 일부만 남고 탈퇴하면서 조계종단을 형성하려는 자각도 함께 작용하였다. 그것은 직접 유학하여 개인적으로 인연이 닿은 종풍을 전래하였지만, 귀국해서는 오가종풍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게 전개되지는 않았다. 그 오가의 종풍을 전래했다는 법계에 대한 의식보다는 아직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선풍에 대한 호기심과 그 종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리 및 수행의 가풍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표출된 결과였다.



사자선문을 열었던 영월 법흥사.

2) 선종오가 전래의 의의

이와 같이 신라 말기와 고려 전기에 걸쳐서 전래된 중국 선종오가의 종풍은 비록 부분적이고 한정된 인물들에 의한 결과였지만, 신라 말기부터 고려 전기까지 200여 년에 걸쳐 모두가 전래된 데에는 몇 가지 주목할 점이 보인다.

첫째는 선법의 수입에 대한 성격이다. 최초 수입기에 해당하는 8~9세기 선법의 전래는 이미 국내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교학불교에 대한 한계성 내지는 심화된 불법의 탐구를 인식하고 보다 세련되고 새로운 불교에 대한 호기심의 자극에 따라서 전개되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법상종(法相宗)·법성종(法性宗)·열반종(涅槃宗)·계율종(戒律宗)·원융종(圓融宗) 등 오교(五敎)로 대변되는 교학을 공부하고 그 한계를 느낀 이후에 당나라에 유학했다는 점이 보편적으로 보였다. 특히 입당 유학승들의 경우에는 화엄교학의 공부와 선법의 접점에 대한 호기심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경우에는 국내에 소개된 선법에 대해서 당시까지는 심화된 이해가 형성되지 못했던 까닭에 조사선과 여래선, 남종선과 북종선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당나라에서 유행했던 최신의 선법이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랑 및 신행에 의한 동산법문의 수입이 있었던 이후에야 홍주종풍에 대한 수입이 주류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때문에 신라에 새롭게 수입된 선법의 경우에는 자파의 존립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교의 차별에 의거한 선법의 우월의식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가령 무염국사의 무설토론(無舌土論)과 범일국사의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 등이 그것이었다.

반면에 신라 말기 및 고려 전기에 보여주었던 선종오가의 선풍에 대한 전래는 이미 선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전래였다. 그리하여 교학에 대한 한계성 내지 초월이라는 입장보다는 선법 자체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과 심화에 따른 관심의 발로이기도 하였다. 곧 이미 선법에 대한 맛을 알고 난 이후에 보다 세련되고 다양한 선법에 대한 욕구의 출현으로 유학을 선택한 것이었다.

둘째는 8~9세기에 전승된 선법의 수입은 당 및 오대의 선종에서 아직 선종오가로 분파되기 이전의 선법을 접한 결과로 말미암아 비교적 한정된 몇몇 법맥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강서종파에 치우친 선법의 전래로 나타났다. 그것은 강서종이야말로 당시 중국의 선종계 동향에서 소위 잡화포(雜貨鋪)로 불렸듯이 가장 번성한 지역의 선풍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적인 조류에 따라서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불법의 보편적인 면모를 발휘했던 까닭에 선종이었으면서도 불교의 모든 분야에 걸쳐 찾아온 납자를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가르쳤던 선풍을 지니고 있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반면에 신라 말기 및 고려 전기에 전래된 선법의 성격은 선종오가로 분파된 이후의 선풍에 대한 전래였다.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법맥과 선의 사상과 문화를 접할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선법에 대하여 국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유학한 까닭에 자신이 관심을 지니고 있는 가풍을 추구하여 공부할 수가 있었다. 그 결과 이전보다는 비교적 다양한 법맥에 속하는 유학승이 배출되었다. 그것이 곧 선종오가로 보자면 초반에는 위앙종과 조동종의 경우에는 순수한 선풍의 전래가 가능하였고, 이후에 전래된 법안종과 임제종과 운문종의 경우에는 당시의 국제정세에 따른 배려와 관심의 측면도 더불어 수반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선종오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빠짐없이 전래될 수가 있었다.

셋째는 중국에서 오가선풍의 형성 순서와 해동에 전래된 순서의 차이점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당말 및 오대에 형성된 중국의 선종오가는 소위 남종선이 크게 번영함에 따라 그 다양성과 특수성이 인물과 지역에 따라 나름대로 사상과 교화와 수행의 특징을 구현하면서 각각 분파의 모습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형성된 선풍은 위앙종풍이었다. 위앙종의 조사로서 위산 영우(潙山 靈祐, 771~853)와 앙산 혜적(仰山 慧寂, 803~887)은 백장 회해(百丈 懷海, 749~814)의 직계에 해당한다. 임제종은 이보다 약간 이후에 황벽 희운(黃檗 希運, ?~850)의 법을 계승한 임제 의현(臨濟 義玄, ?~867)의 종풍으로 형성되었다. 그것은 〈임제록〉에 보면 임제의 법거량에 대하여 이미 출세하여 권위를 확보하고 있던 위산과 앙산의 코멘트를 통해서 임제선법의 정당성을 보증을 받으려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점에서 엿볼 수가 있다. 이들 위앙종과 임제종은 홍주종 계통에 속하는 선풍이었다.

한편 호남의 석두 희천(石頭 希遷, 700~790)의 법맥에 속하는 선풍으로는 동산 양개(洞山 良价, 807~869)의 조동종과 운문 문언(雲門 文偃, 864~949)의 운문종과 법안 문익(法眼 文益, 885~958)의 법안종 순으로 출현하였다. 이 가운데 해동에 전래된 순서는 위앙종을 위시하여 조동종이 먼저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 선풍을 전래한 인물은 위앙종의 요오 순지와 조동종의 이엄 기타 다수의 선자들이었다. 이들이 입당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선지식을 참방하고 사사하며 깨침을 인가받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구도를 향한 순수한 선자의 면모로 일관되었기에 정치적인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의 경우에 이미 통일국가가 되어 정립되는 시대에 이르렀고, 송나라의 경우도 오대를 통일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무렵 유학한 승려들에게는 국제간의 역학관계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선법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법안종 및 임제종과 운문종을 전래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런 까닭에 선종오가가 전래된 시기에도 그 형성과 비교하여 다소 차이점이 엿보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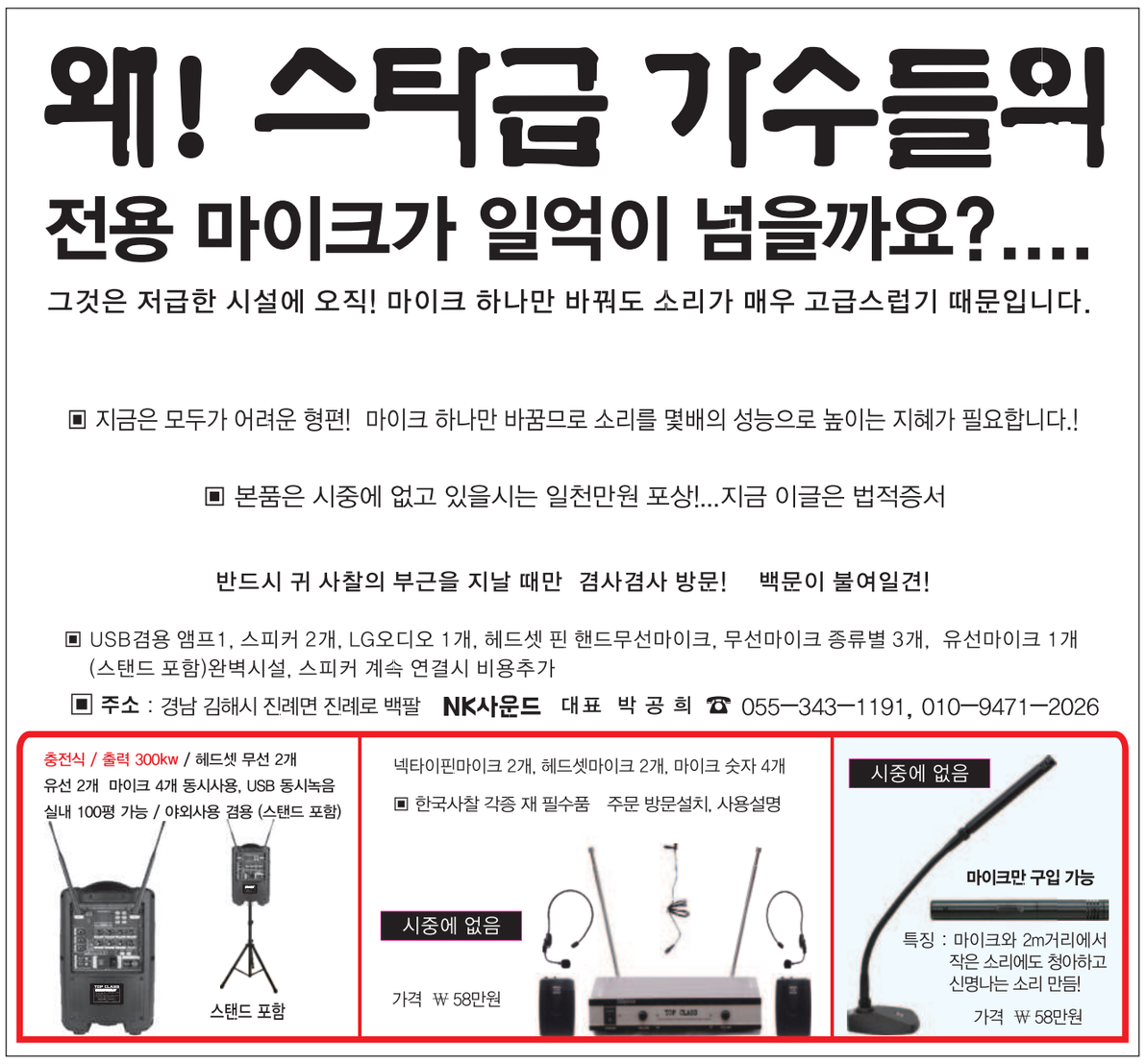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라 말기와 고려 전기에 선종오가가 전래되었지만, 이후로 고려의 선종계에서 그다지 뚜렷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국내에 이미 형성되어 명멸하고 있던 구산선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구산선문의 경우는 고려시대 내내 가지산문과 사굴산문만이 면면하게 계승되었고 기타 산문은 명맥만 유지되는 상황이었다. 그 가운데 사굴산문의 법맥에 속하는 보조 지눌과 가지신문의 법맥에 속하는 보각 일연 등이 출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목되는 저술들을 남겨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구산문 가운데 기타 산문,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선종오가의 선풍은 고려 전기까지는 거의 이렇다할만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것은 선종오가가 모두 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전기에 온전하게 계승된 법맥을 찾아볼 수가 없고, 선사상의 전개를 보여주는 저술 내지 어록이 전해지지 못하였으며, 뚜렷한 수행풍토를 제시하지도 못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종의 교단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전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라 말기에 당시 불교의 교학적인 분위기를 일신시켜줄 것처럼 보였던 새로운 선법의 도입에는 선교차별과 같은 주장이 출현할 만큼 주체적인 입장에서 활발발한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고려 전기에 선종오가가 전래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주체성이 결여되었다. 선종오가가 형성된 배경에는 선자들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이 팽배하였다. 그러나 고려 전기에 선종오가를 전래한 선자들은 승과제도라는 국가통제에 매몰되어 자율성과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자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어록 하나도 온전하게 남겨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동국대 HK교수〉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⑪ 〈원각경변상도〉에 대한 의문들



▶ 한줄 요약
미국 보스톤미술관에 소장된 고려불화 〈원각경변상도〉는 〈원각경〉의 내용을 도상화한 것이다. 〈원각경〉의 주존은 석가여래지만, 변상도의 주존은 노사나불이다. 불교미술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를 노사나불로 표현한다.

설법하는 석가모니, '노사나불'

미국 보스톤미술관에 소장된 한국 고려불화 〈원각경변상도〉는 〈원각경〉의 내용을 한 폭의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그림1) 그림 한가운데에 노사나 부처님이 아름답게 장엄을 하고 설법인의 수인(手印)을 취하고 있다. 부처님은 누구에게 무엇을 설법하는 것일까?

우선 부처님을 둘러앉은 청중을 보기로 하자. 노사나 부처님의 양옆으로는 문수보살(정면에서 보아우측)과 보현보살(정면에서 보아 좌측)이 협시하고 있다. 문수보살은 푸른 얼굴의 용맹스런 사자를 타고 있고, 보현보살은 하얀 색의 우직한 코끼리를 타고 있다. 문수와 보현의 밑으로는 각 5구의 보살님들이 가부좌를 하고 둘러 앉아있는데, 그 옆에는 각기 이름이 모두 명기되어 있다.(그림2) 존명을 살펴보면, 〈원각경〉에 나오는 총 12장(章)에 해당하는 12보살들이다. 우측에서 시작해서 좌우로 번갈아 가며 배치되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다음으로, 보안 보살 · 금강장보살 · 미륵보살 · 청정혜보살 · 위덕자재보살 · 변음보살 · 정제업장보살 · 보각보살 · 원각보살 · 현선수보살의 총 12보살의 성중이다.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원각경변상도〉, 고려시대, 비단에 채색, 165x58cm, 미국 보스톤미술관 소장.

그림②. 질문하는 12보살(보안보살 · 미륵보살 · 위덕자재보살 · 정제업장보살 등)

저본 〈원각경〉 주존 '석가여래'
노사나불, 왜 변상도 주불일까
보신 노사나불, 소승 대승 섭수
중생을 위해 깨달음을 설하신
석가모니를 노사나불로 표현해

12보살, 즉문즉답의 신랄한 전개

〈원각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12보살들이 본질적인 질문들을 날카로운 논리로 전개한다. "여래의 '본래 자리'란 도대체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자리를 '원각(圓覺)'이라고 표현한다. 이밖에도 "어떻게 해야 중생이 온갖 환(幻)에서 벗어납니까", "무명은 무엇입니까", "애욕은 어떻게 끊습니까" 등 수행하다가 여지없이 올라오는 질문들이 가감 없이 터져 나온다. 이것이 항상 궁금했던 독자들도 읽다가 속이 다 시원할 정도이다. 사실, 너도나도 궁금했던 질문들. 이에 대해, 부처님은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성스러운 진리의 답변을 하신다. 그 안에는 중생의 고통과 풀리지 않는 의문을 자비로 품는 부처님의 간절한 따스함이 묻어 있다.

〈원각경〉의 본 제목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다. '수다라'는 수트라(sūtra)의 음차이다. 특히,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비유나 방편이 아닌) 그대로 전달한 경전을 일컫는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원각'이라는 깨달음을 설한 경전 중에 '요의(了義)', 즉 '핵심'만 뽑은 것이란 뜻이다. 다시 말하면, '수행의 요지에 대한 핵심정리' 또는 '궁극의 가르침의 요약판'이라고 보면 되겠다. 수행의 요지는 12보살의 키워드 질문과 석가모니의 직설적 답변으로 펼쳐진다. 이때 경전 상의 설법하는 주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지만, 그림으로 표현될 때는 노사나 부처님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몇몇 핵심적 문답을 살펴보자.

날카로운 질문, 성스러운 답변

가장 먼저, 지혜제일(智慧第一) 문수보살의 질문부터 시작된다. "불도(佛道)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부처님은 이와같이 답한다. "무명(無明)을 영원히 끊는 것이다. 무명이란, 허망하게 사대(四大 · 地水火風)를 내 몸으로 삼고, 육진(六塵) 경계에 반연한 그림자를 내 마음으로 삼는 것. 병난 눈(환幻)에서 벗어나 원각의 눈으로 보아야만 윤회가 끝난다. 환에서 벗어나면 곧 각(覺)이다."(〈원각경〉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이하 상동)

다음으로 보현보살이 물었다. "일체가 환이라면, 어떻게 환으로써 환을 닦을 수 있습니까?"

이에 석가모니는 "시방세계 일체 모든 중생 삶에/ 근원 알 수 없는 환(幻) 같은 무명/ 그 모두는 여래의 빛나는 원각/ 거기서 생겨나와 흘러간다/ 이는 마치 허공의 꽃(공화, 空華) 같아서/ 그 모습을 허공에 의지했다가 다시금 사라졌어도/ 허공의 근본은 부동(不動)이라네"라며 그 부동의 마음을 '원각묘심(圓覺妙心)'이라고 명명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보안보살이 "중생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자리에 머뭅니까"라며 수행점차(修行漸次)를 묻는다. 이에 붓다는 계(戒) · 정(定) · 혜(慧)의 순차적 완성을 설했다.

그러면서 "먼저 계를 지키고, 단정히 앉아 선정수행(사마타행)을 하고, 다음으로 정념(正念)으로 관찰한다"고 답했다. 정념과 동의어로, 관(觀) · 지혜 · 통찰지 · 위빠사나 등이 있다.

"선정 없이 관(觀)에 들어갈 수 없다. 내 몸이 지수화풍 사대의 조합인 줄 보고, 그 허망한 인연화합으로 육근과 육경이 생겨, 다시 허망한 기운이 쌓여 모습이 있는 듯하니 이를 잠시 마음이라 부른다"라며 석가모니 부처님 초기 설법의 핵심 '사념처'의 내용이 나온다. 이로써 '환을 여의는 방법'이 설해졌다.

幻 벗어나려면 '계 · 정 · 혜' 수행을

하지만, 더욱더 강도 높은 질문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모든 중생에게 무명이 본래 있는 것이라면, 어째서 부처님은 다시 '중생이 본래 성불해 있다'라고 하십니까"라고 금강장보살이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한다.

이에 부처님은 "염념상속(念念相續) 순환왕복(循環往復)"이라며 "생과 멸, 응집과 해체, 일어남과 사라짐이 계속적으로 상속하여 순환 반복되며, 이를 취하고 버리는 마음도 반복된다"고 하신다. 이러한 윤회의 마음을 눈병에 비유하신다. 즉, 눈병 난 눈으로 세상을 보니, 온통 세상이 그리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윤회의 마음으로 보니 윤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부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허공의 꽃은 오온(五蘊)을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원각은 열반을 말한다. 환(幻) 대 각(覺), 공화 대 원각, 오온 대 열반, 대비되는 두 마음의 공식을 읽을 수 있다.

"만약 윤회하는 마음으로/ 사유하여 생사를 되풀이하면/ 오로지 윤회 속에 있을 뿐/ 부처님의 바다에는 갈 수 없네. 그 허망함을 보고 원각을 구하라."

이렇듯 궁극의 답변으로 어마어마한 토론이 끝난 듯하나,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심장 쫄깃한 문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추후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질문과 답변이 궁금하다면 〈원각경〉을 직접 찾아보기를 권한다.

설법주 '석가', 왜 '노사나'로?

그런데 〈원각경변상도〉를 보면서 드는 의문. 〈원각경〉 속의 설법하는 부처님은 엄연히 '석가모니'인데, 왜 그림에는 '노사나' 부처님이 그려졌을까? 주지하듯이, 〈화엄경〉 · 〈원각경〉 · 〈범망경〉의 주존은 모든 불화(괘폭장 및 변상도 등 포함)에서 '노사나'로 표현된다. 이들 경전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 또는 깨달음의 과보는 '노사나'라는 부처님으로 묘사되는데, 높은 보관 및 영락 구슬로 장엄되어 매우 화려하다. 이러한 몸체 그 자체를 '화엄(華嚴)'이라고 한다. 화엄이란, 꽃으로 장엄된 세계를 말하는데, 이를 연화장세계라고도 한다. 여기서 꽃은 '보신'을 말한다. 〈화엄경〉의 축소판인 〈원각경〉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원각(궁극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행절차를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범망경〉은 계율이 정리된 경전으로 본래 명칭은 〈범망경 노사나불설 보살심지계품〉이다. 원각을 성취하는 수행 절차의 요지가 '계 · 정 · 혜'인데, 수행의 발판에 해당하는 '계율'을 설해놓은 것이 〈범망경〉에 해당하겠다.

다음으로 수행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것이 〈원각경〉, 그리고 보살의 수행 계위와 그 과보로서의 경지를 묘사해 놓은 것이 〈화엄경〉이다. 〈화엄경〉 · 〈원각경〉 · 〈범망경〉의 '대방광불(大方廣佛)'은 '노사나'로 나타난다. "다라니 무진 보배로써 법계를 장엄하니, 바로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몸체로 나타낸 것이 '노사나' 부처님 존상이다.

그러면, 질문의 답을 찾아보자. 노사나는 '삼신(법신 · 보신 · 응신)' 중에 '보신'에 해당된다. 개인 성불을 위한 소승적 목표와 중생구제의 대승적 목표를 한꺼번에 지닌 존재를 '보신'이라 한다. 그렇기에 보신은 자수용신(自受用身)과 타수용신(他受用身)의 양자적 의미를 갖춘 것으로 정의된다. 석가모니께서 성도하신 후, 자내증(自內證)을 한동안 스스로 즐기셨다. 그러다가 그 깨달은 내용을 중생에게 설법하실까 말까 고민하시게 된다. 침묵을 깨고 드디어 '설법을 하기 시작한 석가모니'. '설법하는 석가모니'는 불교미술에서 '보신 노사나'로 표현된다. 쉽게 말하면, 입을 다무시면 '자수용신'이고, 입을 여시면 '타수용신'이다. 왜냐하면, '입을 여신 이유'는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대한불교천태종
해 동 사
주지 박도선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길 167(법흥동)
전화 054)852-6320
https://haedongsa.com

대한불교조계종
한라산 천 왕 사
조실 월 서
주지 지 오
사부대중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528-111(노형동)
전화 064)748-8811-8822

박원자의 母情佛心 11 자광행 보살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석종사 시민선원 前 입승 자광행 보살은 어머니의 지극한 신심을 통해 불교를 만났다. 한국 전쟁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이 의용군에 입대해 전쟁에 나가자 무사귀환을 부처님께 기원했다. 부처님의 가피로 아들은 전쟁 중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북한에서 삶을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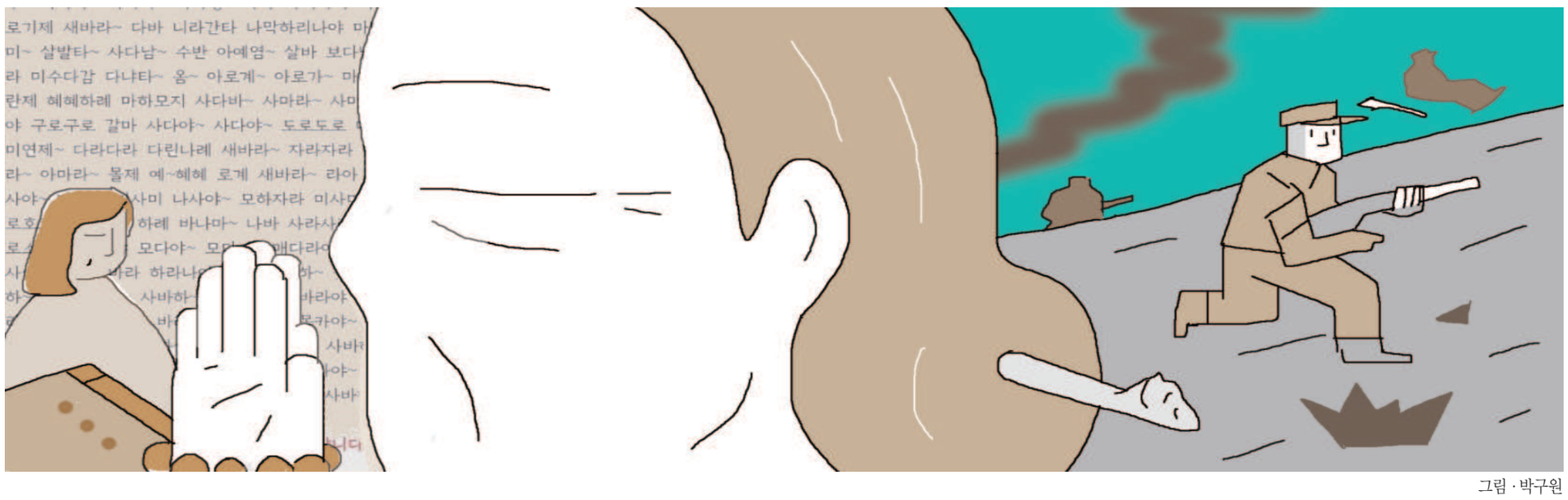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석종사 시민선원 前 입승 자광행 보살은 올해 여든 살이다. 꼿꼿한 허리에 몸에 군살하나 없다. 눈빛도 또렷하고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보이는지 그 연세라고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도반 한 사람이 '저 분은 지금 이 걸음이 부처님 법에 맞으면 걷고 법에 맞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철저히 수행하는 분'이라고 귀띔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 화계사 시민선방에서부터 시작된다. 3시면 일어나서 세수를 한 뒤 한 30분쯤 걸어서 선방에 온다. 새벽길, 그녀의 곁엔 40년 지기 도반이 함께한다. 한 동네 사는 도반의 나이도 어느덧 일흔여덟이다. 선방에 방부를 들여놓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진하고 있다.

59살에 시작한 참선공부는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었다. '나'를 찾는 수행이 그 무엇보다 위대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확신하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방에 앉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오전 11시. 최소한 하루 7시간을 좌선하고 있는 셈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이 먹는 것은 아쉽지 않으나 부처님께 입은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그것이 한스럽다."

자광행 보살의 불교입문은 어머니의 불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40살 즈음에 아들을 북으로 보냈다. 아니, 의용군으로 입대하겠다는 아들을 잡지 못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였다. 고목나무 밑에서 15살의 어린 아들을 붙들고 울며 말렸다.

"네가 이 집안에 맏아들인데 어쩌려고 그러니?"

"학교 형들과 운명을 함께하는 일이라 나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엄마, 꼭 살아 돌아올게요. 혹시 내가 죽는다 해도 남동생이 있잖아요."

주문진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 최고의 명문인 경기중학교를 들어간 아들은 어머니의 자존심이자 자랑이었다.

"전쟁 당일이었어요. 나는 그때 아홉 살이었는데 당시 일이 또렷하게 기억나요. 아버지가 강원도 어업조합 이사장으로 계셨는데 서울로 발령이 나서 먼저 서울로 가계셨고 우리는 그날 이사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난거죠. 조합에서 트럭을 마련해 우리 식구를 태워 서울로 보냈는데 홍천쯤 가다가 인민군에게 잡혀 차를 빼앗기고 걸어서 서울로 올라왔죠. 올라와보니 아버지는 인민군을 피해 어디론가 피신해 계셨고 오빠만 있었는데, 다음 날 의용군에 지원해 간 거죠."

천재 소리를 들을 만큼 명석했던 아들이 전쟁의 포화 속으로 사라지자 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절에서 살다시피 했다. 절에 다니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 같았다.

매일 참선 정진 자광행 보살
어머니 信心 통해 불교 만나
한국전쟁서 의용군 참전했던
아들 무사생환 기원 · 정진해
부처님 가피로 살아난 아들은
北서 거주… 모친 상봉 못해

피난지 부산에서의 일이다. 추운 동짓날이었다.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날부터 84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는 절에 갈 때면 차디찬 물에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우물가에서 찬물로 머리를 감고 몸을 씻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울었다. "모성애가 저렇게 무섭구나."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깬 아이들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보다'고 가슴을 졸였다. 그런데 추운 날 절에서 돌아온 어머니의 손은 말할 수 없이 따뜻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홍역으로 아들 둘을 더 잃고 딸 다섯을 키우며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들을 기다렸다.

전쟁이 끝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절망하지 않고 어머니는 기도했다. 오로지 아들의 안위를 위한 기도였다. 매일 읽는 불자지송 책이 너덜너덜해져서 몇 권이 떨어져나갔고,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우툴두툴한 염주는 반들반들해졌다. 어머니가 늘 입에 달고 살았던 진언(주문)은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였다.

자광행 보살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길잡이 노릇을 하며 어두운 새벽 산길을 걸어 절에 다니곤 했지만 어머니의 불교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쪽진 머리를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중얼거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불교를 좋아했던 사람도 달아날 것만 같았다. 하루는 어머니께 선언하듯 말했다.

"엄마 나, 기독교로 갈래요. 출가외인이잖아요." 어머니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런 불손한 것이 있나' 하는 표정이었다.

"부모 앞에서 남편을 먼저 보낸 불효를 하고는 미안하지도 않니? 그래, 더 할 불효는 없니?"

서른아홉에 혼자 된 자신이 부모님께 큰 불효를 한 셈인데,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했으면 딸의 그 아픈 상처를 건드리며 실망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을 것인가. 쪽진 할머니 머리에 이상한 진언을 외운다고 마음속으로 무시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불교가 무게감 있게 다가왔던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의 교재인 〈불교학개론〉을 구해서 옥편을 옆에 놓고 한자를 찾아가며 공부했다. 성경도 공부했다. 두 책을 나란히 놓고 공부하던 어느 날, 내가 나를 찾는 마음공부가 핵심인 불교를 선택했다.

종이가 해지도록 어머니가 읽었던 〈천수경〉을 공부해보니 어머니의 수행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참회와 감사와 발원'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다. 의상대사의 〈법성게〉에는 우주의 진리가 다 담겨있었다. 지금도 참선이 잘 안 될 때면 〈법성게〉를 외우곤 한다. 그만큼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불교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는 〈천수경〉 〈법성게〉 〈이산혜원선사발원문〉만 이해한다면 누가 등을 떠밀어도 불교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음을 먹으니 공부할 기회가 열렸다. 대원불교대학에서 기초를 다졌고, 봉선사에서 10년 동안 열렸던 〈능엄경〉 강의도 들었다. 신심이 깊어지자 자연히 포교에도 열을 올리게 되었다. 3년 동안 시각장애인인 타종교인 부부를 데리고 새벽기도에 안내했다는 이야기는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참선공부를 시작하고부터는 안거를 거르지 않고 도반들과 함께 공부했다.

책상 위에 〈금강경〉을 읽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가 지나다 보고 말씀했다. "결혼한 뒤 아들 둘을 잃고 도저히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서 교회당에 나간 적이 있어. 그런데 거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불교보다 나을 게 없더라. 그래서 다시 절로 돌아왔지. 너도 올바로 경전을 봐야 한다."

딸은 그때 처음 어머니가 전쟁 중에 잃은 아들 둘 말고 그전에 아들 둘을 더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불교가 맹목적으로 복만을 빌었던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아들 넷을 가슴에 묻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생이별을 한 자신의 삶을 인과법과 연기법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자신의 지식이 어머니의 불교보다 한수 아래임을 깨달은 딸은 그때 진심으로 어머니에게 감동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결국 북으로 간 아들의 생사를 모른 채 돌아가셨다. 40년을 한결같이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눈을 감았다. 돌아가실 즈음에 〈지장경〉을 사경한 것 말고는 오로지〈천수경〉을 읽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고 관세음보살만을 염했다.

돌아가기 직전에 잠시 북한과 화해모드의 기류가 형성된 적이 있었다.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일성과 만날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오자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다. '남북 이산가족 찾기' 뉴스가 한창일 때도 어머니는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온 관심을 기울였었다. 그러나 아들을 만날 기회는 오지 않았다. 큰사위가 위로했다.

"처남을 보고 가셔야죠. 곧 기회가 올 것 같아요."

"희망을 걸고 있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

어머니의 눈빛에 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10년 후, 어머니 대신 판문점에서 여동생 네 사람이 오빠를 만났다. 오빠 쪽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해서 만나던 날, 자광행 보살은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염주와 경전을 가지고 나갔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얼마나 절절히 기도를 했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나달나달해진 책과 수없이 돌려서 반들거리는 염주를 보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원산폭격 때 함께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 나는 총알이 넓적다리에 박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시체를 헤치고 지나다가 내 신음소리를 듣고는 와서 보더니 '아이구, 어린 애구나' 하더라. 안됐는지 병원으로 싣고 가서 수술을 해주었어. 간호사 열 명이 교대로 수혈을 해줘서 살아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네 자매의 눈빛이 한 곳으로 모아졌다. 그리고 무언으로 말했다.

"그토록 정성스럽고 간절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살렸구나! 부처님은 시방삼세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구나!"

아들은 2, 3년 안에 통일이 될 거라면서 그때 염주와 책을 달라고 했다. 보관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알아채고 큰딸이 동생에게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오매불망 너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부터 제사는 네가 지내라. 맹물에 밥 한 숟갈 얻어 잡수셔도 아들인 네가 제사를 지내는 게 좋겠어."

그 후 자매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적셨던 어머니의 아들을 다시 보지 못했다. 어느 도시 자동차 공장장을 지내고 당시 공장에서 자동차기술에 대한 강의를 하며 지낸다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올해 86살이다. 생사가 본디 없다고 했으니, 지금 두 모자는 어딘가에 함께 있을 것이다. 어머니 정숙진(능인화) 여사가 그렇게 평생 기도했으니까.

〈작가〉



항상 설해지고 있는 법문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㉑ 법화경상설(法華經常說)

이때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마하살들이 여덟 항하의 모래알 수만큼 있었다. 이들이 대중 가운데서 모두 일어나 합장하여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저희들이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사바세계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전을 수호하여 읽고 외우고 써서 공양할 것을 허락하신다면, 마땅히 이 국토에서 널리 설하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마하살에게 이르셨다.

"그만두어라, 선남자여, 굳이 그대들이 이 경전을 수호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에는 6만 항하의 모래알 수만큼의 보살마하살들이 있고, 그 낱낱의 보살마하살마다 각각 6만 항하의 모래알 수의 권속들이 있느니라. 이들이 모두 내가 열반한 뒤에 능히 이 경전을 수호해 지니고 읽고 외우며 널리 설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바세계 삼천대천국토의 땅이 모두 진동하여 갈라지면서 한량없는 천만 억 보살마하살들이 동시에 솟아 올라왔다.

이 보살들의 몸은 다 금빛이었고, 32상을 갖추어 한없는 광명으로 빛났다. 이들은 모두 그전부터 사바세계의 아래 허공 가운데 있다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래로부터 올라온 것이었다.

이 수많은 보살들이 땅에서 솟아 나와서 각각 허공에 치솟은 칠보탑 안에 계신 다보여래와 석가여래가 계신 곳에 나아가 거기 두 세존께 머리를 숙여 예배하였다. 또 모든 보배 나무 밑의 사자좌에 앉으신 부처님들 계신 곳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이 예배드린 후,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보살들의 찬탄하는 법대로 찬탄하고는 한쪽에 머물러 기쁜 마음으로 두 세존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이 여러 보살마하살들이 처음 땅에서 솟아 올라와서 보살들의 찬탄하는 법대로 부처님을 찬탄할 때까지 50소겁이 걸렸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없이 앉아 계시고, 모든 사중대중도 또한 잠잠히 있었는데 50소겁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대중들에게는 한나절 같이 느껴졌다.

그때 사부대중은 또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입어 모든 보살들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국토의 허공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보살의 무리 속에 네 도사가 있었다. 첫째는 상행(上行)이요, 둘째는 무변행(無邊行)이요, 셋째는 정행(淨行), 넷째는 안립행(安立行)이었다. 이 네 명의 보살들이 그 무리 속에서 가장 으뜸가는 인도자 되었다. 이들이 대중 앞에 합장하고 석가모니불을 우러러보면서 문안의 인사를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병환 없으시며 괴로움도 없이 편안히 지내시나이까? 제도하셔야 할 사람들은 교화를 잘 받나이까? 세존을 피로하게 하지는 않나이까?"

'종지용출품'에 설해진 일부 내용이다. 매우 환상적인 장면이 연출된다. 땅이 진동하고 수많은 보살들이 솟아 올라왔다. 그리고 칠보탑 안의 다보여래와 석가여래가 계신 곳으로 나가 예배를 한다. 그전에 부처님은 이들이 부처님 열반 후에 〈법화경〉을 수호하고 독송하며 널리 설할 것이라고 하셨다.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이 법화경상설(法華經常說)이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구원성불과 더불어 미래제가 다하도록 언제나 항상 설해지고 있는 법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상설(常說)이라 한다. 이 말은 원래 〈화엄경〉에서 노사나불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처소에 구애받지 않고 걸림 없이 자유자재하게 〈화엄경〉을 설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특히 〈화엄경〉에서는 공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설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법화경〉도 의취(義趣)로 보면 마찬가지이지만 삼세(三世)를 통한 시간적인 상설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보살들이 다보여래와 석가여래에게 예배를 드리고, 안부를 여쭈는 장면이 이색적이다. 일반 사람들이 상호 주고받는 인사말처럼 부처님 하시는 일이 별고 없이 무탈하시냐는 인사말이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과 부처님이 안부를 전하는 장면도 나온다. 여기에 고도의 상징적인 뜻이 함축된 법화삼매(法華三昧)와 법화참법(法華懺法)의 의미가 깃들어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지계는 깨달음과 곧바로 연결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㉑ 불성계(佛性戒)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인 듯한데, 뉴스를 보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끔찍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분노할 때, 누군가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수긍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와 그 사람의 본성은 선한 것일까, 악한 것일까?

이런 의문에 대해 인도 대승불교에서는 학파마다 그 입장을 달리하지만, 동아시아불교에서는 여래장 계통 경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모든 중생에게는 여래장 또는 불성이 있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극악무도한 사람일지라도 그 본성은 부처와 다르지 않아서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한다.

특히 중기 대승경전으로 분류되는 〈열반경(涅槃經)〉은 인도보다 중국에서 널리 유행했으며, 중국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가장 먼저 한역된 것은 한인 승려인 법현(法顯)의 〈대반니원경〉 6권이다. 이어서 인도 출신 승려인 담무참에 의해 〈대반열반경〉 40권이 한역되었다. 이후에 두 번역본을 종합하여 다시 편집한 것이 혜엄 등의 〈대반열반경〉 36권이다. 통상 담무참의 번역본을 북본(北本)이라고 하며, 혜엄 등의 편집본을 남본(南本)이라고 한다. 어떤 본(本)에 의하든지, 이 경전의 핵심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경전의 보살계를 '불성계(佛性戒)'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래성품(如來性品)'에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계를 지킨 후에야 볼 수 있으며, 불성을 봄으로써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이룰 수 있다고 설한다. 다시 말해 계를 지키는 것은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또 '수명품(壽命品)'에서는 다른 초기 대승경전과 마찬가지로 십선도(十善道)를 설하며, '사자후보살품'에서는 십선법(十善法)을 수습(修習)할 것을 설한다. 한편 '성행품(聖行品)'에서는 범행(梵行)을 닦는 출가 보살을 재가 보살보다 우위에 두기도 한다.

이처럼 보살이 지녀야 할 계에 대한 설명이 여러 품에 산발적으로 보이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성행품'에 나오는 분류이다. 우선 보살계를 수세교계(受世教戒)와 득정법계(得正法戒)로 나눈다. 후자에 대해서는 보살이 이를 받으면 끝내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전자에 대해서는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한 연후에 얻는다고 하는데, 이는 수계 의식과 관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갈마는 합의로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그 내용을 대중에게 한 번 알리고 세 번 가부(可否)를 묻는 절차이다. 이전에는 구족계를 주거나 무거운 죄를 처벌할 때에 행했는데, 이를 보살계에도 적용한 것이다.

다음으로 보살계를 성중계(性重戒)와 식세기혐계(息世譏嫌戒)로 나눈다. 전자는 본질적인 죄에 대한 계인 성계(性戒)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계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중금계(四重禁戒), 즉 생명을 죽이는 것[殺生], 도둑질[偸盜], 음란한 일[婬事], 거짓말[妄語]을 금지한다. 후자는 행위 그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세간에서 혐오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제정된 계이다. 다시 말해 후자는 차계(遮戒)라고 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가벼운 계인 경계(輕戒)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40가지 항목이며, 이는 당시 사회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항목은 음식과 관련된 것인데, 이전에 금지되지 않았던 육식(肉食)과 오신채(五辛菜)가 여기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㉑ 삼베옷

옷감으로 이용된 대마

필자는 가끔씩 인도 동북부 시골마을의 길변에서 대마밭을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동북부의 많은 지역은 대마 이용이 합법이지만 집 앞 텃밭에 기르고 있는 것이 특이했다. 말인즉, 유채처럼 어릴 때 잘라내어 데친 후에 볶아먹으면 꽤 찬거리로 좋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필자의 경험치 안에서 대마는 늘 질기고 거친 식물이었다. 필자의 외가에는 아직 수십 년 전에 베어 말려놓은 대마줄기 다발이 아직 조금도 삭지 않은 채 헛간 시렁에 매달려있는데, 과거 어른들은 이 대마를 쪄서 말린 후 얇은 속껍질을 벗겨내 실을 짓고 삼베옷을 해 입었다. 한국이나 인도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 대마는 약용뿐 아니라 옷이나 끈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했다. 질긴 섬유질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중요한 옷감의 재료였다. 인도에서도 대마가 수행자들의 옷감으로 등장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나 지금도 대마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도 빠뜨나 지역은 석가모니가 활약한 무대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삼베는 꽤나 익숙했던 옷감이었을 것이다.

고대 인도에서 대마는 샤나(Śaṇa)라고 불렀다. 샤나는 아타르바(Atharva) 베다나 샤따빠타(Śathapatha) 브라흐마나 문헌과 같이 베다 문헌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꽤 일찍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방가(Bhaṅgā)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초기 힌두교에서 주술이나 의례용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에도 인도에서 '방가' 혹은 '방'이라고 하면 환각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후대에는 샤나라고 부르는 경향이 더 많았지만, 혹자는 샤나와 방가가 서로 다른 마(痲)의 종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베다시대에는 대마로 옷을 지어 입기보다는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난다. 즉 대마끈에 기름을 묻혀 적을 생포하기 위한 주술적 의례에 사용했다. 그렇지만 옷을 위한 용도로 대마를 길렀던 기록도 존재한다.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따에는 옷을 만들기 위해 대마를 키웠다는 기록이 있으며 라마야나에는 대마로 만든 옷, 샤나발깔라(Śaṇavalkala)가 등장한다.

불교문헌에서는 삼베옷을 '샤나로 짠 직물'이라는 뜻으로 사니야(Saṇiya 또는 샤니야)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하나다숫따(Sīhanādasutta)에는 고행자들이 입는 옷의 한 가지로 이 샤나로 짠 옷감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샤나와 다른 실을 섞어서 만든 합성섬유의 옷들도 등장한다. 고대 바라문 학생들의 옷은 이 삼베옷을 입어야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종교를 떠나서 모든 고대 인도인들에게 익숙한 옷감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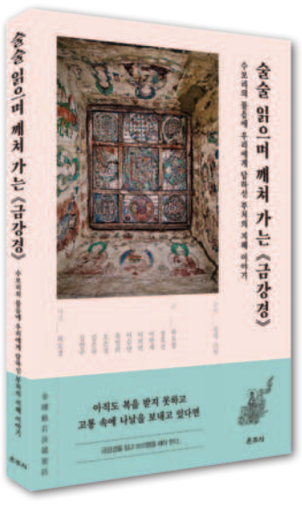
그런데, 이런 옷감은 아마도 현재 우리가 입는 삼베옷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삼베옷 제작공정의 번거로움과 수고를 생각하면 고행자들에게는 당연히 사치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대마를 쪄서 다시 말리고 불리기를 반복한 다음 속껍질을 터서 곱게 실을 짓고 길쌈을 하는 과정을 거쳤을지 의문이다. 아마도 대마의 속껍질을 거칠게 타개서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고행으로 유명한 자이나(Jaina)교의 문헌에서도 이 옷감의 사용을 인정했을 정도면 그렇게 사치스럽게 제작된 옷감이 아닐 수 있다. 당시의 삼베옷은 현재와는 많이 다른 질감의 것이었을 수도 있다. 자이나교 승려들 사이에서도 이 샤니야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대마를 키웠던 농부들은 이 샤나를 이용해 도띠(dhoṭī- 한 장의 천으로 된 남성하의)를 짜서 입었다고 하는데, 당시 수행자들이나 일반인들 모두 이 옷감을 사용할 정도로 대중적이며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마와 비슷한 식물이 함께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흔히 황마(黃痲)라는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빳(Pāṭ)'이라 불렀는데 이를 이용해 짠 옷감이나 기타 섬유직물을 '빳따'로 불렀다. 아마도 고급면직물이나 실크 등도 사용되었을 것이나 이것들이 대중화되기 전까지 이러한 옷감들이 더 널리 유통되고 있었을 것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불자와 이웃종교인들이 함께 만든 금강경!

술술 읽으며 깨쳐 가는 금강경



복잡한 해설 없이 경문을 읽어 가며
이해하고 깨우치는 특별한 책!

- 9명의 역자가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세존과 수보리 장자의 대화를 현대적인 언어로, 우리말의 맛과 멋을 살려 번역하였다.
- 독자들의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히말라야 문화권의 풍광과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사진을 함께 수록하였다.

하도겸 정호선 이한세 이외련 이승만 유영희 오은정 김은하 김연주 저
신국판 변형/무선/264쪽/값 16,000원

육조혜능의 본음에 가깝게 살아난 육조단경!

4본대조 돈황본 육조단경 정본역주

『육조단경』의 원음을 살리기 위해
정본화定本化한 세계 최초의 작업!



- 육조단경의 다양한 판본 중 가장 고층에 속하는 '돈황본'의 4종의 이본을 철저히 교감하여 원텍스트에 가장 가깝게 재구성하였다!
- 한문학, 불교학, 사학, 철학 등 각 분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수불스님이 감수를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조영미 최연식 김종욱 김천학 박인석 정본역주/수불 감수
국판 변형/양장/344쪽/값 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43호 | 17 | 전면광고

마음은 쉬지 않고 나무 사이를 타고 다니는 원숭이와 같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고 항복 받아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법당,신당,무료철거

퇴송의식
스님 항시 대기

모시던 부처님 어려운 스님들께 이운시켜 드립니다

세계불교 지장종 종정 운산 합장
(폐기물 처리비, 소각비만 받습니다)

010-2395-3333

수강생 모집

명리학기초부터
길흉판단 · 작명
단시일내

* 삼송정사 *
010-9323-5693

요양원에 끌려가기 싫은 분

❖ 노인끼리 뭉치면 행복, 흩어지면 불행
❖ 건강, 주거정보 공유, 전국 70세 이상
❖ 남녀 회원 접수, 미래를 아는 사람

부부 문제와 신경성 질환

❖ 의처증, 의부증, 우울증의 제증상
❖ 심리학, 철학, 한의학의 심리치유

출장상담교육 010-4078-7810

★검 색★

G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신비한 약수! 맑은 공기! 조용한 산책로! 기도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싶으신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 보광스님 합장 -

파주읍 향양2리 산 39번지
전철 문산역 하차 10분 거리

010-4069-5315
02-449-5315

스님을 찾습니다.

안양, 대의왕사에서 수행하신 "법안스님"이 "법담스님"을 찾으오니 연락 주십시오.

일본 +81-70-2168-8257
한국 010 -5690-7822

❖ 天文神功 ❖

• 백여원 저자 직접전수 •
• 최다목록 무료 검색 •

Daum Cafe.daum.net/yokhak 역학대통령 ▼ 역학수상 동방진인비결

02-907-5858 장애스님 무료 전수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가 피

손에 잡히는 기도법을 전수 (승려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易(역) 수강생 모집

•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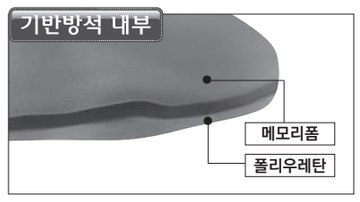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43호 | 18 | 전면광고

항상 젊고 형상이 변해짐이 없게 하며
불가한 바를 마음에 집착하지 않게 하며
죽음이 닥쳐올 때에 뭇 두려움이 없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경기
◎부지 : 5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26억
◎위치 : 대전서구포교당
◎면적 : 35평
◎보증금1000/30만원
◎시설비1000조정가
◎APT상가, 포교용이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 : 335평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납골당 5000개 가능
●가액 : 12억(가격절충)

010-5421-1536

전통 암자 안내

●위치 : 충북 괴산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학교, 시장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단청, 공원같은곳(종교용지 900평)
●은행대출 1억5천안고, 2억4천5백만 합계 3억9천5백만(공원같은곳)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010-3535-7906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진주시내
●대지:100평 ●건물: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부처님 진신사리3과(기증) ●가액:2억8천만원(대출6천만원 포함)절충가능 ●전.월세가능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807-0509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찰(급)안내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 5천그루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산청군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청정토굴 안내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남면 온천리514
●대지 85평
●법당 16평, 요사채 12평
●가액 : 6천5백만원
●오염되지않은 청정도량
●개인사정상 양도함

010-4911-4570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사천시 곤양면 와티길 212, 총평수 대략500평
●바다가보이고 넓은잔디밭에 조경 잘되어있음, 대웅전, 요사채2층
●사천읍15분거리 축동IC 5분거리
●매매가 4억, 대출 1억가능
●월.전세 문의불문 꼭사실분만 전화 (사찰구입시 몸만오시면됨)

010-5430-4672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대지 230 평
●법당 20평, 산신각, 공양간, 찻방, 아담한 산밑자락
●가액: 3억(대출5천만원) 절충가능

010-9389-7457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체(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활상환 가능)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절충가)

주인직접 010-4225-0012

15년 기반 포교원 안내

●위치 :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대전역 인접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 60평
●2층건물, 옥상 60평 사용
●보증금 1000만, 월세 50만원
●일체 인수 가능하신 분

010-3452-1123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가액 : 11억

010-4547-0023

포 교 원 할 분

●위치 : 서울 강서 화곡동 시장 옆 30평, 조상천도제 실력자
●보 500만, 월 50만 코너남향
●공양주, 부전 할분, 쓸분 법당 철거, 폐기물 처리
●결혼할 분 전화하세요.
●남(45세)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 소유
●회사대표, 1m80(서울거주)

010-5381-1419

인 천 사 찰 안 내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건물 : 지하1층:창고형, 1층: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방3, 화장실, 3층: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가액 : 3억 5천 (시세이하, 급양도함, 사찰연력 40여년)
●답사 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 찰 (급) 안 내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대지 84평 / 국유지 70평(사용가) 법당 / 요사채 76평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불화등)
●가액 12억

010-6325-5112

사 찰 안 내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가액 : 5억(절충가능)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 전망좋은 사찰
●대지 : 280평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
●많은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가액 : 10억 5천만원

010-3296-1023

기도 도량 안내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체, 공양간
●가액 : 4억(협의가능)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지리산 명당터 안내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소재
●지리산 웅석봉 아래 백두대간 정혈 큰터
●청계호수를 바라보는 정남향 절경
●대지 종교부지 전 임야 총 16,000평
●택지개발 3000평 분할매도 가능
●건물 36평 2동 8평 2동
●답사 상담 협의 후 가격결정

010-4752-0459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법당 7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가격절충)

010-9015-4040
010-2077-7820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석가원의 주존



석가원의 주존으로 천고뇌은여래와 동체로 보고, 천고뇌음여래는 일체 번뇌를 끊어서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고, 석가여래로 본다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설법하시어 중생을 제도하는 그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붉은 옷을 입은 것은 붉은색으로 자비심을 나타내고 중생제도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불자를 들고 있는 것은 번뇌를 털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석가여래의 무외자재한 관찰력을 지니고 있으며, 허공장보살의 연화 위의 보주는 석가여래의 광대한 지덕과 복덕을 의미하며, 무능성명왕과, 비는 석존이 보리수 아래서 성도할 때 방해하는 마왕을 항복시켜 석존의 분신 역할을 하였으며, 분노신으로서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⑪ 뇌병변장애 김영관씨

교통사고로 바뀐 삶, 108배로 극복



아름다운 청년이란 별명을 가진 김영관 씨.

장애불자에게 있어 참된 수행이란 무엇인가 물을 때가 있다. 중증장애인들은 아침마다 광명진언을 외우는 것, 불교 언론에서 법문을 듣거나 기사를 찾아보는 것, 일상에서 오계를 잘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큰 수행이라고 말을 해주곤 한다. 때로 그 말은 공허한 말이 될 수 있고 장애에 따라 실질적으로 실천이 어려운 면도 많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수행법을 찾아 수행 정진하고 있다.

뇌병변장애인으로 아름다운 청년이란 별명을 가진 김영관 씨는 새벽과 직장 근무를 마친 후 108배를 한다. 군생활 중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해 온 108배 수행이다.

어릴 적부터 계절 알레르기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가고 학교도 자주 결석하곤 했던 영관 씨는 작은고모 따라 망월사에 처음 갔었다. 어린 영관 씨에게 망월사는 웅장하고 모든 것이 신기하고 편안하고 좋았다고 한다. 특히 절밥과 스님께서 주시는 다과도 너무 달고 맛있었는데 그것이 바탕이 되고 고등학교 때 본 요리 프로그램이 동기부여가 돼서 요리사라는 꿈을 키웠다. 그리고 그는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도 호텔조리학과에 진학했다. 공부를 핑계로 군입대까지 놀기도 했으며 군대 훈련병 시절에는 교회에 가면 초코파이를 더 준다는 동기들 말에 교회에도 갔었다는 추억담을 말해주기도 했다.

영관 씨는 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왔다가 교통사고로 뇌병변장애인이 되었다. 힘겹고 방황했던 그 시절 영관 씨를 지켜준 것은 108배였다. 처음에는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손으로 땅 짚기가 어려워 수없이 꼬꾸라졌지만, 서서히 몸이 유연해지고 절하는 횟수가 늘어갔다. 꾸준히 108배를 하는 아들을 지켜보던 영관 씨 어머니의 권유로 사경 기도를 함께 시작해 관세음보살 보문품과 법화경 사경에도 전념했다. 그러면서 천안 구룡사 스님 등 여러 스님들과도 연이 닿아 수행에 도움을 받으며 절과 사경기도를 계속하였다. 한편으로 서울로 지하철을 혼자서 타고 다니며 침 치료를 하는 등 재활치료에도 집중했다.

사회 재활을 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던 영관 씨는 승가대에 재학 중이던 범종 스님과 보리수아래에 나오게 되었다. 1박 2일의 낙산사 템플스테이 참여를 시작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영관 씨는 모임에 나오면 혹시라도 다른 회원들에게 실수나 실례가 되는 행동을 했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 교통사고로 뇌를 다치고 난 이후부터 낯선 곳에 가면 불안과 초조함이 심해지고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거친 언어와 행동들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기도 하여 그것으로 하여 사회생활에 힘든 경험이 많던 영관 씨에게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영관 씨는 자신의 걱정과는 달리 낮은 톤의 친절한 목소리로 회원들을 대하며 먼저 필요한 것들은 먼저 살펴서 회원들이 아름다운 청년으로 별명을 부르게 되었다.

2017년 보리수아래 미얀마와 아시아장애인공동시집이 출간되고 책 전달을 겸한 성지순례 길에 동참하였었다. 태어나 해외여행이 처음이기에 긴장도 많이 했던 미얀마 성지순례를 다녀와 이런 말을 했다.

"왜 이렇게 조급하게 살고 있었는지요?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며 행동하면 실수도 줄고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부처님의 나라, 그리고 가피에 대해서도 새롭게 느꼈습니다. 어느덧 기도는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히 하는 것이 되었고 오히려 못하는 날은 왠지 허전해하는 나를 보았습니다"

2018년에 대만불교문화순례에서 불광산사와 불타기념관의 대만 사람들 앞에서 했던 보리수아래 작은 음악회 참여는 영관 씨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베트남과 장애시인들과 아시아장애인공동시집에 자신의 시가 실리고 2020년에는 첫 개인시집 〈시에는 답이 없어 좋다〉를 출간했다. 중증장애불자들 각자마다 능력과 소질에 맞게 키워주고 신행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방편으로 시작한 보리수아래 감성시집 네 번째 시집이다. 그리고 재택근무로 직장생활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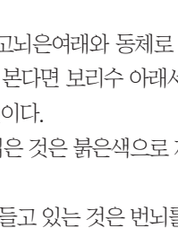
영관 씨에게 좋은 인연의 시작은 부처님의 법이었으며 108배와 사경 기도를 하면서 몸은 점점 좋아지고 사경 기도를 하면서 마음과 일상이 안정되었다. 영관 씨는 자신의 어려웠던 삶을 평범한 사람 같으면 꿈에도 못 꿀 롤러코스터를 탄 듯했다고 표현한다. 이제 불자로 예술인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혼자서는 쉽게 행동에 옮기거나 이루지 못했을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말했다.

"교통사고로 다친 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힘들어지고 사람들과의 소통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통제가 안 되던 자신이 무서웠던 시절을 지나, 다시 사람들과 즐겁게 웃으며 그 자리에 함께 어울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언제나 부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를 잡아주셨어요. 불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이 행복하고 앞으로 더 수행 정진해야겠다는 다짐을 늘 하곤 합니다"

영관 씨는 수행에 장애와 비장애 구분을 하지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108배와 사경기도를 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써갈 것이라 웃는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보륜정사
• 주 지 : 보 륜 (김영호)
• 주 소 : 경남 김해시 상방동 781-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AIR BLASTING
BY WOOD POWDER
에어대패 鉋
목분(木粉)을 이용한
신기술 건식공법!

※ 목구조 건축물 복원의 신기술 "우드(목분)공법"은 원형복원과 목재의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특화개발된 신공법입니다
※ 문화재, 사찰, 단청, 한옥, 목구조물, 조경시설물, 특수건축물, 금속이나 비금속, 수지, 석재 등의 소재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천년옻칠 漆
천연 옻나무에서 추출한
친환경 인증 천년옻칠

※ 해충으로 부터 보호합니다 (방충, 방의, 방부)
※ 목재의 크랙 및 변색방지 (방수성/방오성)
※ 목재의 고유한색상을 더욱아름답게 유지합니다.
※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통기성)

동화특수산업(주)
031-451-6232 / 010-3747-2111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서울 범패 1기생 : 교육과정 1년 ❖

사물다루는 법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시식
천도의식
천도재,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각종 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

❊ 개강일시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교육원장 : 대광스님) ※경우에 따라 요일 변경
❊ 자 격 : 승, 속 관계없음
❊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 설법전 (경북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302번지 (모서별봉길 52-33))
❊ 수 업 료 : 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 연 락 처 : 054-762-5888 (종무원)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11 지두 크리슈나무리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 **한줄 요약**
명상을 통해 삶의 전체를 관조하고 생의 즐거움을 오롯이 즐기자



강박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지두 크리슈나무르티(J. Krishnamurti)는…

1895년 남인도 출생. 열세 살 때 신지학회에 의해 발탁되어, 동서양을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그리스도인 '세계의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별의 교단'을 세워 그를 추종하는 모임을 만들었으나 그는 메시아적인 이미지를 단호히 거부하고 어느 날 극적으로 단체를 해체하였다.

진리는 '길 없는 길'이어서 정형화된 종교나 철학이나 종파로는 접근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떠맡기려는 구루의 지위를 단연코 거부하였다. 1986년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뜰 때까지 강연을 계속하였으며, 〈자기로부터의 혁명〉, 〈시간도 없는 공간 속에서〉, 〈자연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관계에 대하여〉 등 수백 권의 저서가 있다.



경쟁과 성과에 대한 집착
인생의 즐거움 잃는 원인
내려놓는 용기 필요한 때

좀비,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웜바디스〉라는 영화에는, 아름다운 인간 소녀와 사랑을 하게 된 좀비가 등장한다. 주인공 좀비는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른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폐허가 된 공항에서 막연히 뭔가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비척비척 정처 없이 헤매기만 하던 주인공 좀비는, 우연히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고, 그때부터 차갑게 식어 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영화는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좀비가 거꾸로 인간을 깨우쳐 가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좀비란 '살아 있는 시체'이고, '인간에게서 영혼을 뽑아낸 존재'이며, '기억과 의지가 삭제된 인간'이다. 소설과 영화 등의 대중매체에 좀비가 줄줄이 등장한 이래로, '주체성이 결핍되어 자발적 생각이 없는 인간'을 가리켜 '좀비 같다'는 비유가 생겨나기도 했다.

〈웜바디스〉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보다 더 진화된 인간종족이 있다면, 그 종족들은 우리 지구인들을 보면서 우리를 좀비처럼 생각하지는 않을까?

'저것들 좀 봐, 재들은 말이야, 자기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대. 이런 깜깜이들!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들 잘난 척들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지? 우와, 저것들 좀 봐, 저마다 자기 잘났다고 차려입은 꼴들을 좀 보라구. 아무리 저 잘났다고 해 보았자 자기들이 가진 두뇌 능력의 5%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 아냐? 보물은 자기들 마음속 깊은 곳에다 감추어 놓고, 보물찾기 놀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자기를 숨겨 놓고 자기를 찾는 보물찾기 놀이.'

사실, 지구인의 절대 다수는 '물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포로가 되어 평생을 성과에 매달려 시간을 탕진해 버린다. 자기가 만든 감옥에 자기를 가두면서도 감옥에 갇힌 줄도 모르는 채 평생을 보내 버린다. 어떻게 해야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병

가장 시급한 것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각성하는 일이다. 이것이 어려운 까닭은 집단적으로 갇혀 있기 때문이다. 너도 나도 다 갇혀 있으니, 갇혀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향유하는 각자(覺者)가 많아져서 그들을 본보기 삼아 자극을 받아야 하지만, 소수인 각자가 오히려 '비정상'으로 손가락질을 받기 일쑤이다.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두려움이다. 직업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한 음식과 돈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웃과 대중이 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냐, 지위를 잃으면 어쩌나, 조롱당하고 경멸당하면 어쩌나, 고통과 병에 대한 두려움, 지배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배우자나 아이들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직면하기를 원치 않는 데에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직면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의 잣대에 맞추어 살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우리'와 '어떻게 되어야 하는 우리'를 비교한다. 그래서 더 돈이 많고, 더 훌륭한 사람, 더 머리 좋은 사람, 더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간다. '더 더 더'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고, 자신을 끝없이 채찍질한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을 배운다. 롤 모델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누군가를 모방하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비교와 경쟁을 함으로써 우리는 더 발전하려고 하고, 더 성숙하고자 하고, 더 이지적이고자 하며, 더 아름다워지려고 한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는 일이 될 수 있을까? 채우면 채울수록 진정한 나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된다는 것은 사실 무척 힘든 일이다. 반대로 세상에서 무언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신은 항상 자신을 꾸며서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복잡한 일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오랜 세월 선생들에 의해, 권위자들에 의해, 책과 성인들에 의해 마치 순가락으로 떠먹여지듯 양육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글에 의지하여 살고, 그들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포장하고는 그것을 정말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진리나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고정된' 무엇인가를 획득하려고 하지만, 진리나 깨달음은 고정된 무엇이 아니다. 진리는 살아 있는 것이며, 때문에 고정된 어떤 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란 살아 움직이는 것이어서 쉴 자리가 없다. 진리는 어떤 교회에도 없으며 어느 종교나 선생, 철학자 그 누구도 당신을 진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이 살아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크리슈나무리티는 말한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다. 당신이란 존재는 결코 한 결같지 않다. 순간마다 새로운 면모가 드러나고 새로운 깊이가 생긴다. 어느 한 순간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현명한 사람이라면, 남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나무나 꽃이나 사람을 본다고 말할 때, 우리는 정말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말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보는 것이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을 보면서도 자신이 지어 놓은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이어서, 어느 날 문득 사실은 그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지 않듯이,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 또한 내가 만든 관념의 틀 속에 그들을 가두어두기 일쑤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아무런 투사 없이, 내가 만든 창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존재하는 용기가 발휘될 때, '발가벗는 천진성'의 기쁨이 저절로 수반된다.

대다수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로 계속 점유되어 있기를 바라며,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는 비어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보기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들과 우리가 경험한 모든 불행한 기억들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 크리슈나무르티에게 있어서 고독이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나'라는 중심에서 떠나 온전히 침묵하는 것이다. 중심이 없으면 주변도 없는 고요 속에,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신비'만이 살아남아서 반짝거린다.

"완전한 자기포기와 함께 나무나 별 또는 반짝이는 강물을 보는 마음만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며, 우리가 정말로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상태에 있게 된다.…사랑은 새롭고, 신선하고, 살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다. 생각의 혼란 저편에 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천진한 마음뿐이며, 이 천진한 마음은 천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

명상에의 권유

살아 있으나 사실은 죽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 있기 위한 이 고독, 이 침묵, 이 고요, 이 사랑을 만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 명상은 나와 타자, 나와 세계의 분리가 끝나는 상태로서, 이는 의지나 욕망에서 비롯된 그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명상은 삶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본질, 바로 일상생활의 본질 자체이다. 농부가 아내와 함께 지나가면서 웃는 웃음소리를 듣는 것, 지나가는 소녀가 탄 자전거의 벨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명상이 열어 보이는 것은 삶의 전체이지 그 단편이 아니다."

그와 같은 명상 속에서만 사랑은 그 존재를 갖는다. 그때 사랑은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고, 스스로 길을 찾고, 스스로 충족한다. 그 사랑 속에서 행동할 때, 그 행동 속에는 아무런 후회도, 아무런 모순도, 인간의 비참과 수고로움,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크리슈나무르티는 권유한다. "그렇게 홀로 명상하라. 길을 잃어라.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가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 기억하려고 하면 죽은 것이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기억에 집착하면 결코 다시는 혼자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끝없는 고독 속에서, 그 사랑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 순진무구함 속에서, 그 새로움 속에서 명상하라."

〈작가〉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1.4kg 미숙아
호흡곤란에 구멍난 심장

삼야스가 건강해져 한국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어두운 앞날을 밝혀줄 작은 빛과 희망을 전해주세요.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후원신청전화 02-725-701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대행 스님

이 눈을 뜨고도 잘 줄 알아야 합니다

… 그리고 맛있는 줄 몰라요. 식빵도 큰 거 하나 사다 놓으면 그게 맛이 없지만 조그만 거 하나 사다 놓고 하나씩 별러 먹으면 참 맛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문을 듣는데도 항상 그냥 '아, 가면 듣는다.' 이걸로 끝나선 안 돼요.

우리는 음미해 볼 거 다 음미해 보고 체험할 거 다 체험하면서 안으로 굴리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놓았을 때, 과거심과 미래심과 현재심으로 모든 것이 귀합될 때 귀합된 한마음의 그 한 점이, '일심이 공해서 그것조차도 세울 게 없다.' 이 정도로 돼야 거기에서 참 생숫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아져야만이 자기를 이끌고 다니는 스승이 자기한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다루면서 또 바깥의 스승은 이렇게 설법을 해 주면 그걸 안으로 받아들여서 안으로 굴려서 또 둘이 아닌 것을 배우면서 자꾸 나투면서, 이렇게 체험하면서 또 자기한테 놓으면서 또 돌아가거든요.

처음에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했지만 나중에 나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 또 상대방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게끔 나투면서 또 돌아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부가 참, 우리가 날마다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들었으면 듣는 대로 날마다 생활하면서…. 또 여길 오더라도, 내가 안 봐도요,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디가, 허리가 구부러졌는지, 허리를 펴고 앉았는지, 다리가 저린지, 다리를 오그리고 앉았는지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알고 있는 대신에 나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앉아 있기만 하면 뭐, 수인 줄 아는데 그 마음 가짐가짐이 말이에요, 중구난방이에요. 요새 가만히 지켜보면 사람마다 중구난방이야. 이게 색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님이 설법을 안 했다, 스님이 없다, 이렇게 우리끼리만 앉았다' 하는 게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벌써 자기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자부처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 자부처라는 그 자체 한 점에 바로 스님네들의 마음과 역대 조사들의 마음과 모든 일체 사대성인들의 마음이 거기 포함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접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 봐야 지리를 알죠? 지리를 안다 하더라도 이 오선 줄이 한데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삼각원형을 이룰 수 있어야만이, 그것은 또 우리가 오광주를 얻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오광주를 한데 합쳐서 여의주라고도 해요. 그런다면 그거를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접근해서 우리가 나갈 때, 요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도 요 물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의 질(質)이 어떤지, 물이라는 것도 알고 컵이라는 것도 알고, 이게 독약이 섞였는지 맑은 물인지 이것도 알아야 하고, 이 물의 생리도 알아야 하고 생명, 말, 뜻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요. 어디서 온 것도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눈 간 데 귀가 가고 귀 간 데 몸도 가고 코도 가고 혀도 가고 다 통신이 가서 이것 하나를 들 수 있는 거거든.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럼 한 가지만, 보기만 해도 이건 도가 아니다 이거야,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벌써 직감적으로 '아, 여기 이 산의, 이 땅의 혈맥이….' 이러면 벌써 거기 땅속 깊이까지도 전부 나와 있어, 동시에. 그러면 그걸 알기만 해서가 아니거든. 그 땅이, 즉 생명이 있어서 같이 말할 수 있고 서로 통신이 될 수 있어야만 돼요. 그 땅 질의 역량이 얼마나 있나, 그것도 알 수 있어야 하고. 그건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오면서 '네가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 아는 거나 똑같아. 이 땅질이나 돌 질이나 이런 문제들도 깔축없어. 그렇기 때문에 땅을 보는 순간순간이 한 찰나에, 한 찰나에 보는 순간에 오신통이 다 동시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만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보는 데도 쫓아서 같이 들어가고 듣는 데도 쫓아서 같이 들어가고. 사람과도 그렇지마는 생물도 그렇고, 어떠한 미생물도 그렇고, 어떠한 무정물도 그렇고 우주의 어떠한 생명질 항성, 행성, 또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인공위성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알고 기계의 모든 것을…, 이 인간이 복잡하게 기계화되어 있는 것처럼 됐듯이 기계도 아주 세밀하거든. 이 인체의 모든 세포가 아주 그냥 뭐, 이 두뇌만 하더라도 말도 못 하지 않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기계를 하나 만들어도. 그럼 그게 줄 하나만 잘못되고 혼선이 돼도 그건 통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묘해요. 인간이 얼마나 묘하기에, 묘하고 광대무변한 만법의 근원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로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사람이.

그런데 지금 저 위성이나 항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인간의 두뇌가 그만큼 본래 그렇게 만법의 근원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로만이라도 책정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 거는 물질 그 자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 초에 의해서, 한 시간을 초로 잡을 수도 있고 초를 한 시간으로 잡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공이 없는, 속도가 빠른 그러한, 즉 말하자면 속도가 빠르다 못해 아예 그냥 이렇게 놓여 있듯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문제들도 인간이 다 가지고 있다 이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쓰고 있는 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비유를 하건대 우리가 살림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자지 못하는 시간도 있어요, 잠이 안 와서.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오늘은 잠이 안 오니까 잠을 못 자는구나. 아유, 두 시간밖에 못 잤어. 세 시간밖에 못 잤어.' 요렇게 생각들을 하거든. 그러면 그거밖에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시간을 못 잤다고 하더라도 일 초로 정해 놓으면 한 시간이면 일 초가 얼마나 많아요? 네? 얼마나 오래 잤어요? 이해 안 가요? 한 시간을 일 초로 잡았다면 일 분만 자도 몇 시간입니까? 60시간이죠? 허허허, 보세요.

그러니까 늦게 가는 거, 속도가 빨리 가는 것, 비행기를 타면 속도가 빨리 가는데 여기는 마차를 타고 간다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같아요, 위에서 볼 때. 허허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인간 이 자체가 1시간, 24시간 뭐, 이러고 가만히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이건 늙는 거예요. 빨리 늙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늙지 않죠? 왜 마음은 늙지 않을까요? 외려 철이 들고 늙지 않을까요? 마음은 빨리 돌아가고 육신은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허허허….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설법을 듣는 대로 그냥 무단히 넘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젊음을 소중하게 갖는 것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어느 정도는요. 다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건강하고 젊음을 갖출 수 있다 이러는 거는 한 시간을 일 초로 잡아서 자도 그것은 해롭지 않다. 또 잡아서 자는 게 아니라 아예 시간 탓도 하지 말고, 자게 되면 자고 안 자게 되면 안 자고 그래도 벌써 그 도리를 알고 그렇게 하면요, 그냥 한 시간을 자도 한 댓 시간 잔 거는 되거든요. 굳이 뭘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눈이 시글시글할 때가 있어요. 아주 정신은 말짱하고 잠을 안 잤어도 괜찮은데, 건강도 좋고 다 좋은데 눈이 시글시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다면 이것은, 즉 말하자면 눈이 게을러서 같이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고도 잘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눈을 뜨고도 잘 줄 알아야 된다.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자야 하고 눈을 뜨고도 잘 줄 알아야 한다. 이거 어렵게 들으시면 어렵지마는 우리가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꾸 체험을 해 보고 해 보고 하면 능숙하게 되죠. 왜, 보리밥 못 먹는다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먹어 보면 보리밥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듯이 말이에요.

서산 대사가 사명 대사더러 솔 이파리 찐 물에다가 날콩을 찧어 가지고 그 물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설사를 하고 하나는 된똥을 누거든요. "왜 나는 된똥을 누는데 너는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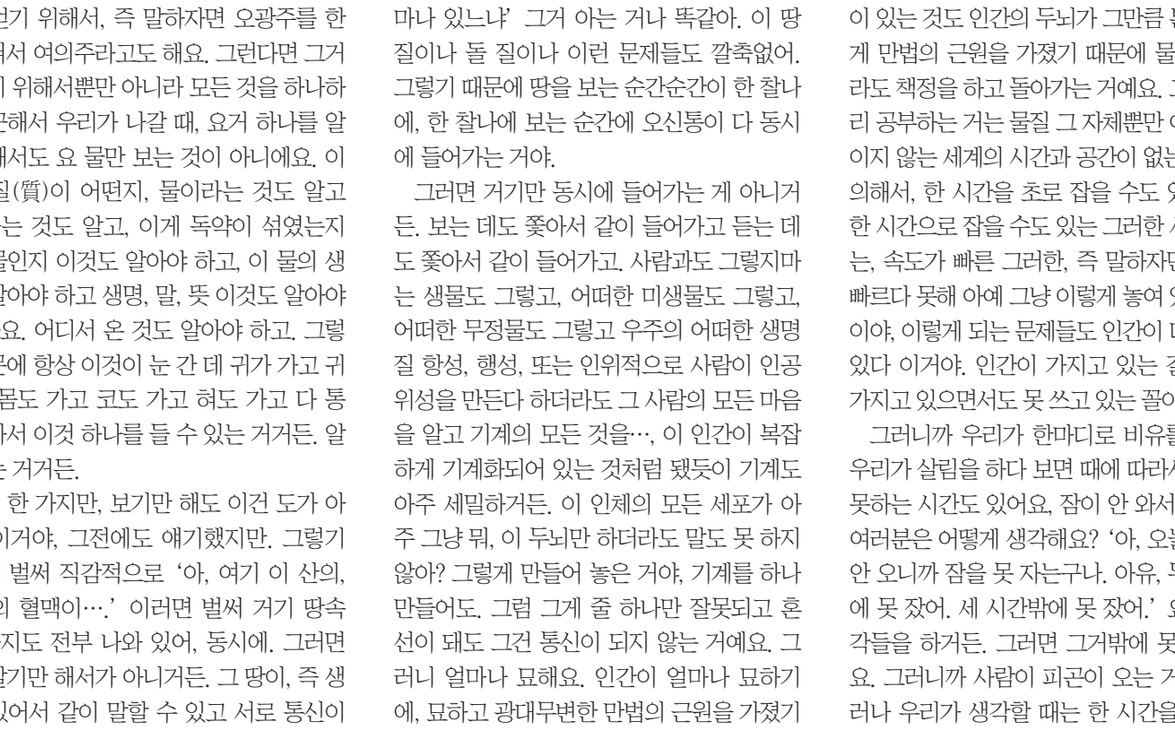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얘기만 듣고 휙 날려버리지 말고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두세요

☞ 21면에서 계속

설사를 하느냐.” 이거야. 그것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요것이 우리가 물질만 보고, 색만 보고 나간다면 시간율을 생각하고 하루 사는 거, 뭐, 한 달이다 두 달이다 얼마다 계산을 하고 사니까 느릴 수밖에. 그냥 시간과 공간이 없이 그냥 차칵차칵 돌아가는데 이놈의 거는 그렇게 게으르게 시간 따지고 뭐 따지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한 달이고 일 년이고 이렇게 따지니까 나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은 못 따라가는 거야, 거기를.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때 못 자고 좀 그렇더라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간의 삶을 보람 있게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실천에 옮겨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실천에 옮겨 보시도록 하는데에 역점을 둬야지, 항상 얘기만 듣고선 휙 날려 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단 한 가지라도 자기가 실천에 옮겨 보세요. 실험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단 한 가지라도 이 마음에다가 꼭 들이고 낸다는 거, 그거 항상 얘기해서 아시죠? 그거를 일 초 일 분도 떠나지 않으셔야 나중에는 ‘아, 떠나나 떠나지 않으나 그냥 항상 그대로 있구나!’ 이게 나오죠. 처음에야 딱 그걸 붙들어야지, 언제나 그걸 붙들지 않고 됩니까?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땅에 묘향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말입니다, 묘향산 그 자체 내에 비구 절간도 큰 절간이 있지마는 그 산등성이 너머는 비구니 절이 큰 절이 있었답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 비구니 절에서도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또 비구 절에서도 농사를 지었답니다. 농사를 짓는데 어느 해는 가물이 들었거든요. 가물이 들어서, 물이 이렇게 두 줄기로 이쪽에서 내려오고 저쪽에서 내려오는데 이쪽 논에다 받으려고 큰 구덩이를 이렇게 파 놓고 항상 물이 내려오면 거기서 쓰는데 아, 이쪽에도 구덩이가 있고 저쪽에도 구덩이가 있는데 가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 조금씩 내려오는 걸 갖다가 비구들은 자기네 구덩이에다 다 받아서 인제 모는 심었는데 이쪽 비구니 논에는 물을 주지를 않아서 그냥 논에 모를 못 심었거든.

그러니 비구니가 비구들하고, 옛날에는, 지금은 동등하다고 나서지마는 옛날에야 그저 댓 살 먹은 애를 보고도 오체투지하고 덤벼야 할 이런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율은 지켜야겠고 그러니까 말도 못 하고 있다가 스님더러 가서 얘길 했어요. 거기 혜봉 스님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아주 유명했답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 스님이 나같이 못생긴 모양이에요. 못생기긴 못생겼는데 아주 상당히 유력했던 모양이죠.

하도 그 제자들이 딱하니까 “스님, 스님! 올해는 농사를 못 짓겠으니 어떡합니까?” 하니까 “왜 못 짓느냐? 이유가 뭐냐?” 하니까 “비구 스님들이 전부 물을 그리로 해도 그것도 적어서 비구 스님들도 논에 모를 다 못 낼 지경이니까 그냥 아예 이리로 들어오는 물을 막았습니다.” 이거야. “그러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소리는 들은 둥 만 둥 하면서 껄껄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 내가 거문고를 튕기니까 말이다, 아, 저 왜, 넓다란 뱀 있지? 그 뱀들이 그냥 전부 지금 고개를 들고 우리를 쳐다보는구나. 산천초목의 모든 만물이 저렇게, 푸름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즐겨서 웃는데 저, 저거 봐라, 저거 봐.” 하거든. “응, 거문고를 한번 튕기니까 그 거문고 소리를 듣고 저렇게 모두 쳐다보는구나. 그러니 저렇게 모두 모이는구나.” 하거든. 그래 놓고선 또 시치미 뚝 따는 거라, 이놈의 중이.

그러니 그 제자들은 그냥 발버둥이가 쳐지는 거야. 한 해 농사를 짓지 못하면 못 먹는데. 식구가 다 굶어 죽을 텐데. 그러니까 “스님! 스님!” 그러는데 그 도리를 아나? “스님! 아, 농사를 못 짓는다는데 웬 거문고는요?” 하니까 “얘야, 거문고 줄이 늦춰져서도 아니 되고 너무 옹쳐져서도 아니 되느니라. 그러니 튕기기 좋을 만하게 알맞아야 튕기는 소리가 아주 청묘하게 나느니라.” 아, 이러곤 또 고만이라. 그래 고만이니 또 어떡하나. 그날 저녁에 공양을 다하고 난 뒤에 또 들어가서 “스님,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내일 아침에 일찌감치 가 보려무나.” 그러거든.

아, 그래서 아침에 비구니들 서넛이 내려가서 보니까 그 구덩이에 그냥 가득하게 물이 차면서 논에 물이 찼거든. 너무 놀란 거야, 응? 이 비구니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 뜻을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살았더니 스님의 뜻이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세상에, 거문고 소리 하나에 모두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물을 준 원인도, 바로 이 물도 스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그 물로다가 그냥 뭐, 농사 금방 짓게 됐지.

그러니까 비구 절에서 그 물이 어디서 그렇게 생겼느냐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스님네들은 그 뜻은 자세히 모르나 그대로 우리 스님이 거문고 한번 탁 튕기는 바람에 이 물이 나왔다 이거야. 하하, 참 재밌죠? 거문고 한 번 탁 튀는 바람에 그냥 속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비구 절에서도 참 신기한 거라. 그러나 그걸 믿어 주질 않아. 믿지는 않는데, 도대체 자기네들은 논 몇 마지기를 못 심고 있는데 벌써 여기 이 비구니들 절 논에는 다 심고도 물이 찰찰 넘거든. 그러니 어떻게 됐어? 그래서 거기 원주가 그 스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 비구니 스님을 한번 만나 봐라.” 그래서 만나 뵙고 나서 거기의 비구들 절 웅덩이에도 물이 그냥 철철 고이고 그때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하고 농사를 잘 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비구니 얘기는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놈의 게. 비구 얘기들만 있지. 응?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아, 저희 어머니 얘길 안 해 놔? 저희 아버지 얘기만 해 놓고. 하하하…. 그러니까 참 유명한, 예전에도 비구니 스님들도 유명한 큰스님들이 많았답니다. 일연 스님이나 뭐, 혜봉 스님 같은 분들 또 실제 스님 같은 분들, 그냥 하고많은 이름인데 다 잊어버렸지마는 많은 스님들이, 유명한 스님네들이 많았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비구니들이 아니었더라면 비구들이 큰일을 해내지 못했을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 큰일을 해내는 데는 비구니들이 뒤에서 다 뒷받침을 해 줬거든. 수없이 뒷받침을 해 줬습니다. 나라에 어떤 공헌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도, 고려 때 문제도, 팔만대장경 문제도 그렇고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래도 비구니 스님들이 꼭 나서서 뒷면에서, 앞에 세우는 거는 비구 스님네들 세우고 또 어떠한 사람을 세우지마는 뒷면에는 언제나 비구니 스님네들이 그 거름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보살이 돼서 내조를 하되, 바깥의 남편을 앞에 세우더라도 항상 내조가 거름이 돼서, 어머니가 돼 줄 때는 어머니가 돼 주고 딸이 돼 줄 때는 딸이 돼 주고 또 친구가 돼 줄 때에는 친구가 돼 주고 또는 동생이 돼 줄 땐 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애하고 어른하고 만나면 말이 안 통하죠. 그렇게 돼선 안 돼. 애를 만나면 내가 애가 돼 줘야 돼요. 어른을 만나면 어른이 돼 줘야 하고요.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우리 가정 기상대가 참 훌륭할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국의 기상대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그런 비 오는 기상대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에도 기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야, 착 보니까 벌써 기상대가 말이야, 기상이 쭈굴쭈굴해. 그냥 꾸물꾸물하고 검은 구름이 끼었어. 그럼 비 올 거거든, 그게. ‘아, 꾸물꾸물하구나. 이거 비 오기 직전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방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애들의 기상도 그렇고, 어른의 기상도 그렇고, 전체의 기상도 그렇고. 그럼 위에서 기상이 하나 나쁘면 아래까지거든. 한 부분만 비가 와도 그쪽은 다 꾸물꾸물하거든. 그러니까 활짝 개였나,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살필 게 어머니들로서 딱딱 들어가 맞게끔 해야죠. 우리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높게만 두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높은 사람은 얕은 사람을 위해서 심부름꾼입니다. 언제나 윗사람은 심부름꾼이지, 여북하면 부처님께서도 똥 친 막대기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체가 애들을 길러도 그 기상을 잘 봐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고 싶어도 좀 검은 구름이 끼었다면 “얘, 좀 쉬었다 해라.” 차라리 요렇게 해 주면 속으로 ‘아이, 쉴 사이가 어딨나. 해야지.’ 이러지마는 “얘! 얼굴 찌푸리고 있지 말고 공부나 좀 해라.” 이런다면 그거는 벌써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우산 쓰고 그냥 나갈 거야.” 이럭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가정의 기상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중요한 거, 남편의 기상대, 또는 애들, 어른, 자기, 뭐, 모든 게 그렇죠.

그런데 그 기상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몸뚱이에도 기상이 있거든요. 야, 요 간이 기상이 나쁘냐. 좀 꾸물꾸물하느냐. 그럼 거우가 또 꾸물꾸물하느냐. 옆구리가 결리느냐. 이마가 걸리느냐. 이게 다 기상이라고, 응? 통신 기상.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게, 하나를 알면 열 가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며 우리들의 법이면서도 이것이 여여한 도(道)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라는 이름이 도가 아니라 우리 생활 진리가 그대로 도로 승화해서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그게 도거든.

그리고 높은 것만 알고 높은 말만 제일이라고 하지 말고 얕은 것이 있기 때문에 높은 게 있고, 밥 한 숟가락이 있기 때문에 한 사발이 있지, 만약에 한 숟갈이 없다면 한 사발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 숟갈 양이나 한 사발 양이나 똑같아. 아까 얘기했죠? 이게 비행기로 가는 거나 마차로 가는 거나 이것은 어느 부분이 빨리 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본다면. 이게 빠르냐 이게 빠르냐 하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비행기가 빠르다고 할 테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데서는 이게 빠르다 이게 빠르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물질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럴 뿐이지, 우리 마음의 도리는 마음대로 빨리 갈 수도 있고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다는 그 점,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를 아신다면 능률이 많이 날 뿐 아니라 이 기상, 또는 이 몸의 기상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는…. (녹음 안됨)

모든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살다 보니까 ‘에이! 몸이 아프면 의욕이 없더라.’ 그런 것도 알고요, 그러니 그저 아프든 안 아프든 의욕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거는 기상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조금 시무룩하다가도 야, 시무룩할 게 뭐 있나요? 잘 방지하면 그것도 또다시 승화해서 헤헤 웃을걸요. 이 몸도 그러해요. 그러니까 우리 잘해 봅시다.

이런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올라가서 좌선들 하고 참선들 할 때도요, 모든 것은 여러분이 각자 자기의 차원에 따라서 가정에서 아프거나 뭘 하거나 안되는 일 뭐, 제가끔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거를 당신이 주인공 거기에 모든 거를 맡겨 놓고 관할할 수 있는 그거를 갖는다면 한 시간이 가도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앉음앉음이는 언제나 단 한 시간을 앉았다 할지라도…, 여러 시간을 앉았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앉아서, 여기에서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일 년, 이태 그만큼 노력 안 하고 공부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 그것도 영광이라 생각하고 참, 법당에서 그렇게 하실 때는 언제든지 나는, 여러분이 앉아 계시기만 하면 나는 여러분하고 언제나 좌석을 같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해서 우리 속도를 좀 더 빨리하는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총무 스님이 알선을 하고 내 뜻을 같이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줄 아시고요.

> **애를 만나면 내가 애가 돼 주고**
> **어른을 만나면 어른이 돼 주고**
>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 **우리 가정 기상대가 참 훌륭할 거예요.**

※위 법문은 1986년 6월 6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 현불 논단 |

휘둘리지 않는 삶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올해 상반기 화두 '가상 화폐'
이상투자 광풍에 우려 · 염려

일론 머스크 말에 시세 요동
대중 희비 갈리며 분노 표출
낮선 시대 의지처 없음 방증

'자등명 법등명' 유훈 상기를
주인공 돼 주체적 삶 살아야

'암호화폐 폭락' '가상화폐시대 끝났나?' 'ㅇㅇ코인교의 노예' 최근 각종 미디어와 뉴스 등에 등장하는 헤드라인의 내용이다. 어디를 가든 수많은 사람들이 연일 가상화폐의 이야기로 뜨겁다. 가히 2021년의 화두는 '가상화폐' 인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현상이 결코 낯설지 않다. 불과 반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온통 주식이야기뿐이었다. '영끌' 'S전자 주식시세' 등 전 국민 모두가 주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죽하면 '동학개미' 라는 표현이 만들어질 정도로 겨울의 추위를 녹여버린 뜨거운 사회적 이슈였다. 그리고 이제 그 광풍은 가상화폐로 변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열풍이 결코 긍정적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행동이 제약받고 대면이 극도로 주의되는 현실 속에서 투자를 통해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 살아가려는 의지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선을 너무나도 지나친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가야산 깊은 산중에 사는 필자의 귀에까지 여러 사람을 통해 투자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과연 이들은 누구로부터 무엇을 위해 이러한 걱정과 근심을 짊어지고 해야만 하는지 오히려 걱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아마 현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은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일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SNS에서 한 말을 마치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듯 모두가 몰려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으나, 불과 며칠 사이에 날개를 잃고 추락하듯 그 가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락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일론 머스크로 돌려 그 탓을 하며 매일같이 한숨만을 쉬며 지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일론 머스크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정을 함께 공감하고 걱정하고 있을까?

어쩜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낯선 시대 속에서 의지처를 잃고 헤매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고 그 핑계의 대상을 찾고 남 탓만을 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시기조차도 지나가고 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먼 길의 끝을 응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두커니 서있기만 한 자신을 남의 핑계로 정당화할 수도 없다. 지금 당장 눈떠서 자신의 주체성을 되찾고 길 위에 서있는 자신의 발끝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힘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그 누구도 우리를 어려움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였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초래한 것도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었던 것이다. 코로나 사태도 어느덧 중후반부를 향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름부터 '노마스크' 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어떠한 시대에도 잊지 말아야할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유언인 '자등명 법등명' 이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연기법)을 등불로 삼아 칠흑같이 어두운 삶과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라는 가르침이다. 여기서 '등불' 의 표현은 '섬' 으로도 해석한다. 즉 우리들 한 명 한 명은 불확실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삶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결정에 의해 바른 법을 선택하기도 하고, 삿된 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언제까지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과 시대를 탓하며 머무르고만 있을 수 없다. 한 생각 일으켜서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 시간만을 바라보지 말고 다가오는 매순간을 직시하며 이번 여름안거를 우리 자신을 위해 뜨겁게 보내야겠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아들 일으킨 母情

몸이 불편하신 스님을 모시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후 이른 저녁을 먹기 위해 원내 식당을 찾아 들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스님"하고 부른다. 누군가 싶어 돌아보니 바로 며칠 전 전화 통화를 했던 한 보살이었다. 눈에 반가움의 눈물이 금새 맺히는 것을 보며 나도 가슴이 뭉클하였다. "어쩐 일이세요"하고 물으니 "아들 외래진료차 왔습니다. 뒷모습을 보는데 꼭 스님 같다고 하니 우리 아들도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막 달려 온 겁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친다.

코로나19로 인해 환자 방문뿐 아니라 병원의 출입까지 힘들었던 지난해 8월 경, 한 봉사자로부터 환자 보호자 중 한 명이 스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병실을 방문했다.

아들이 병석에 누워있고 보호자인 어머니가 보조침대에 앉아있다가 병실 안으로 들어서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들의 차가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그림 · 최주현

보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보살은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어느 날 보살은 '마음이 아파도 자식 앞에서 몇 번이나 뜨거운 눈물을 참고 참았는데 오늘은 그냥 눈물이 나오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왔다. 이에 '힘내십시오. 보살님이 강건하셔야 아드님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답장했다. 코로나 상황이라 아픈 마음을 문자나 전화를 통해 위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보살은 '불교법당' 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아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종교실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길 바라는 병원 측 입장이 있었기에 법당을 패쇄하고 있던 중이었지만, 보살은 법당 문 앞에서 기도를 강행하였던 것이다.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법당 문만 개방해 놓는 것으로 결정했다. 보살은 하루도 빠짐없이 법당을 찾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눈물의 기도였으리라.

다음 달에 아들을 데리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을 전전하며 아들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 어느새 일 년이 되었다. 그런데 1년 동안 기적을 이뤄졌다. 걷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뛰어넘어 좌절에 넘어진 아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고, 결국 아들은 한 걸음씩 난간에 의지한 채 걷기 시작했다. 나는 법당 부처님께 감사의 삼배를 올렸다. 이 병원 내에서 힘과 용기를 얻은 불자의 소식과 아들을 일으킨 어머니의 정성을 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불교성전〉 수지독송에 동참하자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5월 발원한 〈불교성전〉 법보시 불사에 참여하는 불자대중의 열기가 뜨겁다. 1명의 불자가 3명에게 〈불교성전〉을 추천하면 다시 그 3명이 각자 3명에게 〈불교성전〉을 추천하는 불교성전 챌린지가 4차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이벤트에는 100명이 넘는 이들이 〈불교성전〉 구입을 인증하고 있다. 또 서울 연화사가 수지독송 모임을 구성하고, 전국 사찰들이 법회 법문 자료와 교양대학 교재로 활용하는 등 〈불교성전〉을 다각도록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계종단본 〈불교성전〉은 기존에 유통된 불교성전들이 한역대장경에 기초를 두었던 것에 비해 현대불교학의 연구와 번역 성과를 반영했다. 현대사회에 필요한 주제별 키워드를 선정해 구성했기에 법회나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수월하다.

성전 자체의 특성으로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운동을 더욱 장려하고, 사찰이나 신행단체에서도 읽기모임 등이 일기 위해서는 독송대회, 독후감 대회, 교육 정규커리큘럼에서의 편입 등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포교원에서 불교대학 학장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 중이라니 기대해볼 만 하다.

한국불교는 그동안 신행의 중심이 될 경전을 찾아왔다. 〈금강경〉 〈법화경〉 등이 있지만 오래된 경전의 인식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우리말로 현대적 편집이 가미된 〈불교성전〉은 그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제 남은 것은 포교 · 신도 단체들과 함께 법보시 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한권의 성전이 한명의 포교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지하며 우리 함께 〈불교성전〉 보급과 활용에 앞장서자.

사회화합 해치는 왜곡된 신앙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봉행되던 서울 조계사에서 선교를 명목으로 난동을 부렸던 개신교인들이 결국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시설 종무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종무원 56명은 개인 연명을 통해 개신교인들을 고소하면서 '선교난동' 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종무원들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서 개인교인들의 행태에 법적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계는 그동안 일부 개신교인들의 불교폄훼 발언 및 과도한 선교행위, 훼불, 종교비하로 인해 고통 받아 왔다.

개신교계의 도넘은 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져 불자들의 마음에 상채기를 냈다. 조계종 종무원들이 이웃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선교행위, 선교난동이야말로 종교평화를 해치고 종교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때문에 종무원들의 고소 조치는 이제 더 이상의 '관용' 은 없다는 선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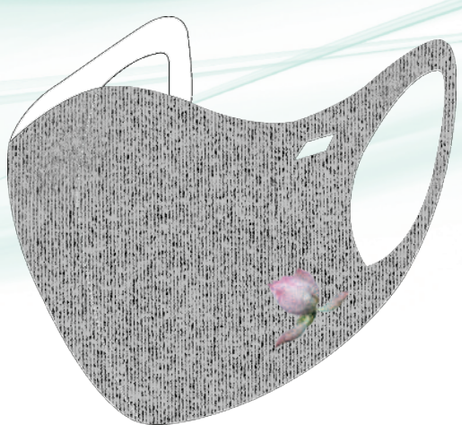
이번 고소가 개신교계를 향한 분노의 표출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종교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점이자 왜곡된 신앙심으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종무원들의 고소는 시작에 불과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이, 보다 큰 틀에서 사회 곳곳의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어져야 한다. 개인 혹은 일부 단체를 향한 단죄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인식의 전환이며, 인식은 법과 제도에 기반한 정책으로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개신교인들의 왜곡된 신앙심으로 불자들이 상처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발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Antibacterial 항균
Anti-Splash 비말차단
UV Protection UV차단
Fast Drying 빠른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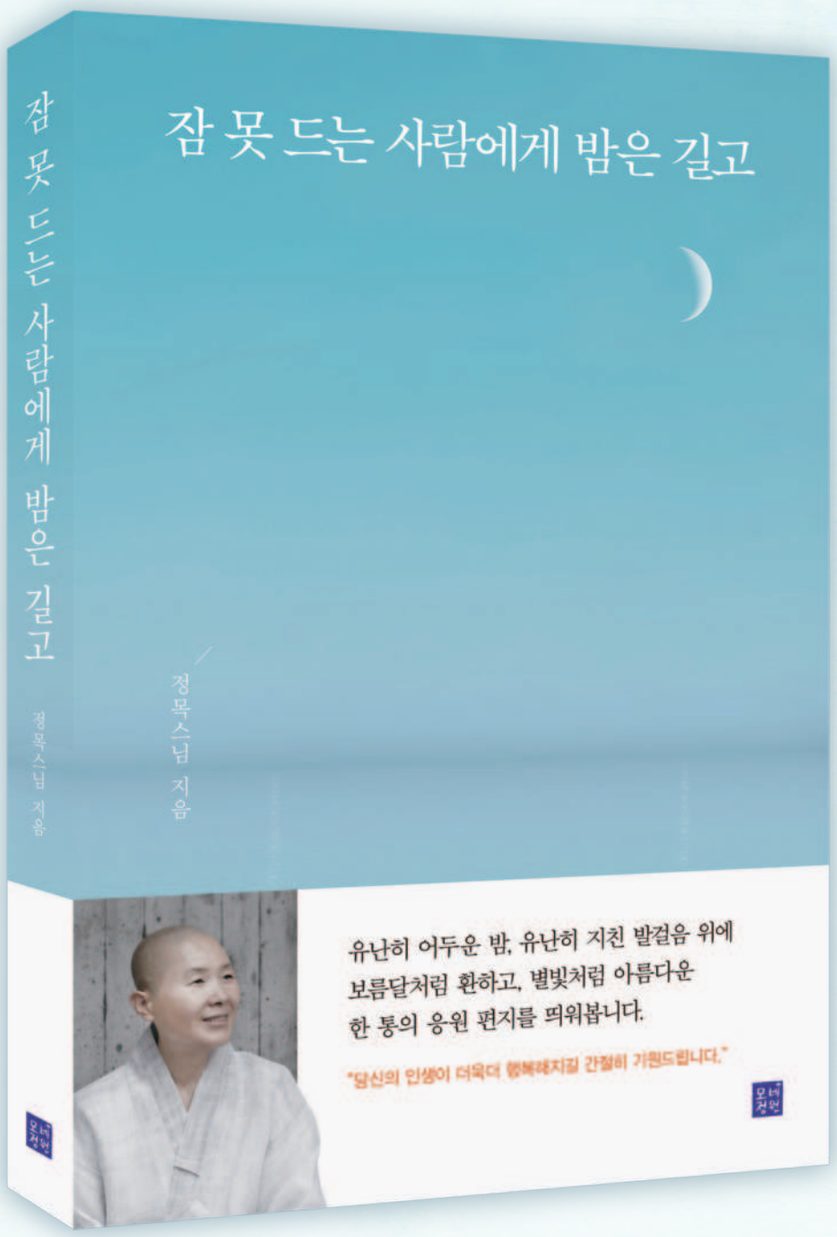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베스트 셀러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지음 / 248쪽 / 14,000 ⇨ **12,600원** (배송비 별도)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마음이 향기를 내는 책, **법보시 주문**은 02)732-1520 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모네정원 모네의 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